

07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July 2025
vol. 288

Art + Culture



Cartier



CHANEL

COLLECTION MÉTIERS D'ART 2024/25



Danielle Marsh - Marisa Abela

my little secret



SEAMASTER #AQUATERRA 30 MM
Co-Axial Master Chronometer



갤러리아 명품관 EAST 광교점 롯데 본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인천터미널점 현대 목동점
무역센터점 더현대서울점 신세계 본점 더 리저브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점 대구점



DIOR

ROSE DES VENTS COLLECTION

Contents

- 13_ **TIME TRAVELER** 전 세계를 자유로이 누비는 여행자를 위한 위치 6.
- 14_ **오랜 항구도시의 역사적인 랜드마크, 이주와 자유를 말하다** 현대 건축의 작은 메카와도 같은 로테르담에서 만나는 새 미술관 페닉스(Fenix)의 건축과 문화 예술 콘텐츠의 화음.
- 18_ **THE ULTIMATE CREATION** 까르띠에가 빚어낸 궁극의 아트피스.
- 22_ **OUT OF CITY** 견고하고 만물새가 단정한 라탄 백.
- 23_ **THE GREAT MAISON** 바쉐론 콘스탄틴이 2025년 6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 메종 1755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 24_ **WEAVING THE WORLD, THE LANGUAGE OF INTRECCIATO** 보테가 베네타의 상징인 인트레치아토(intrecciato)가 탄생 50주년을 맞이했다.
- 26_ **REACH FOR THE STARS** 샤넬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 공개된 밤, 세 가지 모티브인 별, 사자, 날개에서 시선을 땔 수 없었다.
- 30_ **THE WORLD OF MASTERPIECE** 루이비통 메종이 '버추어시티 하이 주얼리'를 공개했다.
- 32_ **LITERALLY CREATED DIAMONDS** 스와로브스키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중 국내 최초로 랩그로운(lab-grown) 다이아몬드 컬렉션인 SCD(Swarovski Created Diamonds)를 론칭하며 새로운 주얼리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까르띠에는 단편적인 소재와 콘셉트를 넘어 끝없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물론 정스톤을 향한 메종의 열정, 탁월한 노하우 및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속 제품은 화이트 골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오파스,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문의 1877-4326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 34_ **GET THE LIST** 여름 무드를 즐기는 특별한 선택.
- 36_ **LANDING MARS** MCM의 헤리티지와 기능적 디자인에 능한 로우로우의 극적인 만남.
- 37_ **PROFESSIONAL TECHNOLOGY AT HOME** 수십 년간 검증된 최고 기술만 담아 가정용 뷰티 다바이스로 선보이는 트러플라.
- 38_ **EUROPE IN SEOUL** 7월 24일까지, 서울 다아닝 신(scene)에 유럽의 맛이 펼쳐진다.
- 40_ **하룻밤으로는 모자란 루르몬트(Roermond)의 매력** 마식, 소풍 등의 다면적인 매력이 흐르는 네덜란드의 소도시, 루르몬트.
- 43_ **ART+CULTURE** 이번 〈스타일 조선일보〉'Art+Culture' 여름 스페셜호에서는 이주와 인간인 정체성을 다루는 현대미술, 저마다의 이유로 노매드의 여정을 꾸려온 다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44_ **느릿한 '현재(現在)'를 흐흐하는 빛의 공간** 앤서니 맥클 인터뷰 in 뉴욕
- 46_ **'인류의 축제'에 남겨질 질문들**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 48_ **숲과 바람의 리마로 돌아온 패티 스미스**
- 50_ **지언무언(至言無言), 말이 다다를 수 없는 이강소의 세계**
- 51_ **이동하고 거주하는 제임스 터렐표 빛의 공간**
- 52_ **올리브나무 벗 삼아, 깊고 푸른 에게해를 바라보다** 아만조에(Amanzoe) in 그리스
- 54_ **당신은 아직도 예술이 인간만의 이야기라고 믿는가?** 피에르 위그, 초지능 시대의 미술
- 55_ **창동에서 시작하는 한국 사진 예술 기행**
- 56_ **갑내지 않고, 멈추지 않는 '행동으로서의 예술'**
- 57_ **시각 언어로 시대를 조각하는 M/M(Paris)**
- 58_ **EXHIBITION IN FOCUS**
- 59_ **REMEMBER THE EXHIBITION**

12

43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New Shape of Flowers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공간과 사물을 연결하는 하나의 오브제이자 매개체다. 무헤(MUHE)는 꽃의 물성과 기물의 조형미를 탐구하고 조합해 또 다른 장르를 개척하고 있으며, 플라워 디자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 무헤의 대표 이현정은 플로리스트로서 포시즌스 호텔, 웨스틴 조선 호텔, 신세계백화점 등 다양한 업계와 협업 활동을 전개하며 10여 년간 공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다져왔다. 프랑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폴렌느(Polène)가 국내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을 당시 플로리스트이자 공간 디자이너로서 무헤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꽃뿐 아니라 특수 처리로 시들지 않게 만든 프리저브드 플라워도 선보였다. 특별한 날, 특히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여름철에 걱정 없이 선물하기 좋다. 무헤의 여정은 플라워 디자인을 넘어 큐레이터로서의 역할까지 이어진다. 프랑스, 독일, 체코 등 유럽의 각 지역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발굴하고 글라스 제품을 바잉해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간결하고 깊이 있는 꽃 아레인지먼트뿐만 아니라 꽃과 어울리는 오브제의 균형미를 알리고 감각적인 오브제를 채운 공간 장식에 이르기까지, 무헤는 늘 꽃과 함께 일상의 순간을 특별함으로 차곡차곡 채우는 중이다. 문의 www.mu-he.com

Spirit of Italy

이탈리아 대표 주얼리 매종 다미아니에서 눈부신 아름다움을 지닌 이탈리아에 찬사를 보내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 'Ode to Italy'를 출시했다. 매종만의 섬세한 금 세공 기술과 스톤에 대한 노하우를 보여주는 화려한 세 가지 네크리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작품은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지역과 지형, 자연 등 다채로운 풍경에서 영감받아 탄생했다. 그중 마레아 로사 네크리스는 이탈리아 해안의 휴양지에서 영감받은 작품으로 희소한 파라이바 투르말린을 세팅해 이탈리아 바다의 맑고 포근한 색감을 떠올리게 한다. 또 화이트와 핑크 골드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섬의 아름다운 해변과 그들을 표현하고 섬세한 핑크 컬러의 나베트 컷 모게나이트와 화려한 컷의 다이아몬드로 바다 위 태양의 반짝이는 빛을 묘사했다. 다미아니는 이 작품과도 같은 하이 주얼리 피스로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한다. 문의 02-515-1924



Shades of Gold

강력한 오라를 뿜어내는 골드 워치 & 주얼리.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포멀라도 화이트 다이아몬드 로즈 골드 투게터 링 9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링.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다이아몬드 로즈 골드 뱅글 로즈 골드에 총 0.25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일정한 가격으로 파베 세팅했다. 1천4백27만원. 문의 02-2256-6810	더 추가해 화려함을 배가했다. 1천4백30만원. 문의 1668-1874 부챗살터
로즈 골드 링.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피아제 포제션 이어링 18K 로즈 골드와 3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후	골드 워치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과 케이스가 머더오브펠 다이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3천9백만원. 문의 02-6905-3490 포토 그래픽
시그니처 컬렉션 파베	다이아몬드를 각각 하나씩	윤지영 에디터 선정임



Gradation Chic

오메가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워치 컬렉션이 새로운 컬러 그레데이션으로 돌아왔다. 바로 오메가 레일마스터. 이 워치 컬렉션은 1957년 프로페셔널 라인이라는 트릴로지 컬렉션의 일환으로 과학과 탐험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이 이뤄지던 시기,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헌신하는 의미로 출시한 워치 시리즈다. 레이싱 카 드라이버를 위한 스피드마스터, 해양 다이버를 위한 씨마스터 300, 그리고 레일마스터는 철도 종사자를 위한 워치다. 철도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한 워치인 만큼 뛰어난 항자성을 자랑하며, 이번 신제품은 업그레이드된 무브먼트로 최대 1천5백 가우스의 자기장을 견딜 수 있다. 블랙 그레데이션이 돋보이는 그레이 다이얼 버전, 베이지 다이얼에 블랙 그레데이션이 돋보이는 버전, 두 가지로 출시되었으며 38mm 사이즈로 선보인다. 문의 02-6905-3301



Eternal Shine

'이타널 N'5 주얼리 컬렉션은 N'5 항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완성한 컬렉션이며 현재까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숫자 5의 구조적 세이프에 초점을 맞춰 독보적인 개성을 부여했다.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등 모자랄 것 없이 다채로운 라인업을 공개했는데, 그중에서도 '이타널 N'5 다이아몬드 라인(ETERNAL N'5 DIAMOND LINE) 네크리스는 라운드 다이아몬드 중앙에 위치한 5 모티프 펜던트, 그리고 항수 방울을 형상화한 드롭 형태의 다이아몬드가 리드미컬한 조화를 이룬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Bigger is Better

빅 백의 유행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떤 스타일에 매치하든 잘 어울리는 실루엣, 필요한 소지품을 전부 넣어도 거뜬히 품는 넉넉한 사이즈가 특징이다. 관건은 다양한 장식으로 화려하고 복잡하게 마무리하기보다 여백의미를 살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샤넬 '2024/25 공방 컬렉션 라지 쇼퍼백'은 모난 곳 없는 스커어 셰이프, 정제된 디자인 등 필요충분조건을 완벽히 갖췄다. 특히 고급스러운 베이지 톤 스웨이드와 블랙 랩 스킨,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골드 톤 메탈의 조화에서 샤넬 특유의 공예 감각은 물론 실용성과 우아함을 모두 느낄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Honor Legacy

바쉐론 콘스탄틴 '레 컬렉션서너(Les Collectionneurs)'는 빈티지 타임피스를 수집해 판매하는 서비스다. 매종은 내부 헤리티지 전문가를 통해 무브먼트의 부품 하나까지 까다로운 확인을 거쳐 선정하며 빈티지 전문 워치메이커가 완벽하게 복원한다. 그 때문에 레 컬렉션서너를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시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매종의 역사와 유산의 중요한 일부를 소장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소개하는 레 컬렉션서너 피스는 1949년에 제작되어 크로노그래프를 탑재했으며, 18K 핑크 골드 포인트의 바통형 핸즈의 우아한 조화가 돋보인다. 이 귀한 빈티지 타임피스는 한국 시계 애호가들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 매종 1755 서울에서 방문 예약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877-4306

Hello, New Icon

프라다 2025 F/W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인 '다다(Dada)' 백은 나파 가죽으로 완성한 비정형적 실루엣이 특징이며, 부드러운면서도 강인한 다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가방 중앙을 가로지르는 벨트 디테일은 가방의 볼륨과 실루엣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길게 뻗은 2개의 핸들과 이어져 마치 끊어질 듯 연결되는 착시 효과로 색다른 분위기를 전한다. 벨트를 조이는 디자인과 버클은 브랜드의 미학을 반영한다. 단순한 기능을 넘어 상징적인 디테일로 진화해오고 있으며, 이번 시즌 다다 백에는 생세하고 정제된 형태로 적용되었다. 블랙을 필두로 그레이, 베이지 등 다양한 컬러로 선보일 예정. 가격 미정. 문의 02-3442-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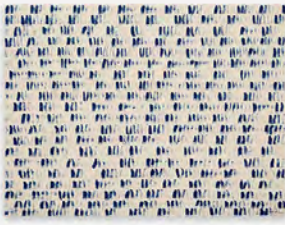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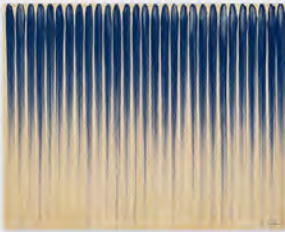
Most Desired

음악과 사진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기능성은 물론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테크 아이템 5.

- | | |
|--|--|
|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후지필름 인스탁스 미니 12 블라썸 핑크 셀피러 기능을 적용해 손쉽게 셀카 모드로 촬영하고 현장에서 바로 인화할 수 있다. 12만9천원. 문의 02-3281-7700 니콘 Zfc ISO 100부터 51200까지 뛰어난 감도와 눈 인식 AF 기능을 추가해 다양한 환경에서 선명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0-6600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HX 무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주변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해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79만9천원. | 문의 02-518-1380 라이카 소포르트 2 버튼 에디션 소노보드 브랜드 버튼(Burton)과 협업해 선보인 제품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줌식 카메라. 98만원대. 문의 1661-0405 소니 SRS-XB100 오픈지 274g의 가벼운 무게와 한 손에 들어오는 콤팩트한 사이즈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초소형 블루투스 스피커. 단단한 충격을 위한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내장해 고품질의 사운드를 들려준다. 8만9천원. 문의 1588-0911 포토 그래픽 윤지영 에디터 선정임 |
|--|--|

ARTCOLLAB

Lee Ufan
signing prints,
2025, Oresti
Tsonopoulos
for Avant Arte



이우환×아방 아르떼×디아, 특별 에디션 공개

요즘 예술은 더 이상 갤러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작가와 손잡고 한정판 에디션을 선보이는 협업은 감상과 수집의 방식을 유연하게 확장한다. 이런 흐름 속,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이우환 화백이 온라인 아트 플랫폼 아방 아르떼(Avant Arte), 그리고 미국의 비영리 현대미술 기관 디아 아트 재단(Dia Art Foundation)과 함께 실크스크린 프린트 에디션을 선보였다. 선으로부터(From Line), '점으로부터'(From Point I), '점으로부터 II'(From Point II)로 구성된 총 3점의 프린트는 1970-80년대 이우환의 대표작 중 디아에 기증한 회화를 재구성해 제작됐다. 특유의 반복적인 붓질과 여백의 미학이 실크스크린이라는 매체에서도 또렷하게 살아 있다. 고밀도 메시와 독일산 UV 잉크를 활용해 원작의 질감을 세밀하게 구현했으며, 각 프린트는 작가 서명을 포함한 1백50장 한정판으로 제작됐다(가격은 6천 원로). 해당 에디션은 지난 6월 아방 아르떼 웹사이트에서 먼저 공개했으며 내년 봄 디아 비전에서 열리는 이우환 개인전에서도 실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협업은 아방 아르떼가 미술의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고자 주요 미술 기관과 함께 진행해온 공공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판매 수익 전액은 디아 재단의 프로그램과 소장품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avantarte.com 글 강주희(객원 에디터)

화려한 크리스탈 버클을 장착한 스트라스
라피아 웨딩를 가격 미정 로저 바비에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완벽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타임존을 갖췄다.
전 세계를 자유로이 누비는 여행자를 위한 위치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유부터 차례대로) **파넬라이 루미노즈 GMT** 충격 방지 장치와 티타늄 케이스를 통해 안정성을 높였으며 무브먼트는 P9010 칼리버를 선택해 무려 39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두 가지 타임존을 갖추어 여행 시 출발지와 도착지의 시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2천1백30만원. 문의 02-6905-3391 **가브리엘루 네비타이머 오토매틱 GMT** 41mm 케이스에 스텝-루미노바® 인덱스, 사침, 분침, GMT 행트 등을 더했으며 약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브리틀링 칼리버 32를 장착했다. 9백49만원. 문의 02-792-4371 **데그외어 가래리 데이트 트윈 타임** 텔그린 컬러 다이얼에 실버 톤 플렌지, 장인의 끈이 연결되는 레드 GMT 행트, 승인의 표식을 나타내는 케이스 백 등을 통해 레이스를 향한 찬사를 엿볼 수 있다. 7백2만원. 문의 02-3479-6021 **메이카 시스타이머 아우어 타워 150M** 코-엑시탈 이소케이프를 장착한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와 무려 1만천 개 가스킷 이상의 높은 항자극력을 지녔다. 지름 43mm 케이스에 듀얼 타임 기능의 GMT무브 세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월드타임이 기능까지 적용해 여행자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1천4백만원. 문의 02-3479-6025 **에르메트르 리네라소 트리뷰트 지오그라피** 다이얼 뒷면에 펼쳐진 월드타임 디스케임을 주목할 것. 폴리스 처리한 케이스 백에 세계지도와 경도는 물론 여러 나라의 도시 이름들을 새겼다. 표지장 내부를 통해 낮과 밤도 확인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998 **브레게 마린 오라돈트 5557** 8시 방향의 푸시 버튼을 클릭하면 즉각적인 시간 전환이 가능한 듀얼 타임 디스플레이가 특징이다. 정교한 기술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서도 특이하기 힘든 다양한 소재의 다층적 플레이트 구조로 단순한 시계가 이상의 역동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571 **에타리 김하얀**



페닉스(Fenix) 미술관 in 로테르담(Rotterdam)

오랜 항구도시의 새 랜드마크, 이주와 자유를 말하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름 자체가 '낮은 땅'을 뜻하는 네덜란드는 유난히 평평한 땅이 물보다 낮게 자리한 나라다. 당연히 사방에 물이 흐르다 보니, 이 나라 사람들은 강에 둑(dam)을 쌓고 그 위에 자신들이 살아갈 거주지를 만들었다. 원래는 라인강, 마스강, 스텔더강의 퇴적물이 빚어낸 갯벌이던 서부 지역에 암스테르담, 스파르담, 에담 등 이름이 담(-dam)으로 끝나는 도시가 많은 이유다. 그중 하나인 로테르담은 13세기 작은 어촌으로 출발했지만 대항해 시대를 거쳐 이 나라 제2의 도시이자 유럽 최대의 무역항으로 거듭났다. 특히 산업혁명 여파로 19세기는 항만 시설과 인프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 혹은 '세계로 이르는 길' 같은 별칭이 따라붙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 확장의 중심에 있던 건물이 '샌프란시스코 웨어하우스'라고 불리던, 1923년 완공된 세계 최대 규모의 창고였다. 길이 360m가 넘는 이 커다란 창고는 당시 미국과 유럽을 잇는 선박 라인인 HAL(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로테르담의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무참히 파괴되었고, 이를 계기로 도시 전반에 혁신적인 건축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됐으며, 그 기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지만 '무역의 수도'이자 '건축의 수도'는 로테르담이라고 여겨지는 배경이다. UN 스튜디오가 설계한 에라스무스 다리, 기우통한 자태가 인상적인 렌초 피아노의 KPN 빌딩, 뎀 쿨하스(OMA)의 개성 만점 복합 공간 '데 로테르담', 주상 복합 마르크탈(Markthal)과 보이만스 판 비닝언 미술관의 개방형 수장고인 더 데포(The Depot) 같은 로테르담에 기반을 둔 건축 스튜디오 MVRDV의 재기 넘치는 작업... 그야말로 현대 건축의 작은 메카와도 같다. 다시 20세기 중반으로 돌아가자면, 전쟁이 가한 폭격과 화재로 망가진 샌프란시스코 창고도 재건을 거쳐 '페닉스(Fenix)'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페닉스 I과 페닉스 II라는 두 채의 별도 건물로 나뉘었다). 그중 페닉스 II는 중국 베이징 출신의 건축가 마안송(Ma Yansong)이 이끄는 MAD 아키텍츠의 설계로 '이주(migration)'를 큰 맥락의 주제로 삼은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탈바꿈했다. 비 예보까지 피해가며 환한 햇살의 축복이 쏟아진 지난 5월 중순, 페닉스 미술관 오픈팅 기간에 다녀왔다.



정중동, 동중정의 미학

'이주'를 둘러싼 이야기를 담은 미술관으로 거듭난 오랜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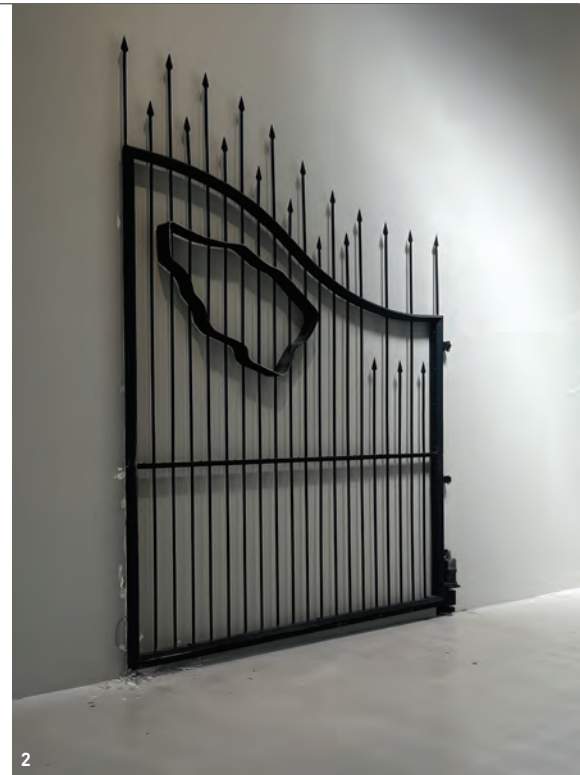
"하나, 둘, 셋" 해맑은 미소와 함께 눈을 동그랗고 뜨고 합창하는 아이들, 세련되고 경쾌한 안무로 관중의 험찬 박수를 이끌어내는 댄서들의 공연이 잇따라 이어지고 난 뒤, 드디어 '가운뎃다운'이 울려 퍼졌다. 시종일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던 네덜란드 막시마 왕비가 커다란 북의 정중앙을 겨냥해 "탕" 하고 북을 내려치자, 일제히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고는 나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된 미술관 안으로 거의 뛰다시피 쏟아져 들어갔다. 로테르담의 젓줄인 마스강이 유유히 흐르는 남쪽 강둑에 새롭게 등장한 페닉스(Fenix)의 개막식 풍경은 시민들의 작은 축제 현장 같았다. 아담한 규모의 행사에 참석한 초청객들은 물론이고 근처에 여러 겹 파리를 틀고 서서 지켜보는 이들, 강둑 저편부터 미술관을 있는 다리 위에 이르기까지 길게 늘어선 구경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애정 어린 관심도를 말해준다. 그도 그럴 것이 한적하고 평온한 분위기의 카텐드레흐트(Katendrecht) 지역에 또 하나의 인상적인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강둑을 따라 기다랗게(360m) 펼쳐진 옛 창고 건물 위에 하늘을 향해 용솟음치듯 나선형으로 이어진 원형의 실체를 다들 궁금해했을 터다.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 고요함

누군가는 "미술관이라 그런가. 건물 위에 조각을 얹어놓았네"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 이 '덩어리'의 정체는 '토네이도(tornado)'라 불리는 건축적 요소이자 루프톱에 속한 공간의 일부이기도 한 구조물이다. "움직임(movement)"을 상징하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주' 역시 일종의 움직임이죠. 모두의 시선을 잡아끄는 토네이도를 설계한 마안송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토네이도'라는 이름을 지은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다들 그렇게 부르더군요"라고 덧붙였다. 길만 보면 화려할 듯도 싶지만, 내부로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밝은 기운이 깃든 차분함이 느껴진다. 물론 '토네이도'의 분신 같은 나선형 계단이 중앙에서 역동성을 가미하며 중심을 잡아주지만, 전혀 과하지 않다.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토네이도'를 품은 루프톱으로 향할 수 있는데,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전망을 선사한다. 마침 그날은 반짝이는 관람객들의 형상을 담아내는 토네이도의 은빛 패널 사이로 미풍이 살랑인 덕분일까. 의외로 토네이도가 수호신 역할이라도 하듯 외려 쾌적하면서도 고요한 정취가 느껴졌다.

1 로테르담의 역동적인 젓줄이 되어온 항구를 둘러싼 '거의 모든 것을 응축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방문자 센터이자 전시 공간인 포틀란티스(Portlantis). 이 도시를 잇드러진 건축으로 수놓아온 로테르담 기반의 건축 스튜디오 MVRDV가 설계한 건물은 5개의 박스를 엮기로 쌓아놓은 듯한 층층의 미학이 이색적이다. 2 미국과 유럽을 잇는 선박 라인을 주관하는 HAL(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의 사무실이었던 호텔 뉴욕이 멀리 보인다. 3 주변 환경을 반사하는 그릇 모양의 외관이 독특한 더 데포(The Depot of 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4 '물의 도시' 로테르담은 수상 택시를 타고 도시를 한 바퀴 빙 돌면 '건축의 도시'임을 절로 느끼게 되는데, 페닉스(Fenix)가 그 매력적인 스펙트럼에 새롭게 합류했다. 5 페닉스를 배경으로 르네 마그리트의 회화 'La Victoire'를 연상시키는 작품인 개빈 터크(Gavin Turk)의 작품 'L'Age d'Or'가 미술관 근처의 유서 깊은 항구 레인하벤(Rijnhaven) 지역에 놓여 있다. Photo © Iris van den Broek 이미지 제공_ Fenix Rotterdam 6 페닉스 내부에 유연하고도 무게감 있게 자리한 나선형 계단. 7 페닉스 설계를 맡은 MAD 아키텍츠를 이끄는 건축가 마안송(Ma Yansong). 8 역사적인 창고였던 페닉스는 강둑을 따라 펼쳐진 파사드 길이가 360m나 된다. ※1~4, 6~8 Photo by 고성연





메세나의 좋은 사례가 될까?

열정적인 예술 후원가와 글로벌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풍경

주로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인 주 전시장 말고도 페닉스 1층에는 이주의 역사를 사진 예술로 훑어 보는 기획전 《The Family of Migrants》,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민자, 이주자가 기증한 2천여 개의 수트케이스를 모아놓은 《The Suitcase Labyrinth》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별도의 간막이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도 복잡하거나 어지러운 느낌이 들지 않는 건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과 더불어 개성 있는 건축을 입힌 상업 시설이 밀집한 강 건너편의 거리 풍경 덕분일 것이다. 나선형 계단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2층 주 전시장에서 바로 이 도시에서 ‘SS 로테르담’이라는 배에 몸을 싣고 뉴욕으로 떠났다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초상을 보다가 문득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고풍스러운 ‘호텔 뉴욕(Hotel New York)’의 실루엣이 은은하게 넘실댄다. 과거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HAL)의 사무실이었던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이민자들의 임시 숙소 역할을 했고, 시 정부의 지원으로 1993년 이름처럼 잔파배기 호텔로 변모한 전설적인 장소다. 오늘날에는 로테르담이 1백70개 여 개의 국적을 지닌 다양한 글로벌 시민이 거주하고 ‘문화적 혼종’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련된 국제도시로 서서히 거듭날 수 있게 한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해왔다. 페닉스가 등지를 튼 곳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차이나타운과 가깝다. 이쯤이면 대다수는 페닉스를 공공 미술관으로 여길 법도 하지만, 사실 문화 예술에 초점을 맞춘 드room 엔 다트(Droom en Daad) 재단에서 전적으로 공을 들인 곳이다. HAL을 소유한 사업가 집안인 판 데르 보름(Van der Vorm) 가문에서 후원하는 재단인데, 이 집안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암스테르담의 국립 미술관 레이크스 뮤지엄 관광 출신인 빔 페이버스(Wim Pijbes)가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재단에서 올라온 문을 여는 국립사진미술관의 이전과 재개관 프로젝트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현재 MAD 아키텍츠가 또다시 설계를 맡은 ‘단하위

7 페닉스 미술관 1층에서 진행 중인 사진전 《The Family of Migrants》 설치 모습. 에드워드 스타이켄(Edward Steichen)이 큐레이터로 참여한 전설적인 사진전에 영감을 받은 기획전이다. **8** 세계적인 사진가 그롬 매그넬 소속의 아시아 작가인 치엔치창(Chien-Chi Chang)의 작품. ‘A man who recently emigrated to New York eats noodles on a fire escape’(1998). © Chien-Chi Chang/Magnum Photos **9** 로테르담 무역사에서 주요한 플랫폼 역할을 했던 호텔 뉴욕. **10**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이주자, 이민자가 2천여 개의 수트케이스를 페닉스 1층의 별도 전시 공간에 모아놓은 《The Suitcase Labyrinth》 전시. ※ 2, 3, 6, 7, 9, 10 Photo by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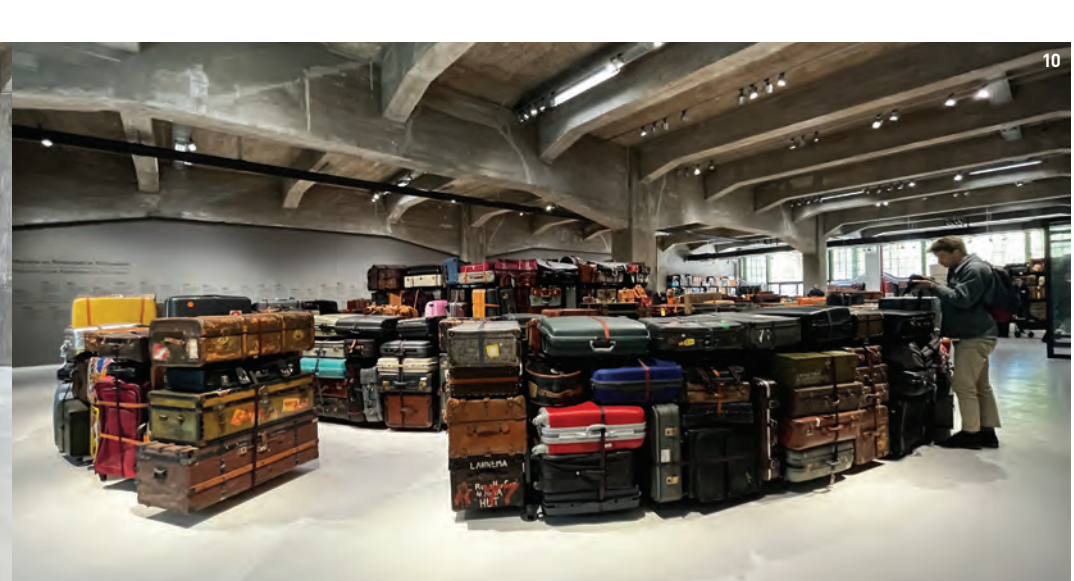
스(Danhuis)라는 공연 센터도 열 예정이다. 페닉스 건물 내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 ‘플레인(Plain)’이 있는데, 여기서 휴식을 취하다 찾은 젤라테리아에서 우연히 빔 페이버스 디렉터를 만났다. 그는 수많은 아티스트를 발굴했던 마얀송이라는 건축가를 학회에서 만난 뒤 곧바로 로테르담으로 초대하며 이 프로젝트를 함께 전개해나갔다. 역동적인 항구도시에 어울리는 유기적인 스타일이 좋았다고 강조한 그는 차이나타운에 어린 장소성의 인연이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훌륭한 ‘덤’이 되는 요소였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로테르담에 건내는 선물이자,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라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그는 ‘꿈의 실현’이라고 말하며 싱긋 웃었다. 물론 긴 여정에서 아직 첫 출항을 했을 뿐이지만, 새로운 건축과 문화 콘텐츠의 화음이 궁극해서라도 아무래도 다시 찾을 듯싶은 도시다. 글 고성연(로테르담 현지 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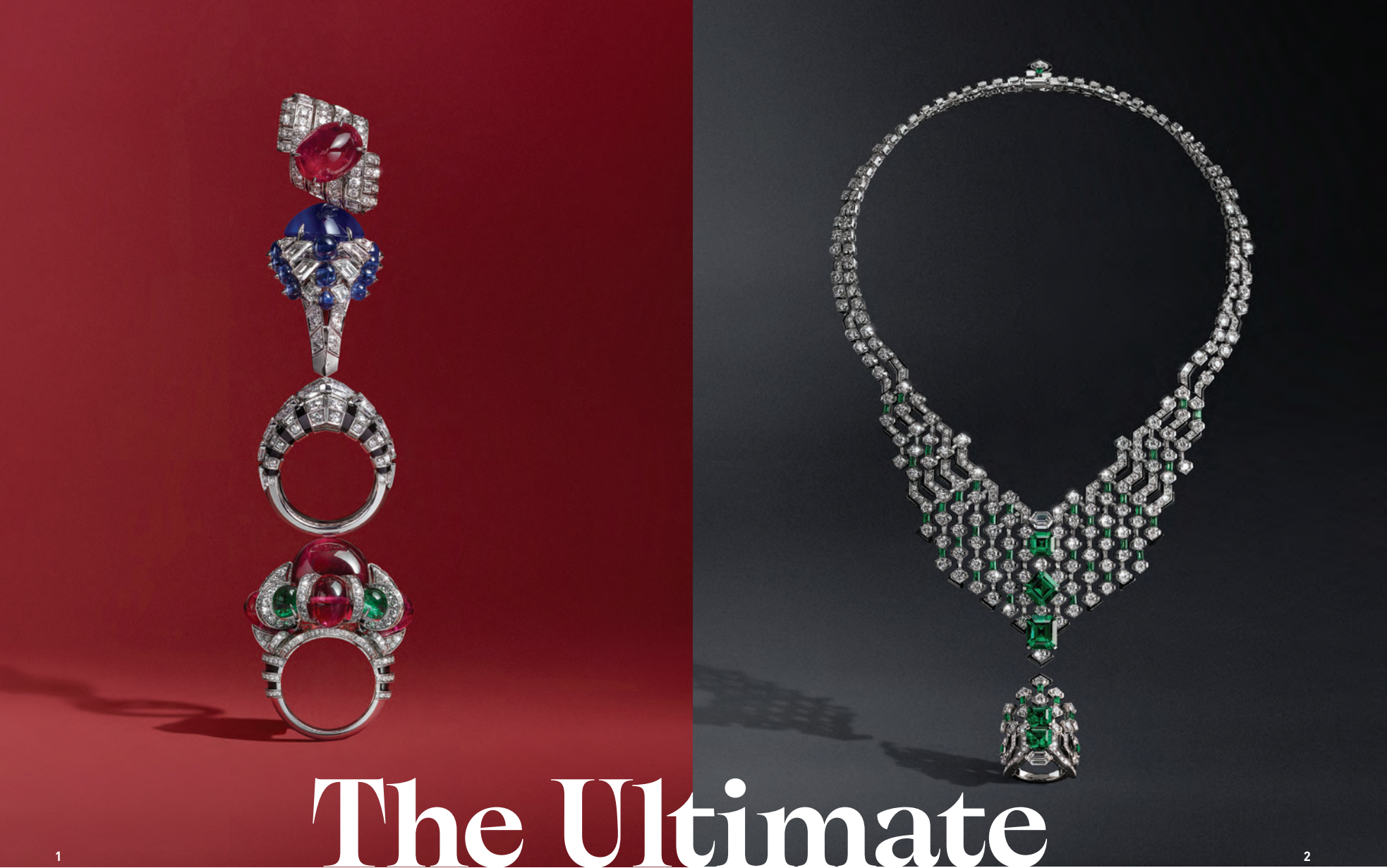
모든 ‘노매드’에 보내는 인사와 위로!

현대미술의 렌즈로 바라보는 이주자들의 삶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일찍이 21세기를 가리켜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동과 이주의 시대라고 했다. 인류의 과거사를 돌아보면 기술의 제약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을 때도 이주는 늘 진행되고 있었으나, 참으로 많은 사연이 따라붙었다. 1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주의 플랫폼으로 유명했던 로테르담의 항구 풍경은 어땠을까? 전체 면적이 16,000㎡(약 4천8백40평)나 되는 페닉스 미술관에는 크게 세 가지 전시 공간이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1층의 로비 공간 한쪽에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맡았던 HAL이 운항했던 커다란 배 모형이 놓여 있고, 가까이 있는 벽에서는 20세기 초·중반 해운 회사들의 활동을 볼 수 있는 영상이 흘러나온다. 이 영상에도 나오는 로테르담의 항구와 부두는 항공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 무역상이 오가는 이주의 플랫폼이었다. “전체 공간이 모두 ‘이주’라는 주제로 꾸려집니다. 여기에서는 예술의 렌즈를 통해 이주의 풍경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 여기에는 다양한 작가들이 1백50점 넘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경험, 이주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관점, 연구 결과물 등을 나눕니다.”

1 페닉스 미술관 2층에는 계단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주 전시장이 펼쳐져 있다. 네덜란드가 속한 유럽연합(EU) 회원국 공장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전시장 입구. Overview All Directions - © TITIA HAHNE **2** 30분마다 “쿵” 소리와 함께 문이 움직이며 벽을 치는 실파 굽타(Shilpa Gupta)의 ‘무제(Gate)’(2009). **3**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 모국 이집트의 문화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낸 하나 엘-사기니(Hana El-Sagini)의 작품 ‘빅 블루 슬리퍼스(The Big Blue Slippers)’(2022). **4** 어린 시절 이사를 자주 했다는 김수자 작가의 유명한 ‘보따리’ 시리즈 중 하나. Kimssooja, ‘Bottari Truck Migrateurs’, 2007, Collection Fenix. © TITIA HAHNE **5** 다인종 사회인 뉴욕의 사회문화적 풍경을 담아낸 레드 그로움스(Red Grooms)의 1995년 작품 ‘더 버스(The Bus)’. © TITIA HAHNE **6** ‘더 버스’를 배경으로 빔 페이버스(Wim Pijbes) 디렉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페닉스 초대 관장이 된 아너 크레머러스(Anne Kremers)의 설명이다. 이윽고 그녀의 ‘주 전시장 투어’는 실물 크기의 ‘버스’부터 시작했다. 안으로 들어가면 ‘멜팅 팟’이라는 별명을 지닌 미국 뉴욕의 다문화·다인종 사회를 축소해놓은 듯한 모습이 연출돼 있다. 레드 그로움스(Red Grooms)의 ‘더 버스(The Bus)’라는 1995년 작품. 직업 군인이던 부친을 따라 어린 시절 이사를 자주 했다는 김수자 작가의 유명한 ‘보따리’ 시리즈,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 모국 이집트의 문화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낸 하나 엘-사기니(Hana El-Sagini)의 작품 ‘빅 블루 슬리퍼스(The Big Blue Slippers)’(2022), 로테르담 태생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20세기 추상표현주의 거장 빌럼 더 쿨닝(Willem de Kooning)의 회화 ‘Man in Waincott’ (1969), 차 주전자와 랩톱 등을 넣은 그물망을 붓집쳐진 ‘노매딕 우주인’이라는 콘셉트가 재기 발랄한 영국 작가 잉카 쇼니바레(Yinka Shonibare)의 작업도 보인다. 그러다가 문득 “쿵” 하는 소리에 다들 시선을 돌리니, 가만히 있던 ‘철창 문’이 벽에 부딪히면서 파르르 떨리는 광경이 펼쳐진다. 30분마다 작동하는 실파 굽타(Shilpa Gupta)의 ‘무제(Gate)’(2009)라는 작품으로 소외된 이들에게는 ‘경계라는 철창이 무자비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The Ultimate Cre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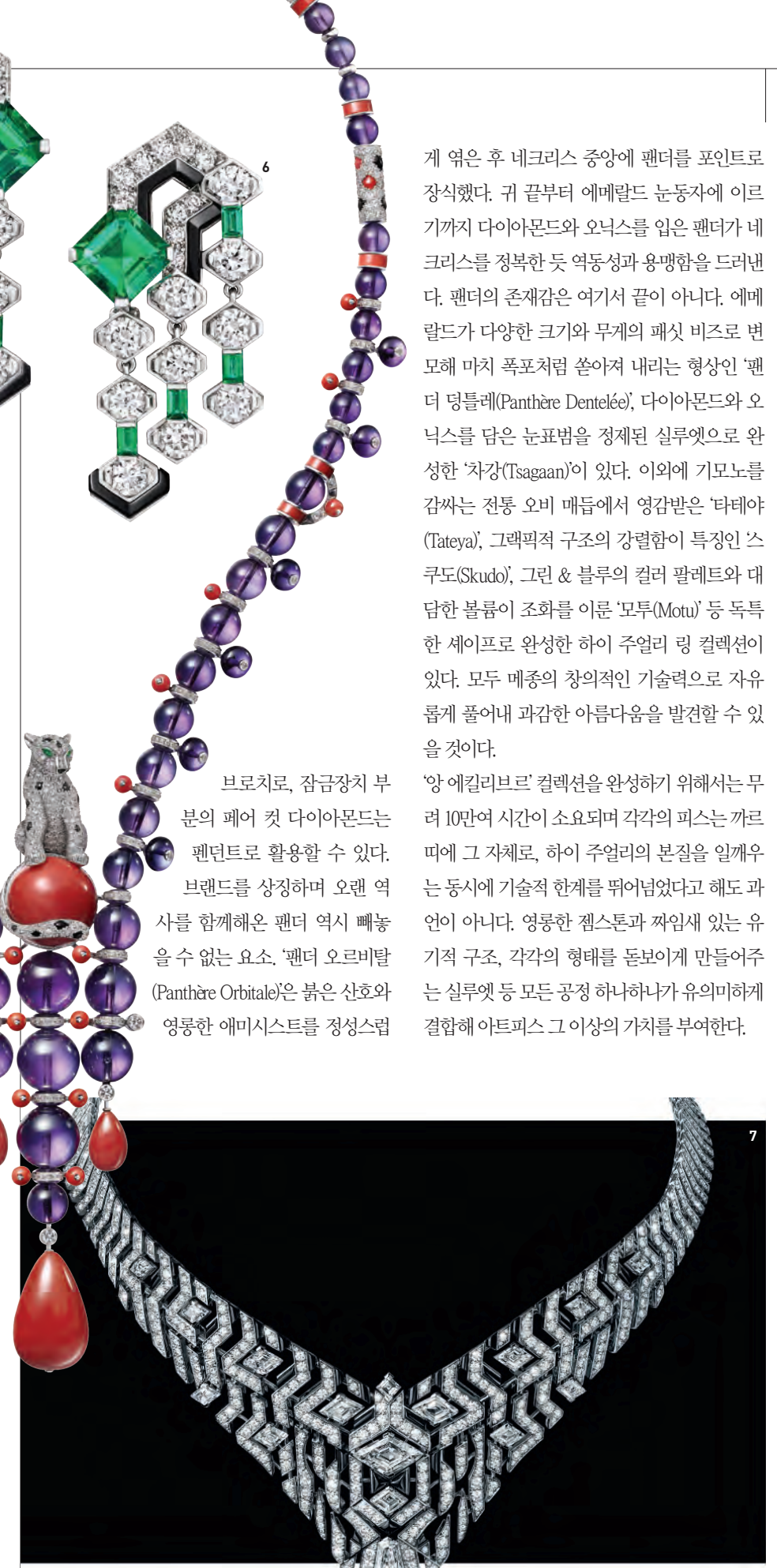
감각을 깨우는 선구적 디자인과 투철한 장인 정신, 여기에 독창적인 정교함과 다분히 의도된 절제미가 얹혀 다시금 새로이 판타지가 실현된다. 까르피에가 빚어낸 궁극의 아트피스란 이렇다.



1백70여 년에 이르는 하이 주얼리를 향한 흔들림 없는 몰입과 찬사. 까르피에 '앙 에킬리브르(En Équilibre)' 컬렉션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철저히 계산된 설계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게 태어났다. 뚜렷한 볼륨과 컬러의 균형, 스톤 사이사이를 빈틈없이 채우거나 공간을 의도적으로 비워 구조적 조형미가 두드러진다. 이번 컬렉션은 네크리스와 링 등을 포함해 약 1백20점이 새롭게 출시되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다. 먼저 '트라포라토(Traforato)'는 서로 다른 크기의 팔각형 에메랄드 3개가 기하학적인 메시 구조를 이룬다. 그린빛의 에메랄드와 블랙 옉닉스를 가장자리부터 내부 곳곳에 균일하게 배치해 컬러와 입체감을 강조하고 리드미컬한 시각적 효과를 발휘한다. 블랙, 화이트, 그린 등 메종을 대표하는 세 가지 시그니처 컬러를 사용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쉬토(Shito) 역시 에메랄드 스톤을 활용했다. 총 49.37캐럿의 에메랄드를 드롭셰이프로 큼직하게 디자인하고 비대칭적 길이로 색다르게 배치했다. 여기에 X 자 형태로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연결해 전체적으로 네크리스의 우아한 분위기를 배가했다. 생명력을 지닌 자연과 동식물에 경의를 표해 왔던 까르피에가 이번에도 역시 동물 그 자체를 디자인적 모티브로 적극 활용했다. 화려하고 신비로운 공작새를 형상화한 '파보셀(Pavocelle)'은 무려 58.08캐럿의 카보숑 컷 사파이어로 공작새의 눈을 표현했고, 오픈워크 다이아몬드를 겹겹이 세팅해 공작새의 꼬리를 형상화했다. 유려한 움직임과 볼륨감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변형 가능한 디자인을 추구해온 브랜드의 전통에 따라 네크리스의 센터 스톤을 분리하면 갈라



1 (위부터 차례대로) 6.98캐럿 루비를 세팅한 '타테야(Tateya)', 피라미드 형태의 '아줄레조(Azulejo)', 옉닉스로 감이를 다한 '스쿠도(Skudo)', 25.54캐럿의 루벨라이트로 장식한 '불리오(Bulio)'는 모두 하이 주얼리 링 컬렉션이다. 2 기하학적 실루엣이 특징인 '트라포라토' 네크리스. 3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의 만남. '쉬토' 네크리스. 4 공작새를 담은 '파보셀' 네크리스. 5 산호와 에미시스트 사이에 팬터를 세팅한 '팬더 오르비탈' 네크리스. 6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 옉닉스가 조화를 이루는 '트라포라토' 이어링. 7 '차강' 네크리스는 착시 효과를 의미하는 트롬프뢰유 기법을 사용해 각도에 따라 팬더의 머리가 보일 듯 말 듯한 효과를 담았다. 8 에메랄드와 옉닉스로 입체감을 강조한 '트라포라토' 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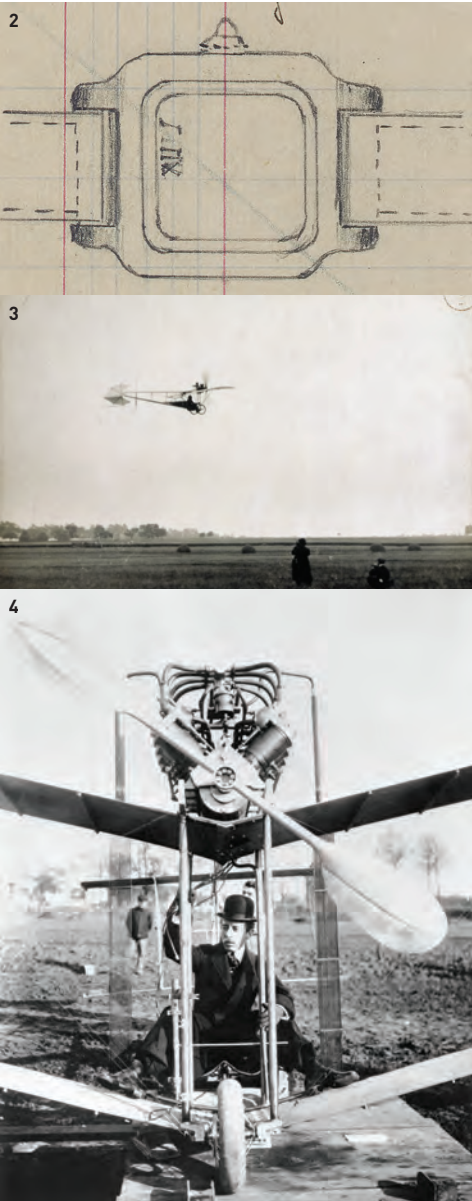
게 엮은 후 네크리스 중앙에 팬터를 포인트로 장식했다. 귀 끝부터 에메랄드 눈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이아몬드와 옉닉스를 입은 팬더가 네크리스를 정복한 듯 역동성과 용맹함을 드러낸다. 팬더의 존재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에메랄드가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패시 비즈로 변모해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형상인 '팬더 덩틀레(Panthère Dentelée)', 다이아몬드와 옉닉스를 담은 눈표범을 정제된 실루엣으로 완성한 '차강(Tsagaan)'이 있다. 이외에 기모노를 감싸는 전통 오비 매듭에서 영감을 받은 '타테야(Tateya)', 그래픽적 구조의 강렬함이 특징인 '스쿠도(Skudo)', 그린 & 블루의 컬러 팔레트와 대담한 볼륨이 조화를 이룬 '모투(Motu)' 등 독특한 셰이프로 완성한 하이 주얼리 링 컬렉션이 있다. 모두 메종의 창의적인 기술력으로 자유롭게 풀어내 과감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앙 에킬리브르'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려 10만여 시간이 소요되며 각각의 피스는 까르피에 그 자체로, 하이 주얼리의 본질을 일깨우는 동시에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롱한 쥘스톤과 짜임새 있는 유기적 구조, 각각의 형태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실루엣 등 모든 공정 하나하나가 유의미하게 결합해 아트피스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한다.



1

완전한 여정

까르띠에의 아이코닉 워치,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Santos de Cartier)'가 지금의 독보적 자리에 오른 것은 유구한 역사와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탐구 정신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 시작은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루이 까르띠에가 자신의 친구인 비행사 알베르토 산토스-뒤몽이 비행 중에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트랩과 시계 케이스를 연결하는 리그를 갖춘 시계를 고안했고, 그 시계가 바로 산토스 드 까르띠에의 시초이자 최초의 현대식 손목시계다. 대칭과 간결함을 최고로 여겼던 당시 파리의 기하학적 코드가 스며든 정사각 셰이프에 우아한 곡선을 더하고 감추기 급급했던 스크루를 베젤 위로 과감히 드러냈다. 총 8개의 스크루는 까르띠에 워치메이킹의 상징이자 주얼리 곳곳에서 발견되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당시 시계 제조에서 꺼렸던 가죽을 사용하는가 하면, 손목에 매끄럽게 밀착되는 착용감을 위해 밀리그램부터 밀리미터 단위까지 세세하게 측정하는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했다. 이 여정이 대단한 건, 완벽하게 고안된 피스임에도 골드와 스틸을 함께 적용하거나 다양한 레더 스트랩을 추가하는 등 몇 번의 번복점을 지나 지금까지 진화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5

2

3

4

“

클래식이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산토스 드
까르띠에에는 간결한
라인, 정교한 형태,
그리고 정밀한
디테일 그 자체다”

사진 © Cartier © Denis Boulze © Valentin Abad



7

- 1 스틸에 골드 베젤을 더한 산토스 드 까르띠에 스톤.
- 2 1911년, 산토스 워치의 초창기 모습을 담은 디자인 스케치. Archives Cartier © Cartier
- 3 1906년 산토스 뒤몽이 조종했던 비행기. Cartier Documentation © Cartier
- 4 1907년 비행 준비 중인 산토스-뒤몽의 모습. Archives Cartier © Cartier
- 5 스톤 사이즈의 옐로 골드 모델.
- 6 스틸 소재 특유의 청량함이 돋보이는 산토스 드 까르띠에.
- 7 2025년 6월, 새로 출시한 스톤 사이즈는 지름 27×34.5mm로 만나볼 수 있다.

혁신과 진화의 극단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메종의 도전 정신이다. 이번 시즌 산토스 드 까르띠에는 오리지널 버전의 미학적 코드에 충실하며 케이스의 사이즈를 호기롭게 다운시켜 더 작고 소중하게 라인업을 완성했다. 27×34.5mm로 작아진 케이스는 완벽한 균형을 이룬 비율을 자랑하며 특유의 곡선적 스퀘어를 고스란히 품는다. 로마와 레일 트랙 인덱스, 스틸 소재와 대비를 이루는 블루 컬러의 소드 핸즈를 적용했으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

르는 도출된 8개의 스크루 베젤에서 까르띠에의 창의성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엿볼 수 있다. 사이즈 외에 새로워진 부분은 또 있다. 선례이 효과를 더한 다이얼과 작아진 사이즈에 맞춰 설계된 고성능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한 것이다. 산토스 워치를 이루는 모든 요소가 엄격한 계산 아래 지나칠 정도로 정교한 결과물로 이어진다. 스틸, 골드&스틸, 골드 등 다양하게 선보이며 종전의 라지 모델과 마찬가지로 메탈 브레이슬릿과 가죽 스트랩 중 선택해 교체할 수 있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김하얀



6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동그란 실루엣의 원더 위커 호보 백 가격 미정
미유미유 문의 02-541-7443, 라피아 소재에 카프 스킨 레더 핸들과 로고 장식을 적용한 틴 서플 클래식 파니에 2백50만원 **셀린노** 문의 1577-8841, 넉넉한 사이즈의 쇼퍼 백 스타일로 스트라이프 패턴과 큼직한 로고 플레이를 가미해 경쾌한 분위기를 전하는 올라 미디어집 백 2백90만원 **로에베** 문의 02-3479-1785, 브랜드를 상징하는 송아지가죽 소재의 간치니 디테일을 가방 상단에 배치해 독특한 맛을 풍기는 토트백 가격 미정 **파라카도** 문의 02-3430-7854,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적인 디자인, 코트 소재의 내장 파우치, 드로스트링 클로저 조합이 색다른 위커 미니 버킷 백 가격 미정 **프리카다** 문의 02-3442-1830, 종려나무 잎을 인트레치오 기법으로 튼튼하게 엮어 완성한 외인 캐리어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3438-7694
에디터 **김하얀**



Out of City

보기만 해도 시원한 자연 친화적 소재와 의외로 견고하고 만듦새가 단정한 라탄 백.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The Great Maison

설립 2백70년, 위치메이킹 역사와 함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위스 럭셔리 위치메이킹 메종 바쉐론 콘스탄틴. 2025년 6월 드디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메종 1755 서울'로 명명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바쉐론 콘스탄틴다운 세심하고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로 한국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마켓에 포진한 시계 수집가와 애호가를 환대할 메종 1755 서울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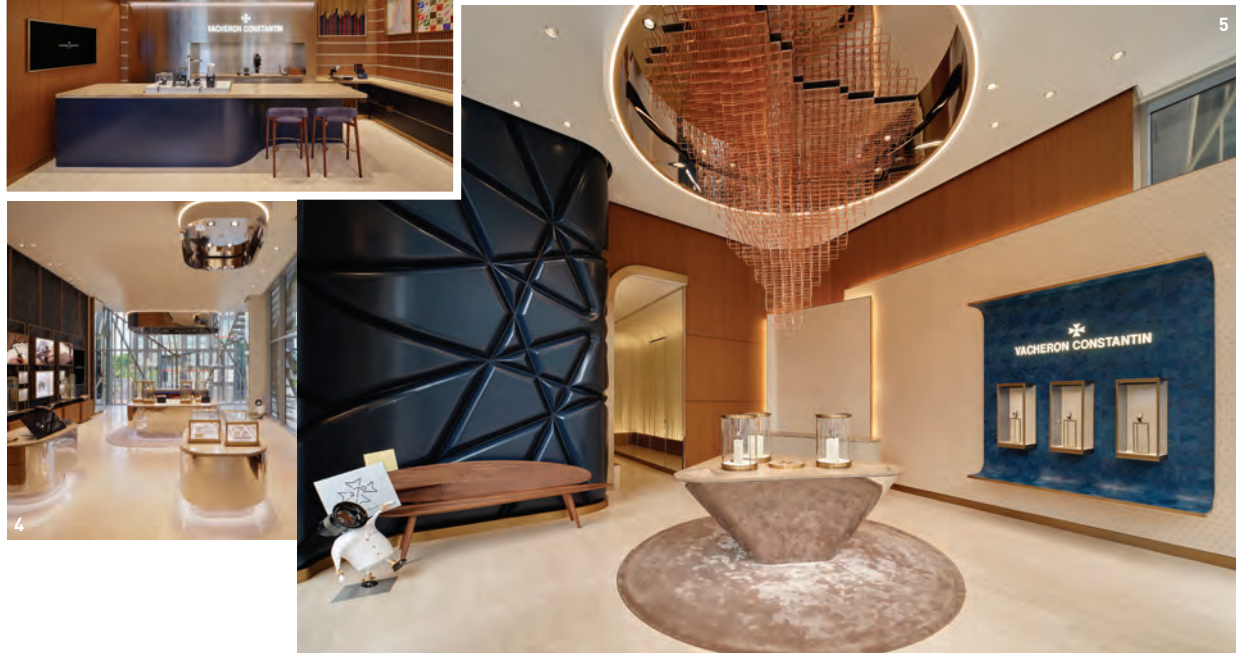
1755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탁월함을 향한 특별한 퀘스트를 시작한 바쉐론 콘스탄틴이 설립 2백70주년이 되는 올해 서울에서 또 한번의 퀘스트를 완성했다. 브랜드 첫 서플 플래그십인 '메종 1755 서울'을 오픈한 것. 총 면적이 약 629㎡(약 1백90평)인 건물에는 메종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정체성과 퀘스트에 대한 모든 구성 요소를 담았다. 수준 높은 기계식 컴플리케이션, 정밀한 타임키핑, 소형화 기술, 독창적 디스플레이, 섬세한 마감 기법, 혁신을 추구하는 소명 의식으로 이룬 뛰어난 기술력에 대한 퀘스트, 우아한 디자인과 정교하고 예술적인 장식, 예술 및 문화에 대한 오랜 후원 활동 같은 공예와 장인을 향한 지속적 지원에서 엿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향한 퀘스트,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지식과 노하우의 전승을 위한 진심 어린 헌신으로 표현되는 인간적인 퀘스트까지, 바쉐론 콘스탄틴이 이룩한 업적을 메종 1755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ltese Cross Landmark in Seoul

건물 외관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심벌인 말테 크로스(Maltese Cross)를 중심에 둔 황금빛 브라스 소재의 파사드로 장식해 메종의 상징성을 반영했으며 웅장함을 자랑한다. 내부에 들어서면 이 파사드가 더욱 빛을 발하는데, 기하학적 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을 극대화해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외관과 연결성을 강조하는 3개의 대규모 설치 조각 작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이는 오프닝 전시를 기획한 아티스트 '지니서(Jinnie Seo)'의 새로운 작품이다. 'Constellation of Lights', 'Blue Cloud', 'White Cascade' 등 서로 연결된 3개의 대규모 설치 조각 작품은 구리, 유리, 백자 등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소재로 완성해 공간에 강렬한 인상을 준다. 벽은 한국 전통 자수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국가 무형유산 제80호 자수 장인 김영미와 제작들이 손바느질로 완성한 '시간의 입방체: THREADS OF LEGACY'로 꾸며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이외에도 바

쉐론 콘스탄틴은 인테리어 곳곳에 국내 예술가들의 아름다운 작품을 배치해 메종 1755 서울에 한국의 유산을 녹여내고자 했다. 메종이 고심해 마련한 이 한국적인 요소들은 바쉐론 콘스탄틴이 얼마나 한국에 대해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내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고객을 위한 바쉐론 콘스탄틴다운 섬세한 서비스와 메종에서의 경험 등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2층에 올라가면 탁월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컴플리케이션, 아름다운 미학을 보여주는 장식 공예 기법, 컬렉션 등으로 구분한 시계들이 다채로운 쇼케이스에 전시되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 메종 1755 서울에서는 공인된 빈티지 시계인 레 컬렉션너(Le Collectionneurs) 컬렉션을 구매할 수 있다. 캐비노티에(Le Cabinotiers) 컬렉션 같은 진귀한 싱글 피스 에디션 시계 또한 직접 감상하고,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 최초로 전속 위치메이커가 상주한다는 것이다. 이 위치메이커를 통해 고객들은 언제든 간단한 시계 점검 및 폴라싱, 개인 맞춤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적 이미지를 반영한 데커레이션 페널로 장식된 맞춤형 공간도 마련해 메종을 방문한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모티브를 스토어에 새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2백70년 위치메이킹 세계와 유산을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아카이브 '크로노그램(Chronogram)'이다. 이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수년간 개발해온 시스템으로 대형 스크린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의 역사를 선택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헤리티지 타임피스들도 감상할 수 있다. 이렇듯 바쉐론 콘스탄틴의 첫 서플 플래그십에 메종은 모든 퀘스트를 완료했다. 그 어떤 플래그십에서도 볼 수 없는 브랜드 히스토리에 대한 체험부터 한국적인 미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위치메이킹에 대한 예술적 미학뿐 아니라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까지. 이렇게 예술과 문화, 하이 위치메이킹의 세계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차별화된 공간에서 컬렉터와 애호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바쉐론 콘스탄틴의 정수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 월-일요일 오전 11시~오후 8시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30 문의 1877-4306



- 1 메종 1755 서울 외관. 심장과도 같은 말테 크로스 모티브와 아름다운 황금빛 브라스 소재 파사드로 장식, 웅장함을 더했다.
- 2 바쉐론 콘스탄틴의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
- 3 전속 위치메이커가 상주해 언제든 간단한 시계 점검 및 폴라싱,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 4 메종의 위치메이킹 세계와 유산을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아카이브 '크로노그램'이 자리한 공간.
- 5 한국의 아티스트와 협업해 완성한 천장의 작품, 자수월 등으로 고급스러운 무드를 자아내는 1층.



INTERVIEW with — Christian Selmo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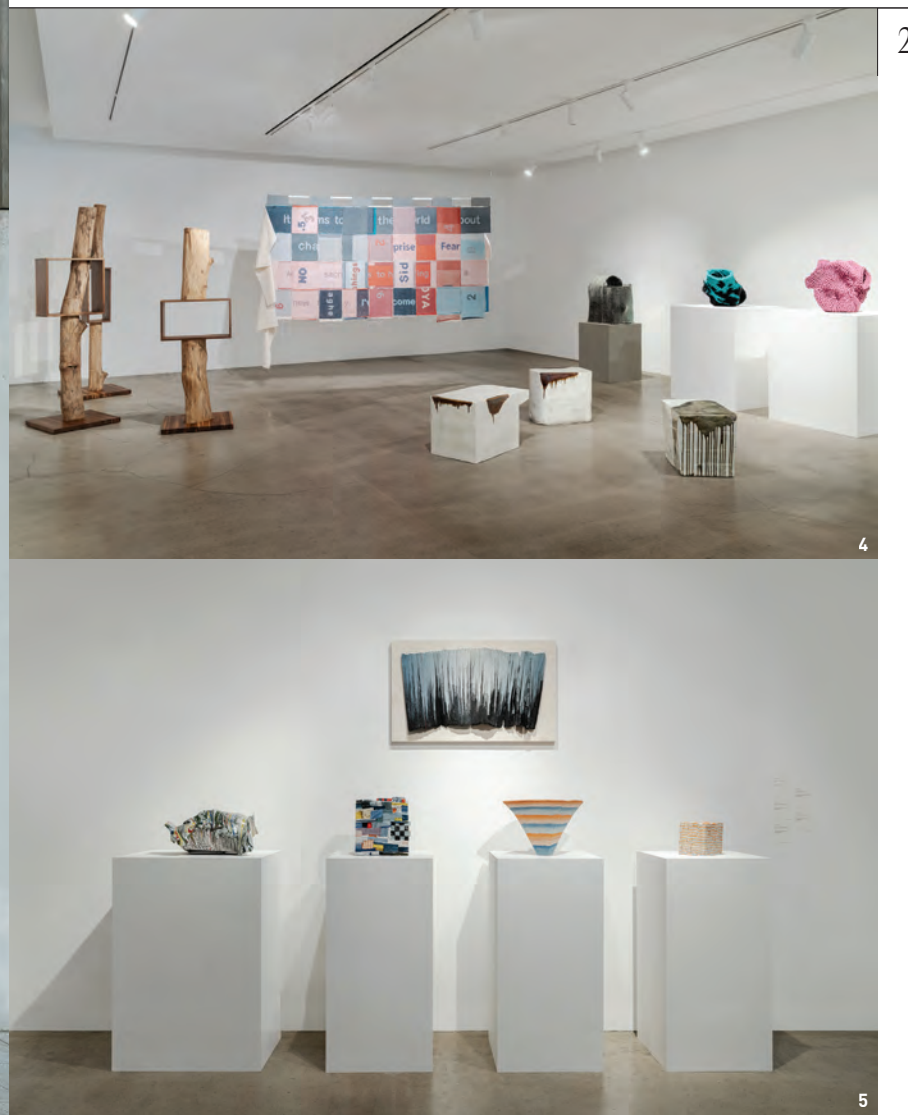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

Q '메종 1755 서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플래그십, 부티크보다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차별화하고 싶었습니다. 메종(maison)이란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세계에 초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이 메종은 제품뿐 아니라 문화, 예술, 공예, 기교 등을 고객에게 직접 선보일 수 있는 자리이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협업과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명명해보았습니다.

Q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2백70년간 쌓아온 헤리티지와 타임피스, 유산 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또 아카이브에 있는 다양한 요소, 역사 같은 것을 선보이며 고객들이 새로운 리테일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그중에는 캐비노티에 같은 특별한 타임피스를 선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레 컬렉션너와 같이 빈티지 위치를 제공하기도 하죠. 앞으로 메종 1755 서울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길 희망합니다.

Q 설립 2백70주년을 맞이해 가장 큰 테마를 '퀘스트(The Quest)'로 삼았는데 바쉐론 콘스탄틴의 역사 중 오늘날 특히 조망하고 싶은 시기나 업적은 무엇인가요? 퀘스트라는 테마를 선택한 것은 저희가 2백70년간의 역사에서 시계 제조를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업적은 오랜 세월 동안 높은 품질을 유지해온 것은 물론 트렌드와 시대적 감각을 포착해 그것에 대응하며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망하고 싶은 시기라면 어려운 순간을 포착하고 기회로 삼고 대처해간 매 순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에디터 **성정민**



Weaving the World, the

보테가 베네타의 상징인 가죽 수공예 기법, 인트레치아토(Intrecciato)가 탄생 5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손’에 집중한 캠페인과 인트레치아토의 철학을 조율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보편적인 손짓까지, 보테가 베네타만의 가치와 세계를 무한히 확장시킨다.

‘인트레치아토(Intrecciato)’는 이탈리아어 동사 ‘Intrecciare’(엮다, 꼬다, 교차시키다)에서 파생한 형용사형으로 1975년 보테가 베네타에서 처음 선보인 가죽공예 기법이다. 1966년 유럽의 무역과 공예, 예술,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비첸차에서 탄생한 보테가 베네타의 유산과도 가장 잘 부합하며 이젠 하우스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다. 보테가 베네타는 무려 50주년을 맞이한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인트레치아토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다운 창의적인 방식을 택했다. 시와 같은 은유를 통해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인트레치아토 기법을 ‘손’으로 재조명한 것. 이는 매우 보테가 베네타다운 방식이다.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캠페인, ‘Craft is Our Language’에서 보테가 베네타의 제품은 주인공이 아니다. 다만 다양한 인물들의 손과 제스처가 등장할 뿐이다. 보테가 베네타는 인트레치아토의 ‘손’을 조명하길 이 캠페인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 유수의 작가들과 협업한 전시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재단법인 아름지기에서 선보인 전시, 〈세계를 엮다 : 인트레치아토의 언어〉를 통해 인트레치아토의 장인 정신과 상호작용, 연결상을 담은 세계를 더욱 널리 확장시켰다.

〈세계를 엮다: 인트레치아토의 언어〉
보테가 베네타는 인트레치아토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장인 정신, 수공예, 예술과 문화를 아우르는 전시를 기획해 선보였다. 단순한 제작 방식을 넘어 손과 정신, 과거와 미래, 수공예와 창의성을 잇는 은유적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인트레치아토 정신은 어딘가 한국과 닮았다. 이 점에 주목해 오늘날 전통과 혁신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지점에서 있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영감과 스타일로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들과 협업을 진행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른다. 누군가는 깊은 전통에서 영감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현대적 서사를 통해 교감한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의 본질적인 연결 고리, 인트레치아토로 동화된다. 단순히 씨실과 날실의 구조를 넘어 아이디어와 기법, 시간의 층위가 교차하는 상징적인 ‘엮임’의 개념으로서 작가들은 관람객에게 정제된 대화를 제시한다.

먼저 보테가 베네타는 ‘브릭-아-브락(Bric-à-Brac)’이라는 특별한 창작물로 말을 건넨다. 이는 하우스 아틀리에에서 사용한 후 남은 가죽 조각을 엮어 완성했으며 다채로운 색상, 질감, 형태가 어우러져 고유한 개성과 촉각적 존재감을

“
손과 정신, 과거와 미래, 수공예와 창의성을 잇는 은유적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인트레치아토 정신은 어딘가 한국과 닮았다”

을 지닌 독창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5개의 ‘브릭-아-브락’ 백은 상징적인 이 수공예 기법, 인트레치아토의 진화와 표현력을 증명한다. 이를 주축으로 총 9명의 국내 작가가 이 전시에 참여했다. 먼저 강서경 작가는 ‘엮기’라는 행위를 감각적이고 시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둥근 유랑(Rove and Round)’, ‘따뜻한 무게(Warm Round)’, ‘자리(Mat)’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는 소재와 색, 질감에 대한 섬세한 탐구를 보여주며 인트레치아토의 개념을 다시 환기한다. 자연에서 영감받은 종이와 먼 같은 섬유 소재에 고요하고 명상적인 감성을 담아내는 박성림 작가의 ‘My Universe’는 면사의 매듭을 통해 보테가 베네타가 지닌 디자인 언어의 핵심적인 모티브를 선보였다. 손으로 세심하게 연결한 듯한 이 면사들이 하나의 오브제로 완성되고 그 사이 보이는 틈 안에 들어가면 더 넓은 세계와 무한히 이어질 듯 묘한 느낌을 자아낸다. 작가 박종진의 작품은 단단히 쌓아 올린 밀폐유 같은 형태의 예술적 지층(Artistic Stratum) 시리즈로 인트레치아토의 개념과 소통했다. 하나하나 겹겹이 결합된 작가의 작품은 여러 면면이 모여 융합되는 우리 세계와 어딘가 닮은 듯하다. 이는 디자이너와 장인의 협업으로 완성된 인트레

Language of Intrecciato

공유하는 작품 전시를 선보인다. 손 끝에서 완성되는 정교한 엮음을 통해 상호 연결성, 교류, 협업의 정신뿐 아니라 손의 제스처와 세대, 문화, 배경과 상황을

치아토 제품이 한 명의 고객 손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고 의미를 지니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떠오르게 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작가 홍영인의 작품 역시 강한 울림을 준다. 그녀의 작품인 ‘Woven and Echoed’은 공업용 니들 편지를 이용해 만든 대형 테피스트리에 1970~80년대 한국 섬유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들의 실제 경험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담았다. 이를 통해 작가는 억눌렸던 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기억을 시각적 언어로 되살려낸다. 이는 ‘손’을 통해 인트레치아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신을 전하고자 하는 보테가 베네타의 접근과 매우 유사하다. 이외에도 접시식 유리 스크린으로 격자의 리듬을 선보인 작가 이규홍, 개별 격자형 모듈로 구성된 작품 ‘Islands’를 통해 재료, 개념, 수공예의 엮임과 이루어짐을 선보인 작가 이현정, 인트레치아토를 개념적 격자 혹은 비움의 형태로 제시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선보인 작가 정명택, 전통 대나무 발로 인트레치아토의 엮임의 의미와 보테가 베네타의 ‘공방’에 대한 정신을 보여준 손지은 집공방 그리고 이와 협업한 대나무 발 국가무형문화재 조대용 장인, 매듭 공예 전수자 박진영 작가, 금속 공예 전수자 박병용 장인까지, 보테가 베네타의

1 인트레치아토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캠페인, ‘Craft is our Language’ 속 손 이미지를 전시한 공간.
2 보테가 베네타 크리에이션 브릭-아-브락(Bric-à-Brac)과 이규홍 작가 작품 〈240210〉(2024), 글라스, 우드, 강서경 작가의 〈둥근 유랑 - 열굴, 자리, 배 #22-01〉(2021-2022).
3 전시장 전경과 외벽에 설치된 이광호 작가의 작품 〈Obsession〉 Series(2025), 로프, 전선.
4 정명택 작가의 〈Creating a Void〉 Series(2025), 호두나무, 단풍나무, 홍영인 작가의 〈Woven and Echoed〉(2021), 패브릭, 이현정 작가의 〈Island〉(2021), 클레이. 〈Untitled, Box〉 Series(2021), 클레이.
5 밀폐유처럼 쌓은 만들새가 특징인 박종진 작가의 작품.

인트레치아토와 맞닿는 작가와 작품들로 가죽 위빙의 장인 정신과 미적 상상력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 전시를 위해 외부 파사드를 위한 공간 맞춤형 설치 작품과 2층 야외의 관람객 참여형 설치 구조물을 선보인 작가 이광호는 금속공예와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대리석, 구리, 에나멜, 강철부터 다양한 종류의 로프와 와이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재료로 가족의 엮임과 구조, 그리고 참여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작품을 제작해 시간을 직조하는 행위로 확장시키고 과거와 현재, 개인의 기억과 공동의 경험을 엮는 감각적 여정을 제안한다. 보테가 베네타는 이광호 작가의 특별한 작품으로 인트레치아토 탄생 50주년 전시의 의미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전시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2층 한편에는 앞서 언급했던 ‘손’을 주제로 한 캠페인 사진을 전시해두었는데, 한옥과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는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들어서면 인트레치아토가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전시 오픈링 프리뷰 이들 동안에 특별히 ‘손’이라는 캠페인부터 전시까지 모든 것을 인트레치아토 하나로 묶는 토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지윤 박사와 전은환 박사

가 패치워크적 세계관에 기반해 ‘손’을 조명하며 인간의 역사에서 ‘손’이 가져온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후 보테가 베네타가 탄생한 비첸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며 흥미를 끌었다. 시인 김뉘연과 비평가 신예슬이 등장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좀 더 추상적인 접근으로 관람자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시에 등장하는 ‘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다양한 해석에 대해 전하며 텍스트와 운율의 접점 안에서 ‘손’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화와 작품 속 손의 장면을 통해 인트레치아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영화평론가 감혜리와 아트 에디터 안동선의 토크로 대미를 장식했다. 3개의 토크 세션을 통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오랜 시간 손을 통해 만든 작업물에 대한 의미와 정신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었으며 결국 인트레치아토의 정신으로 이어져 하나가 되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보테가 베네타는 진정으로 한국과 세계를 하나로 엮어내는 통합의 한 장면을 이뤄내며 ‘영감(Inspire)’, ‘참여(Engage)’, ‘상호 연결(Interconnect)’이라는 세 가지 인트레치아토 정신을 완성해냈다. 문의 02-3438-7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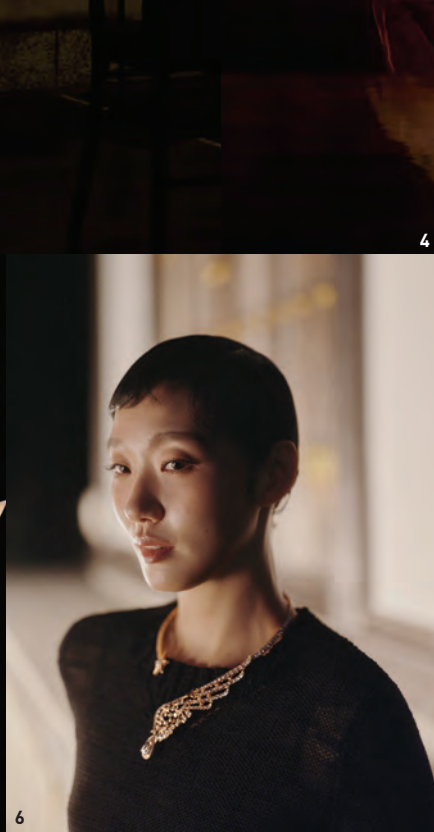
에디터 **성정민**

Reach for the Stars

질은 잉크빛 밤하늘,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별이 하늘을 수놓듯 반짝거린다. 이어서 나타난 빛나는 날개는 금방이라도 천사가 되어 날아오를 것 같다. 언제나 압도적인 존재감을 주는 사자의 형상은 밤하늘에서도 위용을 잃지 않는다. 샤넬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 공개된 밤, 세 가지 모티브인 별, 사자, 그리고 날개에서 시선을 땔 수 없었다. 샤넬의 또 하나의 레전드가 탄생한 순간이다.



Reach for the Stars



샤넬 하이 주얼리, 교토에서 빛이 되다

지난 6월, 샤넬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샤넬이 선택한 도시는 일본의 교토, 장인과 예술의 도시인 교토의 국립박물관에서 샤넬의 하이 주얼리 전시회가 개최된 것. 전시회 입구에는 샤넬의 진취적이고 궁정적인 라이프를 대변하는 메시지들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 장식되어 있었다. '꿈은 이루어진다,' '당신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라,' '사자처럼 강하게 살아남아라,' '리치 포 더 스타(Reach for the Stars)'라는 주제가 한 눈에 느껴지는 전시장은 마치 밤하늘과 그 속에서 빛나는 별을 품은 듯 다소 어둡고, 아늑하고, 반짝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모티브가 된 것은 샤넬이 사랑하던 별, 사자, 그리고 날개. 별은 가브리엘 샤넬이 그녀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선택한 최초의 모티브이자 샤넬과 그녀의 자주적 삶을 상징하기도 한다. 사자는 샤넬의 별자리이자 진취적인 위용과 우아한 카리스마를, 새롭게 선택된 날개 모티브는 자유를 향한 갈망을 떠올리게 한다. 마법처럼 다시 태어난 이 세 가지 모티브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보는 순간 숨이 멎게 만드는 아찔한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들을 사로잡았다. 풍성한 젬스톤, 초커, 오픈 네크리스, 비트윈 더 팡저 링, 큼직한 날개 형상의 브로치, 비대칭 이어 펜던트, 커프, 티아라까지 풍성한 볼륨감, 대담함과 우아함, 자유로움을 담아낸 주얼리 세트는 샤넬이 진정한 주얼러임을 보여준다. 마치 밤하늘에 별이 흩뿌려져 있는 듯한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였너스, 오판, 문스톤 등의 젬스톤을 적절하게 배치한 신비로운 느낌의 컬렉션, 좀처럼 보기 힘든 수십 개릿의 희귀한 원석 주얼리 등 전시회 자체가 드라마틱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교토를 방문한 글로벌 저널리스트와 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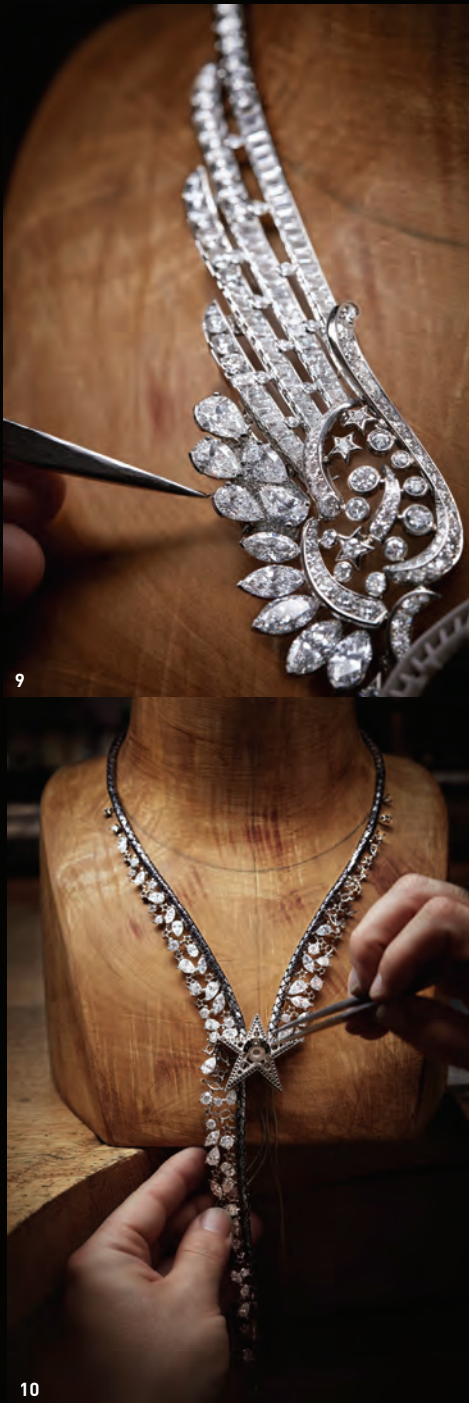
1 교토 국립박물관에서 공개된 2025 샤넬 '리치 포 더 스타' 컬렉션. 2, 3, 4 쇼군즈카 세이류덴에서 열린 론칭 기념 행사. 5 태국 영화 <베드 지니어스>의 히로인 추미온 증편원씨. 6, 8 배우 김고은도 '와일드 앳 하트(Wild at Heart)' 목걸이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7 수백 대의 드론이 교토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9 프라이빗 디너 테이블 모습.

럽이 함께한 갈라 디너 행사는 교토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전통적인 사찰에서 열렸다. 교토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수백 대의 드론이 샤넬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오마주하며 밤하늘을 다양한 메시지와 형상으로 빛나게 했으며, 이어진 인상적인 전통 공연과 화려한 테이블에서의 디너로 샤넬과 교토의 아름다운 밤이 마무리되었다.



가장 소중한, 별, 사자, 그리고 날개

샤넬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패트리스 레게로(Patrice Leguereau)의 컬렉션인 '리치 포 더 스타(Reach for the Stars)' 컬렉션은 호화로우면서도 산뜻하고 구조적이면서도 유연한 디자인으로 보는 이들을 사로잡는다. 블랙과 화이트 또는 화려한 컬러 스톤으로 장식한 크리에이션은 다이아몬드를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가브리엘 샤넬의 세 가지 상징인 별, 날개, 사자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이 새로운 컬렉션은 가브리엘 샤넬이 할리우드에 있던 시절을 돌아보게 한다. 1930년대 당대의 히로인이었던 클



“

비록 날개가 없이 태어났더라도
날개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
(If you born without wings, don't do
anything to stop them from growing)"
- 가브리엘 샤넬

로리아 스완슨을 떠올리게 하는 우아한 룩의 가브리엘 샤넬을. 가브리엘 샤넬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이름다움의 비전을 전하기 위해 할리우드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할리우드의 관습적이고 과시적인 럭셔리 규칙을 거부하고,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했다. 가브리엘 샤넬에게 주얼리는 자신이 그러던 여성에 대한 로망을 완성하는 결정체였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다이아몬드, 인상적인 크기의 각테일 링과 고혹적인 네크리스 등을 통해 화려한 매력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눈부신 광채와 호화로움, 찬란한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예술이자 오래도록 변치 않는 마법과 같은 창작물이기도 했다.

1932년, 가브리엘 샤넬의 최초이자 유일한 하이 주얼리인 '비쥬 드 디아망(Bijoux de Diamants)' 컬렉션에 등장한 별 모티브를 패트리스 레게로와 샤넬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는 '리치 포 더 스타' 컬렉션에서 샤넬의 화려한 매력의 상징으로 재해석했다. 별을 길게 늘어뜨려 강렬한 광채를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아한 포인트로, 때로는 정교한 쿠티르 드레스처럼 섬세하게 표현해 모던한 감각으로 거듭나게 한 것.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날개 모티브는 편안함과 유연성, 완벽한 착용감을 위해 세심하게 디자인되었다. 날개가 펼쳐져 감싸는 느낌, 역동적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입체적 디자인 등은 날아오르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한다. 가브리엘 샤넬의 별자리이자 그녀의 수트 버튼에서 포효하던 사자는 강인함과 우아함을 상징한다. 정면에서 사자를 보는 듯 화려한 메달과 마주 보는 사자의 옆모습을 형상화한 조각 같은 디자인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연출하며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패트리스 레게로와 샤넬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가 보여주고자 했던, '하이 주얼리가 피부 위에서 환하게 빛나는 낮과 밤 사이 마법 같은 순간, 2025 샤넬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리치 포 더 스타'는 강렬하지만 부드러운 빛으로 반짝이며 별을 향해 화려하게 날아올랐다. _ 교토 현지 취재

1 다이아몬드 날개가 펼쳐지면서 네크라인을 감싸는 '윙즈 오브 샤넬(Wings of Chanel)' 핑크와 오렌지 컬러가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는 19.55캐럿 파파라차 사파이어가 세팅되어 있다. 브레이슬릿으로도 연출이 가능한 롱 펜던트에서도 광채를 감상할 수 있다. 2 샤넬 첫 번째 주얼리의 모티브였던 '별(Comet)'이 이번에도 재해석되어 선보였다. 3 스카이는 더 라임(Sky is the limit) 링. 4 와일드 앳 하트(Wild at heart) 링. 5 '윙즈 오브 샤넬(Wings of Chanel)' 네크리스를 착용한 모델. 6 드림 컴 트루(Dreams come true) 네크리스 제작 과정. 7, 9 '윙즈 오브 샤넬(Wings of Chanel)' 제작 과정. 레이스처럼 가볍고 섬세하게 실루엣을 감싸 안아준다. 8 장인이 제작 중인 스트롱 애즈 어 라이언(Strong as a lion) 네크리스의 메달. 10 드림 컴 트루(Dreams come true) 네크리스가 완성되어가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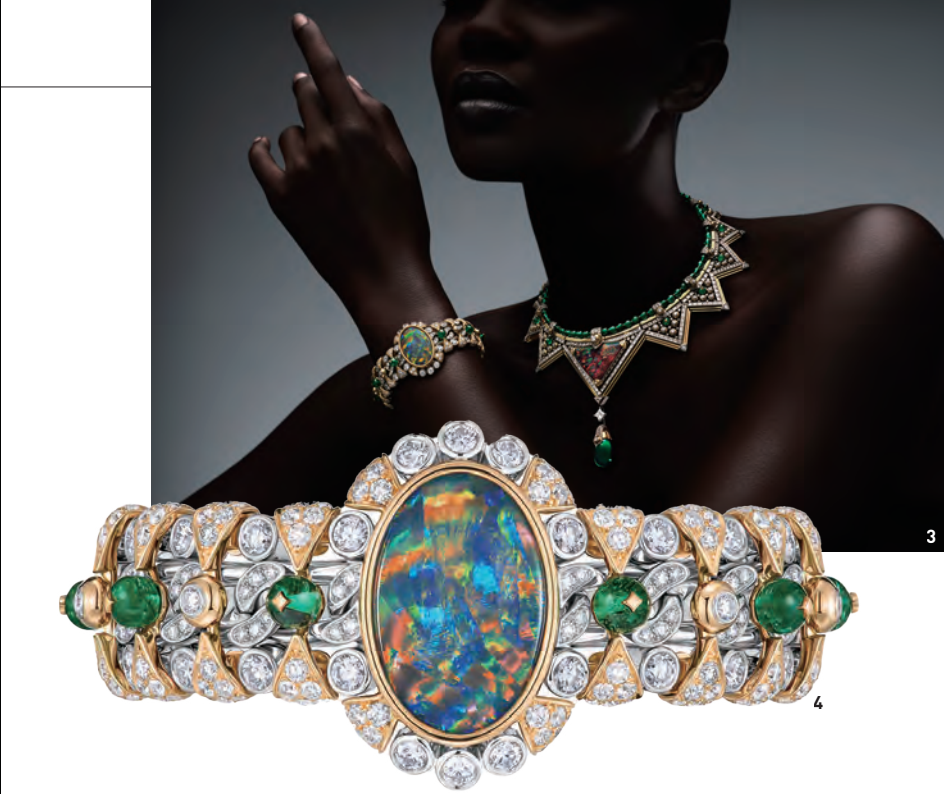
The World of Masterpiece

루이 비통 메종이 ‘버추어시티 하이 주얼리(Virtuosity High Jewelry)’를 공개했다. 스페인 마요르카섬의 투명하고 강렬한 태양아래에서 베일을 벗은 루이 비통의 이 아름다운 컬렉션은 장인 정신에서부터 무한한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찬란하고도 풍요로운 여정을 황홀하게 그려냈다. 메종의 고유한 코드와 희소하고 경이로운 켈스톤이 조화를 이루는 주얼리 그 이상의 감동. 상상력의 한계를 허무는 루이 비통 하이 주얼리의 매혹적인 에너지를 만끽할 때가 왔다.

하이 주얼리의 신세계, 루이 비통 버추어시티 컬렉션

2025년 여름, 메종이 루이 비통 ‘버추어시티 하이 주얼리(Virtuosity High Jewelry)’ 컬렉션을 선보이며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 12가지 테마로 구성된 1백10점의 유니크 피스를 공개하는 버추어시티는 ‘거장의 세계(The World of Mastery)’와 ‘창의성의 세계(The World of Creativity)’라는 2개의 독자적인 세계로 나뉜다.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와 정밀한 기술력이 감성과의 교감으로 이어지는 대담한 창조성. 이는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된 여정이자, 루이 비통만의 혁신적이고 감각적인 스토리텔링이다. 버추어시티의 여정은 ‘거장의 세계에서 시작된다. 서막을 여는 테마는 사보아(Savoia)로, 지켜지고 계승되어야 할 신비로운 세계와 같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 같은 강렬하고 그래픽적인 모티브가 돋보이는 키퍼(Keeper)와 프로텍션(Protection)이라는 테마 속에서 장인 정신(savoir-faire)이라는 메시지가 견고히 자리한다. 마에스트리아(Maestria)와 모뉴멘탈(Monumental)에서는 메종의 아이코닉한 다미에 패턴, 정교한 건축적 구조의 스톤, 노후화가 조화를 이룬다. 그 여정은 아포제(Apogée)에서 절정에 이르는데, 이곳에서는 루이 비통의 트렁크 메이킹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 다이아몬드 세팅의 골드 로프 장식이 돋보이는 커넥션(Connection)은 ‘창의성의 세계’로의 전환을 알린다. 순수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활용한 모션(Motion)은 흐름과 파동이라는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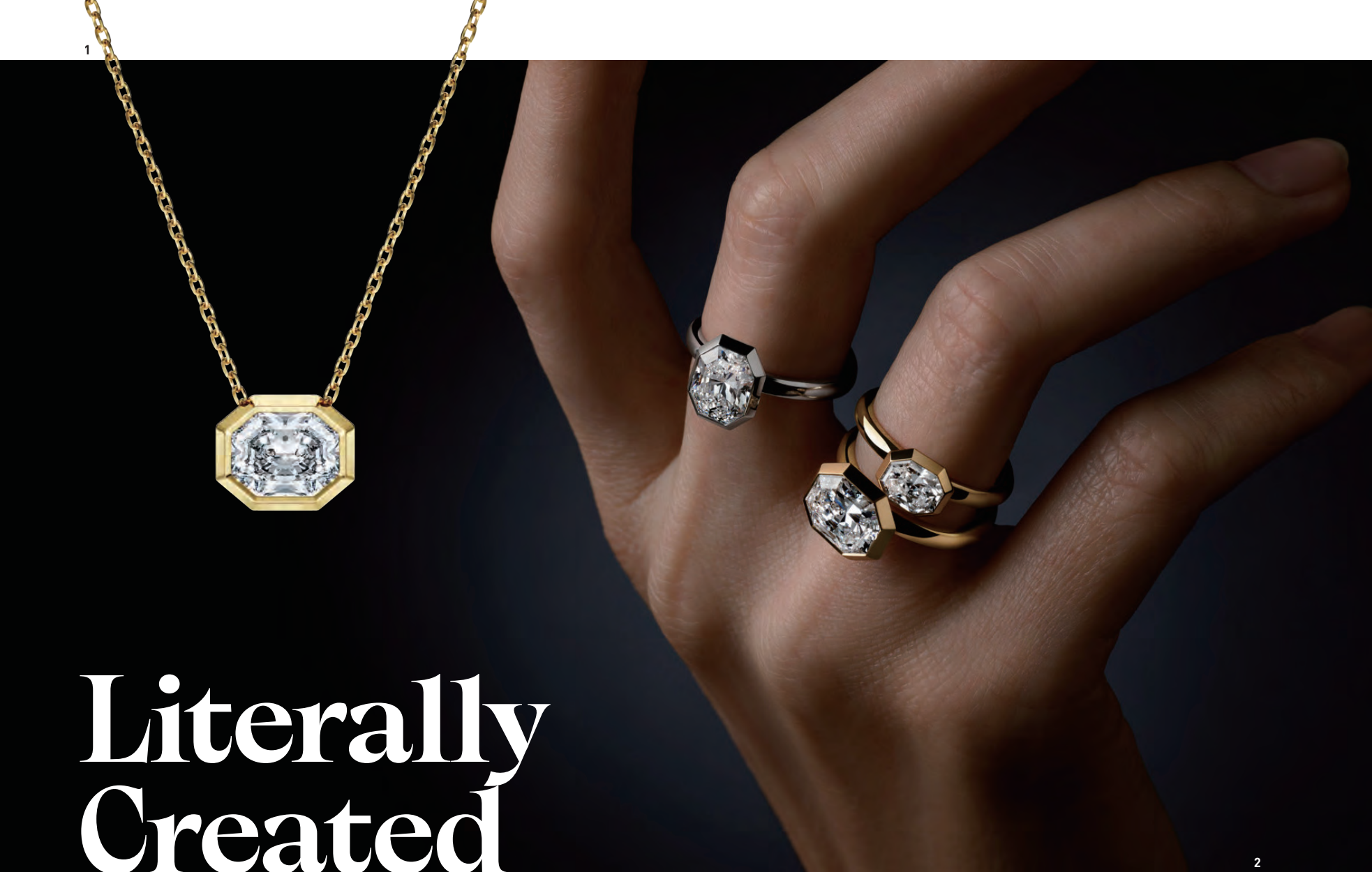
“**‘버추어시티’의 철학은 루이 비통과 마찬가지로 ‘여행으로의 초대’를 추구한다. 끊임없는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떠나는 풍요로운 여정. 하이 주얼리의 신세계를 개척하는 루이 비통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념을 토대로 한다. 이것이 더욱 풍성한 창의성으로 나아가 플로레스نس(Florescence)에서 다채로운 컬러의 보석으로 만개하고, 이러한 창조의 물결이 조이(Joy) 테마의 태양 빛을 머금은 주얼리로 이어진다. 찬란한 빛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아우라(Aura)는 LV 모노그램 플라워를 부드러운 블러시 핑크 톤으로 재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이터널 선(Eternal Sun)에서 화려한 절정에 도달하는데, 이 테마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수집한 특별한 보석들을 섬세하고 정교하게 세팅해 완성했다. ‘버추어시티’의 철학은 루이 비통과 마찬가지로 ‘여행으로의 초대’다. 장인 정신과 무한한 창의성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여정은 상상력을 불어 일으키는 힘이 된다. 장인 정신과 열정이 이끄는 버추어시티의 오디세이는 창조적 자유의 표현, 그리고 혁신과 탐험, 자기 초월로 이어져 정점을 이룬다. 여행에서 출발해 그 어떤 주얼리 하우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장인 정신과 예술의 집약체. 거기에 모던함과 혁신적인 도전 정신까지 겸비한 루이 비통의 이 새로운 컬렉션은 하이 주얼리업계의 시선을 끌어 모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메종 특유의 디자인 언어와 끊임없이 진화하는 코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이로운 컬렉션. 이는 앞으로도 루이 비통 하이 주얼리의 여정을 이끌고 차별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 스페인 현지 취재

1 버추어시티 컬렉션의 절정을 보여주는 이터널 선(Eternal Sun). 27개의 라운드 옐로 다이아몬드는 7년에 걸쳐 엄선했다. 2 생기 넘치고 세련된 플로레스نس(Florescence). 3 사보아(Savoia)를 착용한 모델. 고대 ‘지혜의 삼각형’을 가리는 삼각형 모티브가 특징이다. 4 블랙 오팔이 돋보이는 사보아 브레이슬릿. 5 동적인 움직임이 느껴지는 모션(Motion) 이어커프. 6 LV 모노그램 플라워를 품은 아우라(Aura). 7 방패 형태를 반영한 원형 모티브들이 레이스와 자수처럼 표현된 프로텍션(Protection) 네크리스. 8 아포제(Apogée) 네크리스를 착용한 하이 주얼리 쇼 모델. 9 콜롬비아산 에메랄드 3개와 2천5백 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마에스트리아(Maestria) 네크리스. 10 장인 정신의 결정체, 버추어시티 컬렉션 중 아포제 네크리스 제작 과정. 11 스페인 마요르카섬의 요새로 사용됐던 오랜 성곽에서 버추어시티 컬렉션을 화려하게 공개했다.





Literally Created Diamonds

첫 시작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내딛는 선도자의 정신이랄까. 스와로브스키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중 국내 최초로 랩그로운(lab-grown) 다이아몬드 컬렉션인 SCD(Swarovski Created Diamonds)를 론칭하며 새로운 주얼리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우스의 창의성과 혁신의 정점이 담긴 '옥타곤(The Octagon) 컬렉션'을 새로이 선보이며 세계관을 확장 중이다. '모두를 위한 다이아몬드'를 만들겠다는 창립자 다니엘 스와로브스키(Daniel Swarovski)의 비전을 있고 정교하고 숙련된 기술력의 집약체를 보여주는 브랜드의 저력이 바탕이 된 덕분이다. 지속적으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개발하고 선보임으로써 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지속 가능 방식을 이끌어 진정한 가치를 부여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온몸으로 마주해본다.

승고하고도 윤리적인

실험실에서 자란 다이아몬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랩그로운'으로 불리는 이 센세이션한 다이아몬드는 놀랍게도 광학적, 물리적, 화학적 면에서 모두 채굴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하다.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비윤리적인 생산 방식을 철저히 지양한다는 것이다. 천연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 6톤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면을 깎아야 한다. 게다가 남아프리카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윤리적인 채굴 방식은 진귀한 다이아몬드의 불편한 진실이다. 반면 실험실에서 자란 다이아몬드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환경오염이 적은 데다 실험실에서 자란 만큼 채굴 방식면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공정 과정은 이렇다. 고압·고온(HPH)과 화학 기상 증착(CVD),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주로 높은 온도의 에너지 상태인 플라스마를 이용한 화학 기상 증착 방식으로 생성된다. 진공 상태의 특수

“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미래 다이아몬드 산업의 키워드이자 스와로브스키의 전략 성장 카테고리를 대표합니다”
by 스와로브스키 CEO 알렉시스 나사드



용기에 메탄과 수소가스를 넣은 뒤 온도를 1,000℃ 이상으로 높이면 기체에서 탄소가 분리된다. 이때 탄소가 바닥에 막을 형성하면서 겹겹이 쌓이고, 몸집은 점점 커진다. 그 인공 결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다. 평균적으로 약 5백 시간 동안 1캐럿 다이아몬드를 30개나 얻을 수 있으니 수백만 년이 걸리는 채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효율적이기까지 하다.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SCD) 컬렉션은 윤리적인 다이아몬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골드를 사용해 주얼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고유성을 드러낸다. 이는 지구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브랜드의 노력이자 산물이며, 창립 이래 1백30년 동안 지켜온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품질이 탁월한 다이아몬드만 SCD 컬렉션에 채택되며, 각 컬렉션은 4C 다이아몬드 품질 기준(컷 Cut, 컬러 Color, 투명도 Clarity, 캐럿 Carat)에 따라 IGI의 인증을 받아 출시된다. “스와로브스키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미래 다이아몬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보석학연구소(IG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SCD 컬렉션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믿음을 높이고 있죠.” 스와로브스키의 CEO 알렉시스 나사드(Alexis Nasard)는 다이아몬드의 품질에 대해 거듭 강조한다. 화학적 구성 성분부터 물리적 성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채굴 다이아몬드와 다를 바 없고 공정 과정은 윤리적인 데다 생성되는 시간을 현저히 단축했다고 하니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다. 스와로브스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만의 올바른 가치를 되새기며 광채를 오롯이 느끼는 것이다.

Enchanted Octagon

스와로브스키를 상징하는 팔각 세이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옥타곤(The Octagon) 컬렉션'은 부드럽고 길게 뻗은 형태에서 대담하고 절제된, 신비로운 양가적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이는 브랜드 헤리티지와 보석을 향한 장인 정신, 그리고 빛에 대한 독보적 노하우를 조명한다. 팔각형으로 커팅한 다이아몬드는 다각도로 반짝이는 57면의 커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빛을 받아들이는 크라운에는 스텝 컷을, 빛을 반사하는 파빌리온에는 프린세스 컷 기법을 적용·결합해 여느 다이아몬드와 차원이 다른 찬연한 빛을 선사한다.

이번 옥타곤 컬렉션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새로 개발한 브랜드 고유의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력이 다가 아니다. 스와로브스키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컬렉션 최초로 남성용 밴드 링을 선보여 완벽한 라인업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남성 밴드 링은 다이아몬드와 팔각 세이프에 초점을 둔 신중함 디테일과 정제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얼리와 레이어드 해도 손색없다. 웨딩 주얼리 트렌드를 이끌며 파인 주얼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하기도 한다. 18K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펜던트 네크리스, 이어링은 물론 브레이슬릿과 링 등

1 옥타곤 펜던트 골드 네크리스.
2 중지에 착용한 2캐럿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배젤링, 약지에 차례대로 착용한 1캐럿, 3캐럿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링은 모두 옥타곤 배젤링. 3 옥타곤 드롭 이어링과 3캐럿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옥타곤 배젤링. 4 다양한 사이즈의 옥타곤 밴드링. 5 심플한 화이트 골드 소재 옥타곤 스타드 이어링과 옥타곤 펜던트 화이트 골드 네크리스.



으로 다양하게 출시해 선택지를 세밀하게 넓혔으며 컬렉션 모두 엄격한 4C 기준을 완벽히 충족해 국제보석학연구소의 인증을 받았다. 옥타곤 컬렉션을 포함해 스와로브스키에서 선보이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생산 방식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채굴 다이아몬드와 100% 동일한 성질을 띠며 100% 재생에너지 및 재활용 골드로 제작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얼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INTERVIEW Points of Lab Diamond 심용운(국제 보석학 연구소 APAC 지사장)

국제보석학연구소는 전 세계 31개의 감정소를 운영 중이며 주얼리와 다이아몬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유색 주얼리에 대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APAC 지사장 심용운은 중국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에서 국제보석학연구소(이하 IGI)의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 그를 만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품질 및 인증 기준을 면밀히 살펴본다.

Q 천연과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구분할 수 있나? 육안으로는 물론 확대경인 루페로도 구분하기 힘들다. 정확하게 감정하기 위해서는 특수 기계가 필요하다. IGI는 먼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LGD)의 생성 방식이 CVD 또는 HPHT인지 확인한 뒤, 4C 기준으로 감정을 진행한다. 본론을 말하자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채굴된 천연 다이아몬드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커팅부터 광채까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Q IGI의 인증 기준이 궁금하다. 정확히 '4C'가 기준이다. Color(색), Carat(캐럿), Cut(커팅), 마지막으로 Clarity(투명도)를 말하며 각 기준에 미달되는지 정밀하게 감정한다. IGI 인증을 받은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 컬렉션의 경우, 0.25캐럿 이상의 모든 다이아몬드 제품에 레이저 각인이 새겨진다. 이는 스와

로브스키가 인정하는 정품의 의미를 지니며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스와로브스키는 1895년 창립된 이후 정교한 커팅 기술력, 혁신적인 브랜딩, 예술적 디자인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그런 브랜드에서 만든 다이아몬드인 만큼 확연히 다른 광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Q 보석 감정 전문가로서 앞으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비전은? 다이아몬드가 대중화되면서 웨딩 시장으로 지금껏 국한되었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인기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윤리적인 면이나 품질 면에서도 나 무랄 데가 없으니,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회사 보안상 자세히 공유할 수는 없지만 지금 파트너십 체결을 논의 중인 몇 브랜드가 있다. 주얼리업계에서도 랩그로운 다이아

몬드가 꽤 매력적인 옵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Q 마지막으로 <스타일 조선일보> 독자에게 전할 말. 스와로브스키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중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처음 선보인 브랜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들의 오랜 헤리티지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밀한 기술력의 결합은 완성도 높은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이어진다.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 컬렉션은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의 가치관과 맞닿아 있으며 주얼리 시장 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윤리적 행보를 이어가는 스와로브스키의 다이아몬드를 감정하고 인증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에디터 김하얀

Get The List



LOUIS VUITTON
특유의 체리 모티프가 강렬한
색감을 선사하는 루이 비통x
무라카미 시리즈의 두 번째
에디션. LVxTM 스피디 소프트
반들리에 30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TAG HEUER
올해 워치스 & 원더스에서 공개된
새로운 카레라 데이 데이트.
선레이 효과로 표현한 선명한
블루 컬러 다이얼이 사선을
사로잡는다. 지름 41mm 스틸
케이스에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무브먼트
TH31-02를 장착했다. 6백13만원
태그하이어, 문의 02-3479-6021



**RALPH LAUREN
COLLECTION**
랄프 로렌 컬렉션 2025 스프링
시즌에 선보인 렉스 크림 색상의
칠튼 카프 스웨이드 카우보이
부츠 가격 미정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이 계절과 무드를 모두 담은 특별한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LORO PIANA
가벼운 서머 룩에 포인트가 되어줄
볼드한 스타일의 브라스 소재
버블 체인 네크리스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BREITLING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한 모던
레트로 스타일의 브라이틀링의
대표적인 파일럿 워치로 지름
46mm 케이스에 담 그린
다이얼을 매치한 내비타이머 B01
크로노그래프 1천4백67만원
브라이틀링, 문의 02-792-4371



DIOR JOAILLERIE
일본 오리가미의 절라품하고
스타일리시한 스타일을 주얼리로
표현한 디올리가미 컬렉션
네크리스, 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
녹옥수, 타카시, 옐로 마노,
레피도라이트, 화이트 자개, 핑크
오팔, 라커 등 다양한 컬러의
조화가 돋보인다.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문의 02-3280-0104



OMEGA
탁월한 항자성을 입증받은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 칼리버
오메가 8900을 탑재했다. 지름
41mm 케이스에 스카이 블루
다이얼이 매력적인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9백90만원대
오메가, 문의 02-6905-3301



QFELIN
‘뜻하는 바를 이룬다’는 의미를
지닌 전통적인 ‘여의(如意, Ruyi)
심벌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으로
18K 로즈 골드에 최귀한 파플
컬러 제이드를 세팅한 라벤더
제이드의 유이 링 5백20만원
키린, 문의 02-6905-3453
에디터 성정민



Landing Mars

예상치 못한 새로운 만남은 신선한 자극을 불러온다. 동시대적 럭셔리를 쌓아 올린 MCM의 헤리티지와 기능적 디자인에 능한 로우로우(RAWROW)의 극적인 만남. 이런 상호 보완적 컬래버레이션이라면 언제든 환영이다.

여행은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물리적 이동과 경험을 뜻한다. 일상에서의 탈출을 가능케 하고 즐거움과 흥미를 주며, 때로는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런 전형적인 여행의 형태가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되면서 일과 여행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났다.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하는 워케이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일하는 디지털 노매드를 추구한다. 이처럼 또 다른 형태의 여행을 꿈꾸는 여행자와 소비자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1 '뮌헨에서 화성까지'를 테마로 완성한 로우로우 협업 컬렉션.
2 디자인은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도 국내의 여행, 워케이션, 디지털 노매드 등을 자향하는 다양한 여행자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예정이다.
3 MCM 고유의 클래식 포늬를 재해석한 컬러를 사용했으며, 기내용은 44.4×47.8×22.7cm, 수화물용은 50.7×77.2×29cm, 총 두 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다.

발맞춰 MCM이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뮌헨에서 화성까지(From Munich to Mars)'가 테마인 이번 컬렉션은 트립 웨어 브랜드 로우로우(RAWROW)와 만나 한층 더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 MCM 마케팅 관계자는 "이번 컬렉션은 여행의 본질과 미래를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입니다.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트롤리를 통해 전 세계 디지털 노매드에게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여행 필수품인 트롤리로만 구성해 선택과 방향에 집중하고, 더할 것도 없는 기내용과 수하물용, 총 두 가지 사이즈로 알차게 준비했다. 제품 곳곳에는 MCM과 로우로우 고유의 디자인 코드를 담았는데, 트롤리 핸들과 내부에는 MCM을 상징하는 비세토스 모노그램을 적용하고 로우로우만의 특허 기술인 TT 핸들(TT HANDLE™)을 전 제품에 장착했으며 짐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스케일 핸들(Scale Handle)을 수하물용에 적용했다. 필요에 따라 여권과 티켓을 빠르게 꺼낼 수 있는 허든 포켓까지 추가함으로써 이동 시 필요한 디테일을 빠짐없이 넣어 여행의 가치와 효율성을 한껏 끌어올렸다. 그뿐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주소재로 알루미늄을, 안감으로는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선택해 제품의 무게와 내구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종래에 브랜드가 품어온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드러냈다. 테마명에서 알아챌 수 있듯 컬렉션의 키 컬러는 마스 골드(Mars Gold). MCM의 시그니처 컬러인 클래식 포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브랜드의 전통과 미감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매혹적인 마스 골드의 물결은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 MCM 하우스(MCM HAUS)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지난 18일, MCM이 이번 협업 컬렉션을 직접 보고 만지고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 1층의 신비로운 미러 룸을 지나 도착한 3층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건 MCM×RAWROW 컬렉션의 무드를 담은 물임형 공간이다. 매장 중앙, 허공에 떠 있는 트롤리들은 우주의 무중력을 연상시키며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따뜻한 마스 골드와 상반된 서늘한 은빛의 철제 짐기 위에는 MCM의 시그니처 포늬 컬러 제품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었다. 이번 협업은 MCM의 미감과 철학, 비전을 기반으로 더 많은 것을 상상하며 표현한 기회의 파노라마였다. MCM과 로우로우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혁신'이었고, 이를 가장 잘 표현한 협업 컬렉션은 전 세계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40-1404 에디터 김하얀



Professional Technology at Home

프로페셔널 클리닉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최고의 기술만 담아가정용 뷰티 디바이스로 선보이는 트리폴라. 올여름 페이스와 보디 관리에 유용한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한다.



홈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트리폴라로 의료 장비 핵심 특허 기술인 멀티 고주파와 어댑티브 DMA를 경험할 수 있다"



The Beginning of Beauty Science
1966년에 창립된 이스라엘의 의료 장비 회사 루메니스(Lumenis)는 전 세계 최초로 IPL 레이저 기술을 개발해 피부 과학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전문 병원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의료 레이저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From Clinic to Home

전문의로도 인정하고 선택한 루메니스가 의료 레이저 기기에 사용하는 핵심 특허 기술을 담은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스텝 브이엑스2와 '포즈 브이엑스'를 선보였다. 보다 진화된 홈뷰티 테크놀로지로 V라인 페이스와 X라인 보디 완성에 도움을 줄 예정. 노출 고민을 덜어줄 두 제품으로 좀 더 자신감 있는 여름을 준비해보자. 먼저, 스텝 브이엑스2는 얼굴의 볼륨을 채워주

는 특허 받은 세 가지 멀티 고주파(multi-RF)와 V라인을 실현해주는 어댑티브 DMA 기술이 동시에 작동하는 유일한 기기다. '스텝 브이엑스2'의 멀티 고주파는 피부 진파층 도달에 가장 적합한 1MHz 주파수를 사용해 피부에 더 깊고 고르게 도달해 볼, 이마 등의 볼륨감을 채운다. 어댑티브 DMA 기술은 섬유 근막층(SMAS)을 3분 내 1,000회 자극해 탄력 있는 V라인을 만들어준다. 피부 밀착력을 높여주는 디자인과 94g의 가벼운 무게로 손쉽고 간편한 홈케어가 가능하다. 탄력 있는 보디라인 개선에 효과적인 '포즈 브이엑스'는 더 넓어진 '보디 전용 출력창'으로 RF 고주파와 DMA가 더 깊고 강력하게 침투해 탄탄한 보디 실루엣을 완성한다. 보디 사용에 최적화된 인체 공학적 디자인과 각도로 편안하게 피부 온도를 측정해 과열 시 자동 차단되는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80-246-1234 고객센터 정라윤

(좌) RF 에너지와 DMA가 피부지방층까지 강력하게 침투해 탄탄한 보디라인을 만들어주는 포즈 브이엑스 1백18만원. (우) 볼륨을 채워주고 탄력 있는 V라인을 만들어주는 스텝 브이엑스2 98만원.



“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는 미식가들에게 유럽산 식음료의 특별한 맛과 뛰어난 품질, 풍부한 풍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다이닝 신(scene)에 유럽의 맛이 펼쳐진다. 유럽연합(EU)이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Colours by Europe, Tastes of Excellence.)’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는 미식가들에게 유럽산 식음료의 특별한 맛과 뛰어난 품질, 풍부한 풍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여행을 즐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음식이다. 한 나라의 요리는 그 나라의 기후와 문화, 감성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음식은 그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유의 재료를 경험할 수 있기에 더욱 특별하다. 특히 유럽은 식품 안전은 물론 품질이 훌륭한 식재료와 식음료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럽의 정통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유럽연합의 오랜 유산과 정통성,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엄격한 기준까지, 유럽연합 농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유럽연합은 한국에서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럽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서울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올여름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를 선보인다.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에는 서울 곳곳의 18개 레스토랑, 바, 베이커리가 참여해 유럽연합의 식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유럽연합에서 생산한 농식품으로 직접 요리해보는 쿠킹 클래스도 마련한다. 이번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를 통해 장시간 비행 없이 유럽의 풍미를 즐겨보자.

유럽에서 온 맛의 발견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 캠페인은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인증 제도인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와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를 알리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인증 제도는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 고유한 지역적 특성과 장인 정신이 반영되었음을 보증한다. 또 유럽연합 유기농 로고는 엄격한 환경보호 및 동물 복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유럽산 농식품의 품질과 신뢰를 상징한다. 이렇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식품 인증 제도와 기준은 유럽 음식의 퀄리티와 연결되며 훌륭한 맛 역시 보장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에서는 장인 정신이 깃든 크리미한 치즈와 유제품, 프리미엄 육류, 올리브 오일, 스피리츠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엄선한 식재료를 만든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며, 수 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을 바탕으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성과 품질, 오랜 이야기를 간직한 진짜 유럽의 맛을 발견할 수 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즐거세요! 유럽에서 왔습니다!’

18개의 레스토랑, 하나의 맛있는 여행

유럽까지 갈 필요 없이 한국에서 유럽에서 인증받은 신선한 식재료와 다양한 요리를 만끽하고 싶다면 행사 기간(7월 11일부터 24일까지)을 놓치지 말 것. 서울 곳곳의 엄선한 레스토랑, 바, 베이커리 18곳에서 유럽 정통 식재료를 다양한 스타일로 풀어낸 특별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마테르’, ‘비스트로 드 온트빌’, ‘빈호’, ‘오리지널 넘버스’, ‘페리지’, ‘해리스’에서는 유럽의 식재료를 정교하게 해석한 세련되고 우아한 파인 다이닝을 경험할 수 있는데, 유럽의 깊고 풍부한 풍미를 담은 요리 에 와인을 곁들이면 더욱 완성도 높은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다. 활기찬 분위기의 미식 경험을 원한다면 ‘뮤팡’, ‘베지워렌드’, ‘보르고한남’, ‘세스타’, ‘스탬파’, ‘아도르’ 같은 서울의 캐주얼 레스토랑을 찾아도 좋을 것. 유럽의 맛을 위트 있게 해석한 창의적인 시그니처 요리를 만나볼 수 있다. ‘발링스’, ‘소나’, ‘소코’, ‘아페’, ‘장생건강원’, ‘재인’ 등에서는 우수한 유럽산 식재료로 만든 페이스트리, 디저트,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파인 다이닝

- 1 마테르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54길 16
- 2 페리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68길 6-5
- 3 비스트로 드 온트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58길 13-7
- 4 오리지널 넘버스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55길 24
- 5 해리스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24길 12-4
- 6 빈호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43길 38

캐주얼 레스토랑

- 1 세스타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21-18
- 2 보르고한남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4길 31
- 3 아도르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3길 4-13
- 4 베지워렌드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60
- 5 뮤팡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12길 4-2
- 6 스탬파
서울시 중구 충무로 21-12

베이커리/바

- 1 발링스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50
- 2 소나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40
- 3 아페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03길 19
- 4 재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4길 48
- 5 장생건강원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24길 23
- 6 소코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47

집에서도 즐기는 유럽의 맛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의 맛있는 요리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에 참여한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직접 진행하는 즐겁고 유익한 쿠킹 클래스가 마련된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쿠킹 클래스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럽산 식재료를 활용해 레스토랑 위크의 요리를 간단하게 재현한 레시피를 선보인다. 셰프와 함께 요리하며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집에서도 유럽 감성이 담긴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쿠킹 클래스 일정과 사전 신청 방법은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는 미식 탐험가는 물론 새로운 것에 끌리는 호기심 많은 사람에게 유럽의 식음료 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한번 먹어보면 계속 찾게 되는 유럽산 식재료, 그에 담긴 장인 정신, 깊은 풍미와 정통성을 함께 즐겨보자. 7월, 진짜 유럽의 맛을 만나볼 시간이다. 에디터 성영민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
<https://colours-by-europe.campaign.europa.eu/en>



캠페인 공식 인스타그램
@EUAgriFood_Korea

국경 지대에 자리한 미식과 쇼핑의 소도시

하룻밤으로는 모자란 루르몬트의 매력

유럽의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오밀조밀하게 12개 주로 나뉘어 있다. 그중 마스트리흐트를 주도로 삼고 있는 남동쪽 림뷔르흐주에는 독일, 벨기에 국경과 가까운 루르몬트(Roermond)라는 인구 6만여 명의 소도시가 자리한다. 가끔은 네덜란드 사람들도 "어디라고?" 하며 되묻는 도시명인데, 오히려 자동차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뒤셀도르프나 쾰른에서 오가는 독일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높은 여행지다. 존재감 있는 건축적 풍경이 펼쳐지는 중세풍 구시가지, 자연과 레저를 누릴 수 있는 마스플라센 호수, 그리고 유럽에서 내로라하는 쇼핑 명소인 디자이너 아웃렛과 은근히 세련된 미식 풍경까지, 아기자기하고 다면적인 매력이 흐른다.



루르 강변에 아름답게 자리한 네덜란드 남동부의 소도시 루르몬트(Roermond)는 호수가 많고 숲과 초원을 아우르는 메인베흐(Meinweg) 국립공원도 근처에 품고 있는, 아시아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다. 동쪽으로는 독일 국경, 서쪽으로는 벨기에 국경과 가까워 '자차'를 몰고 오가는 유럽 내 방문객들이 많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로 2시간가량, 남부 주요 도시 에인트호벤에서는 기차로 30분 정도면 가깝게 도착한다. 유럽의 많은 중소 도시가 그렇듯 루르몬트 중앙역에 내리면 구시가지의 웅장한 명소를 걸어서 다닐 수 있다. 루르몬트는 '로르강의 입(mouth)'이란 뜻이라(네덜란드어로 몬트(mond)는 '입'이다) 잘 보면 도시를 상징하는 '빨간 입술' 마크가 곳곳에 있다. 중세에 상업 도시로 번성하기도 했던 루르몬트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랜드마크가 있는데, 하나는 13세기에 건립된 후기 로마네스크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뮌스터케르크(Munsterkerk)로 암스테르담 중앙역과 국립박물관 등을 설계한 당대의 유명한 건축가 피에르 카유퍼르스(1827~1921)가 훗날 복원을 맡기도 했다(루르몬트 출신이라 그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박물관도 있다). 또 다른 랜드마크는 15세기 초 처음 짓기 시작한 16세기에 완성되었다는 성 크리스토퍼 대성당(St. Christopher's Cathedral)으로 네덜란드가 낳은 유리공예 장인 옴 니

콜라스(Joep Nicolas)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답게 수놓여 있다.

다국적 방문객들이 찾는 쇼핑의 메카이자 여행지 중앙역에서는 도보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루르몬트 디자이너 아웃렛'을 가라카는 표지판을 열심히 찾는 이들도 눈에 띈다. 프리미엄 아웃렛 브랜드 맥아더글렌(McArthurGlen)의 유럽 매장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기와 경쟁력을 뽐내는 쇼핑 명소다. 2백 개 이상의 글로벌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데, 구찌, 프라다, 버버리, 몽클레르, 발렌티노, 지미 추, 보스, 질샌더, 아르마니 등 럭셔리 브랜드는 물론 대형 나이키 매장을 비롯해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스포츠 브랜드도 입성해 있다. 또 오프화이트, 푸에테리, 이로(IRO), 칼하트웍, 끌로에, 겐트, 맥퀸 등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감성의 라인업으로 꼽히는 브랜드도 다수 포진해 있다. 한 매장에서 50유로 이상만 구매하면 세금 환급(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고, 핸드프리 쇼핑, 전기차 충전, 퍼스널 쇼퍼, 아이를 위한 놀이기구 등 서비스의 스펙트럼도 넓고 세심하다. 이 같은 경쟁력에 힘입어 2001년 이 아웃렛이 개장한 이래 루르몬트는 어느새 베네룩스 지역을 여행하는 이들이 즐겨 찾는 쇼핑 도시로 거듭났다. 덩달아 미식 풍경도 풍성해져 도심에 '맛집'의 기운이 넘실거리는 레스토랑이 상

1 13세기에 건립된 후기 로마네스크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뮌스터케르크(Munsterkerk) 교회의 외관. 루르몬트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2 맑은 하늘을 품은 봄날의 마스플라센 호수 풍경. 맥아더글렌에서 운영하는 '루르몬트 디자이너 아웃렛'의 레스토랑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다. 3 '볼링의 나라'다운 장식이 눈에 띄는 루르몬트 디자이너 아웃렛 내 설치물. 4, 5 루르몬트 디자이너 아웃렛에는 정쟁한 럭셔리 브랜드, 나이키, 뉴발란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 이 밖에도 뷰티, 리빙을 아우르는 2백 개 이상의 글로벌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6 실제 교도소가 5성급 호텔로 거듭난 헤트아레스트하위스(Het Arresthuis)에서 조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독특한 럭셔리 호텔이 선사하는 매력의 포로가 되어볼래?'라는 식의 흥미로운 콘셉트와 세련된 인테리어, 마식으로 일소문이 나 있다. ※ 1~3, 6 Photo by 고성연 ※ 4, 5 이미지 제공 맥아더글렌 디자이너 아웃렛 ※ www.mcarthurglen.com

당수 있다. 물론 아웃렛 내에도 셰 마고(Chez Margot), 아시안 레스토랑 와가마마 등 다양한 식도락의 선택지가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발 디딜 곳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국적도 다양하지만, 절대적인 1위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독일이죠." 루르몬트 아웃렛 관계자의 설명을 듣자면 연간 약 8백만 명 방문객이 찾는데, 그중 6백만 명이 독일에서 온다고. 이렇듯 루르몬트는 제조업 기반도 있는 도시지만 쇼핑과 레저를 즐기는 여행자가 워낙 많다 보니, '가성비' 좋으면서도 귀엽거나 세련된 디자인 감성의 호텔이 은근히 눈에 띈다. 사실 필자가 이 도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감옥 호텔'로 일소문이 난 헤트아레스트하위스(Het Arresthuis)라는 5성급 부티크 호텔이다. 실제로 1백50년 가까이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였던 이 호텔은 한동안 폐쇄되었다가 장소의 특성을 살려 '포로가 될래?' 같은 재기 발랄한 콘셉트로 재단장해 2011년 봄 문을 열었다. 간수, 변호사, 판사, 형무소장 등 4개 테마를 내세운 스위트를 위시해 저마다 다른 인테리어를 갖춘 객실이 40개 있고, 미식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조식이 풍성하고도 맛나며,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다미안스(Damianz)도 운영하고 있다. 만약 루르몬트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면 계절에 따라 네덜란드 '로컬' 감성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장터'가 광장이나 역사 등에서 열리니 꼭 일정을 체크해보자. 글 고성연(루르몬트 현지 취재)



6



BE NATURAL

샤넬 루쥬 코코 플래쉬 825 비주 라이트 코랄 핑크 은은하게 올라오는 발색과 과하지 않은 촉촉함으로 내추럴한 메이크업에 안성맞춤. 3g 5만9천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성정민

Editor's Pick

코끝을 감도는 신선한 향기,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는 산뜻한 텍스처. 무르익은 여름을 만끽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룩시팡 시트러스 베베나 바디 & 헤어 리프레싱 미스트 생기 있는 시트러스 베베나 향의 보디와 헤어 전용 미스트. 휴대성이 좋은 사이즈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50ml 2만2천원대. 문의 02-2054-05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VERY FRESH

딤티크 시트로넬 클래식 캔들 한여름의 가든 파티를 떠올리게 하는 향으로 네롤리의 플로럴 그린 노트가 싱그러운 분위기를 선사한다. 190g 10만8천원. 문의 02-3446-7494 _by 에디터 성정민



나스 핫 이스케이프 치즈 팔레트 I 핑크빛 블러셔와 하이라이터, 브론징까지 담아낸 올여름 바캉스 메이크업에 제격이다. 3.5g 6만8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신정임



드링크 엘리펀트 엄브라™ 쉐어 미네랄 크림 SPF 30 아스타잔틴, 코엔자임 Q10 등의 성분을 함유해 피부 보호와 자외선 차단은 물론 피땀결 정리까지 가능하다. 60ml 5만3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김보민

NEW PERFUME

퍼퓸 드 말리 캐슬리 오 드 퍼퓸 싱그러운 시트러스와 페퍼, 아카칼라우드 등이 어우러져 남성의 대담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여성 역시 단독으로 또는 플로럴 향과 레이어드하면 무난하게 사용할 만하다. 125ml 45만6천원. 문의 02-3213-2088 _by 에디터 김하얀



시슬리 휘또-블랑 렉스폴리양 비타민 B3, 레몬 및 피치 블러싱 추출물을 함유해 세안 후 칙칙한 피부 톤이 좀 더 밝고 화사해진 느낌이다. 100ml 20만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신정임

디올 NEW 미스 디올 헤어 오일 물에 가까운 가벼운 제형이라 여러 번 덧발라도 몽치지 않고 모발에 매끄러운 윤기만 남는다. 30ml 7만7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김하얀

샹테카이 퓨처스킨 알라바스터 알로에, 차가버섯 추출물 등 보태니컬 성분이 스킨케어 효과를 선사하며 자연스러운 피부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30g 16만1천원. 문의 070-4370-7511 _by 에디터 신정임

ROSY LIPS

클라랑스 립 퍼펙터 #01 로즈 쉬머 시아버터, 망고 버터 등을 함유해 립 케어를 돕고, 로즈 시머 컬러에 핑을 더해 글로시한 립 연출이 가능하다. 12ml 3만9천원대. 문의 080-542-9052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1 **클로에 플라주 토트백** 클로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세미나 카말리가 클로에 플라주 토트백을 선보였다. 패딩 처리한 워시드 코트 소재로 제작했으며, 골드 톤의 오버사이즈 아이릿과 로고 시그니처 프린트 디테일이 특징이다. 청량감을 더해주는 페블 블루와 우아한 무드의 와일드 핑크, 2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905-3670

2 **랄프 로렌 도나텔라 데이 드레스** 2025 프리-폴 시즌을 맞이해 랄프 로렌을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셔츠 드레스 실루엣을 재해석한 '도나텔라 데이 드레스'를 선보였다. 스케치와 액세서리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패턴을 뉴트럴 톤으로 담아낸 다이아리를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버클 장식 벨트와 종아리를 살짝 덮는 길이로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02-3467-6560

3 **불가리아 이터널리 아이코닉 캠페인** 하이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아에서 이터널리 아이코닉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세로펜티의 유려한 곡선, 디바스 드림의 부드러운 곡선미, 투보가의 스파이럴 디자인, 비제르원의 구조적 강약의 조화를 다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불가리아의 디자인 미학과 예술적 헤리티지를 경험해볼 수 있다. 문의 02-6105-2120

4 **디올 파인주얼리 다올리가미 컬렉션** 디올 파인주얼리에서 매력적인 핏 감성을 담아낸 다올리가미 컬렉션을 제안한다. 싱그러움 봄의 청원을 담은 그래픽적인 스톤이 특징이며, 오리가미 기법을 적용한 비대칭적 디자인의 네크리스와 이어링으로 구성했다. 하우스의 정교한 마감을 통해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문의 02-3432-1854

Showroom



5 **샤넬 뷰티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 인 미스트** 샤넬 뷰티가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 인 미스트를 출시했다.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과 백차 새싹 추출물 등을 함유해 피부의 활력과 진정에 도움을 줘 최적의 피부 컨디션을 선사하며, 물방울을 담은 레드 컬러의 패키지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38

6 **케이트 위노나 드레스** 아메리칸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케이트에서 우아함과 현대적인 실루엣을 담은 위노나 드레스를 출시했다. 세련된 블랙과 화려한 아이보리 컬러로 구성했다. 측면에 솔기가 없는 구조로 몸의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실루엣과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드 라인이 특징이다. 문의 02-6905-3529

7 **보테가 베네타 트라이베카 백**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가 2025 가을 컬렉션을 맞아 트라이베카 백을 선보였다. 인트레치아토 수공예 기법을 기반으로 부드러운 직사각형 형태로 플렉서블 톱 핸들을 더했다. 사이프라스와 블랙, 2가지 컬러로 만나 볼 수 있으며 톱 핸들로 손으로 들거나 크로스 스트랩으로 어깨에 매는 등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38-7694

8 **스와로브스키 옥타곤 컬렉션** 스와로브스키에서 옥타곤 컬렉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하우스의 상징인 팔각형 로고에서 영감받아 탄생했으며, 18K 화이트 골드 및 옐로 골드 펜던트 네크리스와 이어링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했다. 컬렉션 모두 엄격한 4C(컬러 Color, 컷 Cut, 투명도 Clarity, 중량 Carat)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보석학연구소(IGI)의 인증을 받았다. 문의 1522-9065

10 **IWC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41 탐진 모하비 데저트** 스위스 럭셔리 워치 브랜드 IWC에서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41 탐진 모하비 데저트' 신제품을 공개했다. 미 해군 조종사의 비행복과 훈련하는 차이나레이크 기지 인근의 모하비 사막 지형에서 영감받아 제작했으며, 최대 1백2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1877-4315

11 **홀스코치 코리아 제24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주최하고 홀스코치 시즌 코리아가 주관하는 '제24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가 6월 16일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매년 프랑스 와인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갖춘 수많은 참가자가 출전해 경쟁을 펼치며, 현지 소믈리에 대상으로 하는 전문 소믈리에 부문과 일반 와인 애호가 및 소믈리에를 제외한 업계 종사자를 위한 어드바이저 부문으로 진행된 다. 문의 <http://sopexa.co.kr>

12 **시세이도 시세이도 퍼펙트 선 프로텍터 로션** 시세이도에서 여름을 맞이해 퍼펙트 선 프로텍터 로션을 제안한다. 오토매틱 베일 기술을 적용해 유효성을 지닌 자외선 차단 입자로 차단막을 균일하게 해주며 물, 땀, 고온에도 유지되는 자외선 차단막으로 피부 보호가 가능하다. 문의 080-564-7700

Art + Culture

지난봄, 느슨한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네덜란드의 부산' 같은 항구 도시 로테르담에 갔을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루커스 뮤지엄 프로젝트로 글로벌 무대에서 부각되고 있는 건축가 마얀송(Ma Yansong)과 '이주'나 '낯선 곳에서의 체류'에 대한 대화를 잠시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출신의 미국 유학파인 그가 이끄는 건축 사무소 MAD 아키텍츠가 로테르담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마스강 남쪽 강둑의 페닉스(Penix)를 설계했는데, 이 미술관 자체가 전적으로 '이주'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전부터 있던 역사적인 창고를 30m 높이의 인상적인 건축물로 탈바꿈시켰는데, 미술관 맨 위 층실에 자리한 2백97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로 만든 나선형 구조물이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마치 어디론가 떠나는 여정을 희망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얀송 특유의 강렬하고 유기적인 건축 언어가 드러나는 이 철제 조각 같은 구조물에 대해 그는 이 도시에 필요한 '움직임'의 요소를 넣고 싶었다면서 결국 '이주도 움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 어딘가에서 머무르지만,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결코 한곳에만 안주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짧게든 길게든, 자발성이 있든 없든 부단하게 움직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나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소통하고, 뒤섞이면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말했듯 '문화적 혼종'이 '뉴 노멀'인 세상이 된 것이지요. 아니, 따지고 보면 문화는 늘 이종교 배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빚어냈고, 인간은 오늘날의 '디지털 노매드'가 아니더라도 자크 아탈리가 정의했듯 본질적으로 떠도는 유랑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요. 페닉스에서 만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두 이주자입니다. 세상 모든 건 움직이고 변화잖아요." 이번 <스타일 조선일보> 'Art+Culture' 여름 특별세션에는 이주와 자유, 포용을 다루는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저마다의 이유와 의지로 노매드의 여정을 꾸려온 다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무덤고 긴 여름에 잠시나마 벗이 되길 바라며, 글 **고성연**(아트+컬처 총괄 디렉터)



Interview with 앤서니 맥콜(Anthony McCall) in 뉴욕

느릿한 ‘현재(現在)’를 호흡하는 빛의 공간

어둠 속에 얹은 안개가 흐르고, 프로젝션이 기다란 원뿔 모양의 ‘빛 기둥’을 쏘아대는 공간의 풍경. 어쩌면 아날로그 감성의 흑백영화 한 장면 같은 모습이다. 사람들은 잠시 이를 관조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이 몽환적인 빛 기둥 속으로 들어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작을 취해보며 그 순간 흠여지는 빛의 경로를 즐긴다. 손을 휘젓기도 하고 발을 뻗어보거나 느릿느릿 돌아다니기도 하며 그 장면의 일부로 스며든다.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순간에 오토이 빠져들게 되는 순도 높은 몰입형 전시를 ‘조각’한 인물은 1946년생 영국 작가 앤서니 맥콜(Anthony McCall). 그가 무려 반세기토 전에 설계한 ‘솔리드 라이트(Solid Light)’ 시리즈다. 지난해 여름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선보여 1년 동안이나 인기를 끌었던 이 시리즈의 빛 기둥이 바닥을 따라 수평으로 펼쳐졌다면, 올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시 공간 푸투라 서울에서 막을 올린 그의 개인전에서는 천장고가 10.8m인 공간적 특성을 살려 수직으로 춤을 추는 원뿔을 만나볼 수 있다. 퍼포먼스를 기록하는 매체로서의 영화가 아니라 ‘영화 자체가 퍼포먼스가 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의 과정에서 조각 재료로서 ‘빛’을 처음 발견했고 이 작업을 계속 확장해온 앤서니 맥콜을 <스타일 조선일보>가 그의 뉴욕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낭만적인 과거의 시대를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지체 없이 1960~70년대의 뉴욕이 떠오른다. 사회적 혼란과 격변 속에서도 온갖 실험적인 미술, 퍼포먼스, 영상, 음악 등이 어우러지며 그야말로 찬란한 예술이 피어나던 시기가 아니던가. 극장의 스크린과 화이트 큐브를 벗어난 예술이 거리와 공장, 작가의 낡은 로프트로 무대를 옮겨 가고, 모든 예술 장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폭발적인 실험과 확장이 이루어지던 시대. 당시 뉴욕은 자연스레 전 세계 예술가들의 목적지가 되었고, 20대 중반의 영국 작가 앤서니 맥콜(Anthony McCall)도 이 무렵 뉴욕으로 이주했다. “뉴욕에 처음 도착했던 때가 1971년이었어요. 그 후로는 줄곧 이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5월 뉴욕 브루클린의 이플렉스(e-flux)에서 관람한 그의 퍼포먼스 ‘5 Minutes Drawing’(1974)은 늘 마음속으로 동경해오던 50년 전 뉴욕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감각을 선사했다. 과거에 진행했던 동일한 퍼포먼스의 기록 영상이 먼저 상영된 뒤, 본격적인 퍼포먼스가 시작되면서 현장은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다층적인 사공간으로 변모했다. 정교하게 짜인 맥콜의 동작과 이를 긴장감 있게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모습은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바닥에 놓인 모니터에 송출되었고, ‘퍼포먼스를 담은 영상과 영상으로 이뤄진 퍼포먼스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복합적인 작업을 만들어냈다. 이는 오랜 시간 그의 작업 세계를 관통해온 주요 개념들을 여실히 재검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시네마와 퍼포먼스, 조각과 드로잉의 경계를 허물다

앤서니 맥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선 전통적인 영화 형식을 해체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 ‘확장 시네마(Expanded Cinema)’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맥콜의 초기작 ‘Landscape for Fire’(1972)는 이후 그가 수십 년에 걸쳐 끊임없이 탐구하게 될 ‘시간성’에 대한 질문의 출발점이자, ‘과거

의 기록’이라는 한계를 넘어 퍼포먼스의 ‘현전(現前)’을 영상에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 작업이었다. “영화에서 시간은 압축되고 가속화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지금 이곳이 아닌 과거의 다른 장면이죠.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건 ‘실시간(real time)’입니다. 작품이 전개되는 시간이 곧 관객과 공유되는 시간이어야 해요.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이 이 걸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이를 ‘지속적인 현재(the continuous present)’라고 불렀죠.” 맥콜은 솔 르윗이나 뽀 보크너 같은 뉴욕의 대표적인 개념 미술가뿐 아니라, 앤디 워홀의 초기작 <Empire>(1965)나 마이클 스노의 <Wavelength>(1967) 같은 실험 영화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다양한 장면을 잘라 붙여 서사를 구성하는 전통적 영화의 방식과 달리,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작품 전체를 구동하는 이들의 방식은 그의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영상을 대하는 그의 사고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다. 최초의 솔리드 라이트 작업으로 여겨지는 ‘Line Describing a Cone’(1973)는 관객이 투사 면을 등지고 서거나 앉아 프로젝터가 공중에 그려내는 빛의 입체 구조를 감상하게끔 한 신선한 시도였다. 뉴욕에서 상영되었을 당시의 기록사진에는 거친 느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어두운 로프트에 모여든 관객들이 빛을 뿜어내는 프로젝터를 응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후 맥콜은 20년 넘게 작업을 중단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생계를 이어간다. 만지와 담배 연기로 가득했던 로프트와는 달리, 지나치게 청정한 갤러리나 미술관의 공기에서는 빛의 입체적 형태가 의도대로 구현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 사이 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이는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안개를 뿜어내는 헤이즈 머신의 발명으로 화이트 큐브에서도 전사가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디지털 프로젝터의 등장으로 필름 프로젝터의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난 수직 구조의 설치 역시 가능해졌다. 이는 전통 조각이 지닌 ‘기념비성’ 및 ‘수직성’과 맞물려 작업의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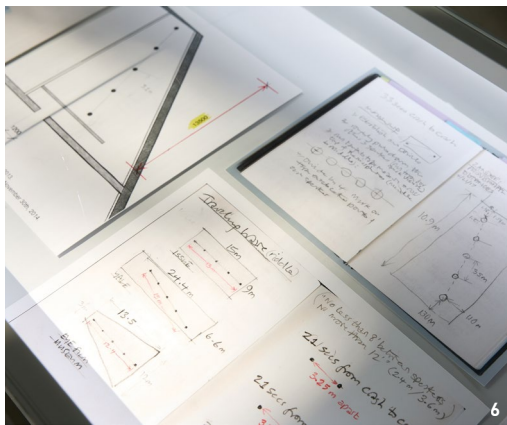
각적 특성을 한층 확장시켰고, 나아가 솔리드 라이트 작업에 건축적인 특성까지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사실 푸투라 서울 전시에서 선보인 수직형 구조는 이미 1970년대 초 그의 노트에 등장한 아이디어였지만,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실현되지 못했다). 기술의 발달로 대형 설치도 가능해졌음은 물론이다. 솔리드 라이트는 어두운 공간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션이라는 ‘시네마’의 기본 원리를 간직하면서도, 공간을 점유하는 ‘조각’으로 기능하고, 동시에 벽이나 바닥에 투사되는 ‘드로잉’의 흔적을 남기며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고 확장시킨다. 그의 빛줄기는 느린 속도로 변화하고 마치 호흡하듯 움직이며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데, 이러한 빛의 움직임이야말로 관객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경험적 공간’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빛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멀쩡이 서서 그것을 단순히 영화처럼 감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업의 움직임을 충분히 느리게 설정하면, 관람객은 자연스럽게 조각을 보러 온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죠. 탐색하듯 주변을 돌아보고, 작품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말처럼, 빛의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는 결정은 지난 30년간 그의 작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맥콜에게 ‘빛’은 그 자체로 주체가 되기보다 ‘시간성(duration)’을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그의 일관된 관심사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 오랜 세월을 걸쳐 지속되어왔다. 드로잉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탐구한 이플렉스의 퍼포먼스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보다 이른 시기에 선보인 사운드 설치 ‘Traveling Wave’(1972/2013)에서는 백색소음을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조각적 매체로 활용한 바 있다.

작가의 스튜디오-시간을 설계하고 기록하는 곳

인터뷰를 위해 찾은 작가의 트라이베카 스튜디오는 지난 45년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과거 프로젝트의 포스터와 브로슈어, 구상 중인 작업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드로잉이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고, 날찍한 책상들 위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실험 단계에 있는 작은 모형이 여럿 놓여 있었다. 서랍에 보관된 수십 권의 노트는 맥콜이 시간과 빛의 흐름을 사유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담은 귀중한 자료다. 그의 작업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가장 작은 A6 사이즈의 노트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발전된 내용은 더 큰 사이즈의 노트로 옮겨져 보다 정교하게 도식화되는데, 스크린의 너비, 빛줄기의 경로, 기하학적 형태의 수축과 확장에 따른 투사 범위 등 모든 요소를 섬세하게 계산해 정밀한 각도로 구체화하고, 시간 단위로 기록된 ‘스코어(score)’를 통해 움직임을 설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시 도면(instruction drawings)’까지 준비되면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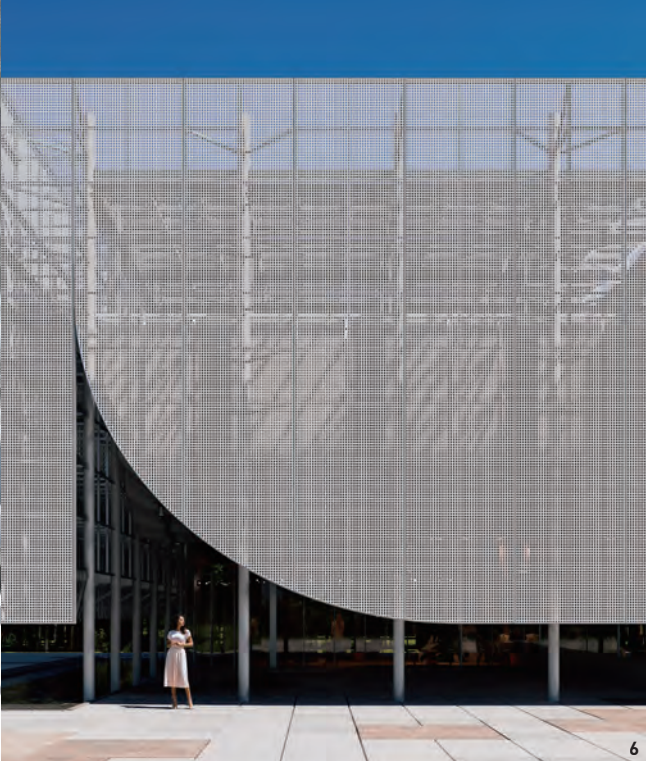


1 뉴욕 이플렉스에서 열린 앤서니 맥콜과 제프 프레이스의 협업 퍼포먼스 ‘5 Minutes Drawing’(1974). 퍼포먼스 시작 전에 제프 프레이스가 2008년 프로젝트 스페이스 오차드(Orchard)에서 열린 맥콜의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Photo by Matthew Ledwidge
2 1973년 뉴욕의 전형적인 로프트 공간에서 솔리드 라이트 작업을 상영했던 모습. Anthony McCall, installation view at Artists Space, ‘Line Describing a Cone’(1973). Photograph by Peter Moore: © Northwestern University
3 서울 종로구의 푸투라 서울 개인전에서 최초로 실제 크기로 구현된 맥콜의 ‘Skylight’(2020). 4 백색소음을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조각적 매체로 활용한 사운드 설치 ‘Traveling Wave’(1972/2013).
5 Anthony McCall, ‘Between You and I’(2006), installation view ‘Plot09’, St. Cornelius Chapel, Governor’s Island, 2009. Photo by Sam Horine, Courtesy Creative Time
6 푸투라 서울 전시에 마련된 아카이브 룸에서는 맥콜의 지난 기록이자 영감의 원천인 그의 노트들 복사본을 살펴볼 수 있다.
7 뉴욕 트라이베카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만난 앤서니 맥콜. Photo by 김연우
8 Anthony McCall, ‘Face to Face’(2013), installation view, the Hepworth Wakefield, UK, 2018. Photo by Darren O’Brien/Guzelian. Courtesy of the artist, Sean Kelly New York, and Spruth Magers * 3, 4, 6 이미지 제공_푸투라 서울(FUTURA SEOUL)



로그래머와 협업해 3D 모델링 및 모형 제작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여러 과정을 거친 기록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아카이브인 동시에 새로운 작업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다. 실제로 25년의 공백을 지나 솔리드 라이트 작업을 다시 시작했을 때, 그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초기 작업을 다시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그중 하나인 ‘Cone of Variable Volume’(1974)은 원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는 10분짜리 필름이었는데, 특정 속도에서 그 형태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신체성(body)의 감각은 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고, 이후 ‘Between You and I’(2006)나 ‘Face to Face’(2013) 같은 작업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 작업의 구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맥콜은 대개 전시 일정이나 완성 기한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 우선 공간이나 계약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뒤, 작품이 준비됐다는 확신이 들면 그제야 이를 선보일 장소를 찾는 편이다. 다만, 드물게 진행되는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예외다. 그중 맥콜이 201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한 ‘Crossing the Elbe’(2013)는 도시 전체를 투사 공간으로 삼아 매일 밤 21분간 3개의 서지라이트가 교차하며 밤하늘을 가로지른 장대한 작업이었다. 인터넷에 남아 있던 영상만 보고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후시 다시 공공 프로젝트를 할 계획이 있는지 슬쩍 물었다. “제가 오랫동안 스튜디오에 보관해온,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북쪽으로 90마일 정도 떨어진 포킵시(Poughkeepsie)의 다리를 위한 ‘Crossing the Hudson’이라는 작업입니다. 언젠가 꼭 실현하고 싶습니다.” 사심이 가득 담긴 질문에 미소로 답하던 그의 바람처럼, 언젠가 다시 밤하늘을 무대로 맥콜의 빛줄기가 펼쳐질 날을 조심스레 기다려본다. 글 김연우(뉴욕 통신원)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Expo 2025 Osaka Kansai)

‘인류의 축제’에 남겨질 질문들

일본 간사이 지방의 대표 도시인 오사카에서 무려 반세기 만에 월드 엑스포가 다시 열렸다.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즈는 인간을 자신이 짜놓은 ‘의미의 그물망’에 걸려드는 존재라고 말했다. 엑스포는 이 말의 뜻을 물리적으로 구현해 5년마다 열리는 인류의 의례가 됐다. 국가별 파빌리온, 건축 디자인, 기술 전시는 물론 방문자의 동선까지, 전시된 모든 것이 현 인류의 상징과 기호 덩어리이며, 그 안에는 권력, 욕망, 정체성, 미래에 대한 상상이 촘촘히 얹혀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보’를 보기도 하고, ‘불균형’을 목격하기도 한다. 소위 ‘강대국’은 자국의 막강한 기술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장대한 서사로 정체성과 미래를 잘 엮은 웅장한 파빌리온을 설계한다. 반면 많은 국가가 한정된 예산과 기술력 속에서 ‘커먼즈’라는 단순한 전시관에 웅기종기 모여 있다. 이들의 전시는 주로 전통의 이미지, 민속 오브제, 혹은 자국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로 구성된다. ‘엑스포’라는 같은 시공간에 있지만, 결코 같은 시간대에 있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여전히 기술과 자본이 미래의 언어를 선점하는 구조 속에서 이러한 ‘불균형’의 그림자는 더 크게 느껴진다.



진보의 진열장, 그리고 그 뒤의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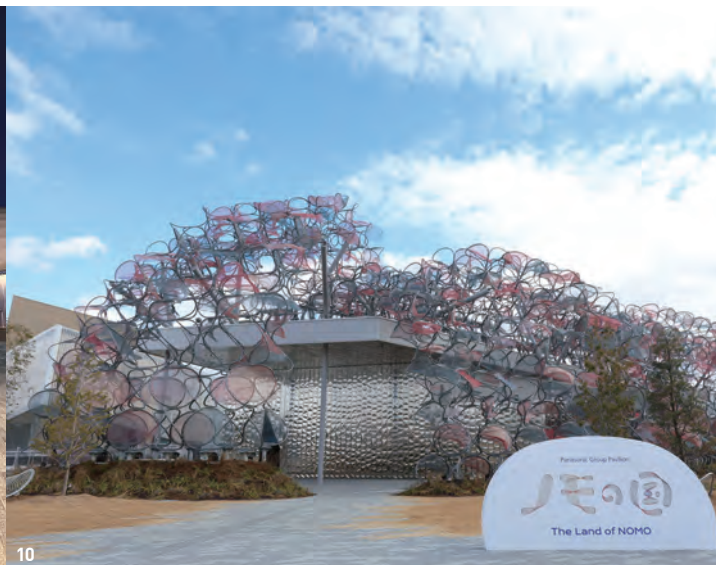
1851년, 런던 하이드 파크에 세운 수정궁(Crystal Palace)에서 엑스포의 시조인 ‘만국 산업 박람회’가 열렸다. 산업화된 문명이 인류의 기술과 진보를 진열장 속에 화려하게 수놓은 첫 순간이었다. 산업혁명기의 유리과 철강 증기기관과 기계, 그리고 식민지에서 가져온 ‘타자의 오브제’는 ‘인류의 진보’라는 낙관적 서사에 얹어 눈부신 자태로 진열되었다. 문명은 스스로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번영을 축하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 ‘진보의 전시장’을 관통해온 것은 그저 ‘빛’만은 아니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크고 작은 전쟁, 식민지화, 탈식민 투쟁, 내전, 점령, 이름조차 남지 않은 학살 등이 병존해왔다. 엑스포는 잠시 멈추기도 했고 강행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제국의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미지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 19세기 초 일본이 엑스포 유치를 반복적으로 시도한 것도(결국 반반이 무산되었지만)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외교 전략의 일부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열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삶이 빛나는 곳

1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 들어서 있는 스위스관(Swiss Pavilion), 초경량 프레임과 식물 구조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건축이다. 2 스위스관 내부, 빛과 기술이 교차하는 유리 큐브 안, 스위스 로보틱스의 정밀성을 보여준다. ※ 1, 2 © Switzerland/Expo 2025 Osaka 3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그룹 SANAA가 설계한 ‘Better Co-Being’, 빛과 공기를 품은 구조가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 Japan Association/Expo 2025 Osaka 4 블루 오션 돐, 중이·대나무·탄소섬유로 구성된 일본 건축가 반 시게루의 친환경 돐 트리오펀. Photo by Hiroyuki Hirai © Shigeru Ban Architects/Expo 2025 Osaka 5 포르투갈관 내부, 재활용 로프가 빛과 그림자를 직조하며, 바다의 흐름을 건축으로 형상화한다. 일본 건축가 구마 겐고가 설계했다. © Portugal Pavilion/Expo 2025 Osaka 6 반사와 음영이 교차하는 금속 파사드 구조의 한국관 외관. © Korea Pavilion/Expo 2025 Osaka

《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에서 ‘미래는 과연 누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인가. 인류의 축제라 일컬어지는 엑스포는 늘 찬란한 비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비전이 현실을 외면한 채 설계된다면, 누군가에게는 공허한 무대장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기술과 지식을 전시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인 엑스포가 반드시 거창한 전 인류애적 서사를 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인상적인 파빌리온이나 전시에 시선을 두면서도, 다분히 ‘인류애적’ 주제를 내세운 채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결국 일회성 이벤트로 남는 이 구조에 대해 회의가 생기는 건 필자만의 감정은 아닐 것이다.

완결된 서사 대신 질문을 던지는 공간들

그럼에도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한다. 엑스포는 그 자체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소외를 반복하면서도 때면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순기능도 분명 품고 있다. 손끝에서 소비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점점 더 많은 것이 비물질화되는 기술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구조물을 짓고, 파빌리온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적 공간으로 초대한다. 왜 우리는 엑스포라는 오래된 의례를 반복하는가. 기술의 신화를 공경화하고, 서로 다른 문명을 지닌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류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행위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의례는 단순한 산업의 진열장이 아니라 인류의 물리적 공존을 모색, 혹은 재확인하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이번 엑스포의 시그너처 파빌리온 중 하나인 ‘Better Co-Being’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존이라는 감각을 공간 안에서 천천히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획자 미야타 히로아키와 세계적인 건축 스튜디오 SANAA가 ‘생명을 공명시키자’라는 주제로 설계한 이 공간은 전통적인 건축 요소를 과감히 생략했다. 지붕도 벽도 없이, 높이 11m의 은빛 금속 그리드 캐노피만이 구름처럼 떠 있고 가는 기둥들이 이를 지탱한다. 바람과 빛, 비와 안개, 식물과 물이 건축의 일부로 기능하며 사람들은 고정된 동선이 아닌 3개의 시퀀스를 따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계’, ‘사람과 미래’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한다. 땅속에 심은 미스트 장치가 안개를 뿜어내고 시간과 날씨에 따라 빛이 궤적을 바꾸다가 무지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인위적 연출이 아닌 공간 구조가 열어둔 가능성에 자연이 응답한 결과다. 이곳에서 건축은 더 이상 자연을 차단하는 경계가 아니라 생명들 사이의 공명을 증폭시키는 열린 무대가 된다.

‘Better Co-Being’이 생태적 감각을 공간화했다면, 몇몇 파빌리온은 재료와 구조 그 자체를 통해 자연과의 공존 가능성을 보다 물리적인 방식으로 실험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관은 초경량 스틸 프레임과 식물 소재를 조합해, 신속한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철거 후 재료를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엑스포 건축이 지닌 ‘임시성’과 ‘지속 가능성’의 긴장을 정면으로 다룬다. 프리즈커상 수상자인 일본 건축가 반 시게루의 ‘블루 오션 돐(Blue Ocean Dome)’은 건축 자체가 메시지다. 3개의 돔은 대나무, 탄소섬유 복합재, 그리고 그의 재난 구조 건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종이 튜브로 만들었다. 내부는 인간과 바다의 공생을 주제로 해양 쓰레기, 수온 상승, 생물 다양성 위기를 시각 자료로 풀어내고, 실제로 학제 간 혁신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건축이 환경 담론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제안한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싱가포르관은 ‘정원의 도시’라는 국가 전략을 엑스포 전시장에 풀어냈다. 강렬한 붉은 구체(파빌리온) 안 상층부에 설치된 ‘가든 박’은 열대식물과 수직 정원을 품고 있어 건축 내에서 생태계를 재현하며 공간의 기후를 조절하는 주제로서 도심 속 생태계의 가능성을 압축해 보여준다. 이 파빌리온들이 생태, 기술, 관계의 미래에 대한 건축적 질문을 내민다. 완결된 답변 대신 질문을 던지며, 방문자로 하여금 다시 사유하고 체감하게 만든다. 다소 조심스럽고 미완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상력의 궤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무엇이 가능한지 묻는 건축, 엑스포는 그 질문을 통해 실험적 태도를 보이며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축제의 끝에 남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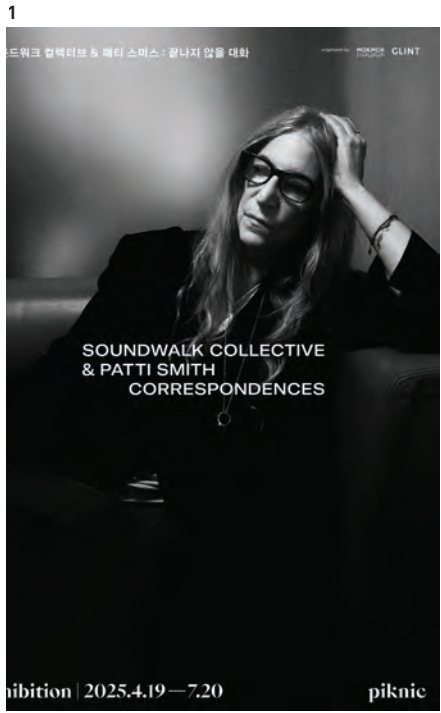
엑스포가 열리는 오사카 남부에 위치한 유메시마는 문명의 야망과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다. 버블 경제기에 조성되었지만 오랫동안 방치됐던 이 인공섬은 오히려 자연에 내준 시간 속

7 재활용 알루미늄 타일로 감싼 구체에 기후 적응형 미래 도시를 담은 싱가포르관. 8 커먼즈관(Commons B Pavilion), 버려진 천과 식물 섬유로 만든 수제 축구공이 사진으로 전시되고 있었다. 9 저녁 무렵, 간담 파빌리온 앞에서 거대한 로켓을 올려다보는 소년. 10 상상의 존재 ‘노모’가 살아가는, 자연과 기술이 호흡하는 세계를 곡면 구조로 구현한 파나소닉관. 설계 나시카야마 준코, 아트 디렉션 다카하라 히로노부. © Panasonic Holdings/Expo 2025 Osaka 11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가 후원한 우먼즈 파빌리온, 나카야마 유코가 설계한 ‘쿠미코’ 패턴 입면은 2020 두바이 엑스포 일본관에서 사용한 구조물로 오사카 엑스포에 재구성해 설치했다. © Cartier Women's Pavilion/Expo 2025 Osaka, Courtesy Cartier 12 엑스포 현장에서 포착된 잠만보(Snorlax), 엑스포장 곳곳에 설치된 포켓몬 조형물은 모두 존 역할을 한다. © Panasonic Holdings/Expo 2025 Osaka ※ 1-3, 5, 6, 10, 11 이미지 제공, Japan Association for the 2025 World Exposition ※ 7-9, 12 Photo by HY Park



에서 습지가 생성되고 1백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된 것이다. 그러나 박람회장으로 지정된 후, 유메시마가 개발의 언어로 재편되면서 생태계는 다시 또 빠르게 밀려났다. 폐가를 매립지에서 생태의 피난처로, 다시 거대한 국가적 행사의 무대가 되었다가 자본 중심의 오락 공간·엑스포가 막을 내리면 일본 최초의 통합형 카지노 리조트로 재편될 예정이다)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궤적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미래 사회의 디자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엑스포는 하나의 축제이자 동시대의 거울이다. 그 거울은 기술과 진보의 빛을 비추지만 동시에 우리가 외면하거나 잊고 있는 것들을 함께 비춘다. ‘삶이 빛나는 미래 사회 디자인’이라는 주제가 진정한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빛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묻어야 하지 않을까. 국가적 축제가 끝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유메시마의 풍경 속에 엑스포의 현장에서 논의됐던 미래의 가치와 실천이 여전히 숨 쉬고 있기를 바란다. 여름이 다가오는 저녁, 오사카만에서 불어오는 습기 어린 바람은 아직 신선했고, 전시장의 구조물 앞에 선 각기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언어로 미래를 해석하고 있었다. 이 복잡하고 느슨한 공동의 해석 현장들, 미래 세대는 어떻게 설명하게 될까. 글 박혜연





숲과 바람의 리마로 돌아온 패티 스미스

살아있는 로커의 아이콘인 패티 스미스(Patti Smith, 1946~)를 보면 ‘대체 몇 가지 재능을 지닌 걸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몸입과 열정이 그녀를 이토록 혁명적으로 보이게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1975년부터 음악, 시, 산문의 경계 없이 글로 비탄하고 울부짖은 패티 스미스는 2005년 프랑스 문화부에서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예술문화훈장을 받았고, 2007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으며, 2011년 시사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백 명’에 꼽히기도 했다. 여전히 부지런히 예술을 행하며 개척자로 살고 있는 그녀가 서울 남산의 복합 문화 공간 피크닉(Piknic)에서 펼쳐지는 <끝나지 않을 대화(Soundwalk Collective & Patti Smith: CORRESPONDENCES)>라는 전시(7월 20일까지)로 서울을 찾았다.



핑크 록의 대모, 싱어송라이터, 그래서 ‘포에틱 펑크의 여왕’이라 불리는 패티 스미스(Patti Smith)는 남성용 와이어즈 같은 화이트 셔츠를 즐겨 입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1970년대 예술이 소용돌이치던 뉴욕을 활보하며 시 낭독회를 열고 노래를 불렀다. 당시 패티 스미스는 뉴욕의 켈시 호텔에서 자신의 평생 술 메이트가 된 동갑내기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플소프(Robert Mapplethorpe)와 사랑과 우정을 나눴고, 재니스 조플런, 앨런 긴즈버그, 지미 헨드릭스 같은 예술가들과 끊임없이 시와 로큰롤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넘게 흐른 2025년, 그녀는 환경·인권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며 여전히 음악과 미술을 결합한 공연과 전시를 진행하고, 끊임없이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순간을 노래한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1975년 데뷔 앨범 <호시스(Horses)> 커버 속 중성적인 모습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패티 스미스에게는 늙음에 떨려 오는 슬픔도, 외로움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 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작은 여행 가방을 챙기고 카메라를 배낭에 넣고 길을 떠나는 일상을 보낸다. 그리고 펜과 공책을 자주 꺼내 글을 끄적거린다. ‘기차에서도 열에 달뜬 글쓰기를 이어간다. 기억의 바다에서 부활한 사람 같다. 알랭이 보던 책에서 눈길을 슬며시 들어 차장 밖을 바라본다. 시간이 수축된다. 별안간 우리가 파리에 곧 도착할 예정이란다. 아우렐리앵은 잠들어 있다. 젊음이는 잠을 잘 때 아름답고 나 같은 늙음이는 죽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문득 뇌리를 스친다.’ 자신의 저서 <물입>(마음산책)에서 이런 풀 죽은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검은색 새틴 바지에 위커를 신고 전시장을 누비는 그녀는 여전히 혁명을 이끄는 전사처럼 보인다.

‘저스트 키즈’, 예술가로 살아가는 무게와 아름다움

1970년대 패션 스타일을 지금까지 그대로 고수하는 패티 스미스는(기자 간담회 때는 전시 공간 ‘피크닉’ 로고 티셔츠를 커팅해 입고 왔다) 스스로를 인도주의자라고 했다. “우리는 연합을 통해 이 세상을 다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탐욕적인 극소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고 말한다. 국제 정권에 저항하고 싶어 록 음악의 세계로 들어왔고 랭보의 시를 좋아했다던 그녀는 어른이 된 지금도 순수한 열의에 차 있는 듯했다. 전미도서상을 수상한 패티 스미스의 회고록 <저스트 키즈(Just Kids)>(아트북스)는 이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풀어낸 책이다. 막 사랑에 빠진 커플의 자화상만이 아니라 예술적 감성과 혁명적

기운이 팽배했던 뉴욕을 배경으로 당대를 풍미한 아티스트들의 행보가 담겨 있다. “우리 얘기를 책으로 써줄래?” “내가 그려길 바라?” “그래줘야 해” 패티 스미스는 죽어가는 로버트 메이플소프와 안방이란 인사 대신 이 같은 대화를 나눴고, 2010년 <저스트 키즈>를 출간하며 그 약속을 지켰다. “저의 책 <저스트 키즈>에서 그랬듯 이번 전시에서 아티스트로서 산다는 것의 무게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뉴욕, 메데인, 상파울루 등을 거쳐 아시아 첫 순회전으로 열리는 패티 스미스와 사운드워크 컬렉티브(Soundwalk Collective)의 협업 전시 <끝나지 않을 대화(Soundwalk Collective & Patti Smith: CORRESPONDENCES)> 기자 간담회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서울에 정말 오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뮤지션 입장에서 한국어를 들으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피크닉 전시는 패티 스미스와 사운드워크 컬렉티브가 10여 년간 주고받은 서신을 바탕으로 완성한 시와 소리에 대한 프로젝트의 결실이다(일본 도쿄의 미술관 MoA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패티 스미스의 전시가 열렸다). 사운드워크 컬렉티브의 음향 예술가 스테판 크라스닌스키(Stéphane Crasneanski)와 프로듀서 시몬 메를리(Simone Merli)가 세계를 탐험하며 현장의 소리를 녹음한 필드 리코딩에 패티 스미스가 영감을 받아 시를 쓰고 목소리를 덧입혔다. 전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대형 산불, 동식물의 대량 멸종 등을 이야기하며 기후변화, 인류 역사 속 예술과 혁명 등을 주제로 삼는다. 모두 8편의 비디오를 선보였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세대의 삶을 기록한 <체르노빌의 아이들>이나 <길 잃은 자들의 절규>와 <무정부 상태의 군주>, <산불 1946-2024>와 <대멸종 1946-2024> 등 슬픈 역사나 심각한 문제를 겪는 곳들을 다룬다. 패티와 스테판은 도시를 함께 거닐면서 세계의 아름다움과 취약함,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격자로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가 들란에서 모은 나뭇잎을 내려놓으면 그녀는 연필로 글을 쓰고, 그가 멕시코 동굴에서 들리는 특별한 바람 소리를 들려주면 그녀가 즉흥적으로 시를 쓴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과 연결되어 있었고 꽃과 동물은 무엇이나 영혼이 있었으며 물속에는 정령들이 깃들 어 있었다. 의례의 춤, 복소리, 문헌의 치유제들, 그때 그 시절, 자구는 순조롭게 돌아고 검고 통통한 사슴 무리와 거위 떼로 가득했다. 우리는 내리는 눈에 기뻐하고 우리가 거둔 양식을 축하했다.’ 19세기 러시아의 아나키스트이자 지리학자였던 표트르 크로포트킨에게 영감받은 작품 ‘무정부 상태의 군주’에서는 늑대의 울음, 방화 녹는 소리와 함께 패티 스미스의 아름다운 글이 겹치고 ‘대멸종’에서는 패티 스미스가 기후변화로 사라져간 수많은 생물종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멸종된 종을 위한 얘기를 완성했다.

폭력과 파괴, 끝나지 않을 대화

“인간은 자신이 강력하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여기지요. 핵무기와 기술을 손에 쥐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저는 작업을 통해 자연이 경계도 모르고, 전쟁도 벌이지 않으며,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장 높은 이상을 품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일 살아 있음에 가슴이 설레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가슴이 아프다는 패티 스미스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아이들의 미래와 환경을 걱정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네가 숲을 사랑했으니, 네가 비를 사랑했으니 바람의 리마(Rima, 소설 <녹색의 장원>에 나오는 숲의 소녀), 너의 영은 날아 올랐나?” 사운드워크 컬렉티브가 전 세계의 역사적 장소를 답사하며 수집한 소리 위에 얹힌 패티 스미스의 낭송과 아름다운 시구를 듣다 보면, 그녀가 그러한 예술 세계의 궤적을 알 것 같다. 약한 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거기에 분노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다.



1 <Soundwalk Collective & Patti Smith: CORRESPONDENCES> 전시 포스터. 2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 감독의 영화 <메데이아>를 차용한 ‘메데이아’와 이탈리아 영화감독이자 시인, 사상가였던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의 생애를 재구성한 작품인 ‘파솔리니’, 라이트 테이블로 구성된 전시장. 3 피크닉 외부 모습. 4 피크닉 티셔츠를 직접 잘라 입은 패티 스미스가 해맑게 웃고 있다. 5 공기총의 폭음에 고통받는 해양 생물을 다룬 <길 잃은 자들의 절규> 영상이 아름답게 흐르는 전시장. © Courtesy of Kurimanzutto 6 원전 사고 이후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된 도시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목소리와 흔적과 기억을 드러낸 <체르노빌의 아이들> 필름 스틸 7 사운드워크 컬렉티브의 창립이자 예술가 스테판 크라스닌스키. ※1, 2, 3, 4, 7 이미지 제공, 피크닉



인류의 파괴, 지구의 파괴가 한쪽에 있다면 다른 한쪽엔 끊임없이 배풀고 창조하는 예술가와 수도자가 있다는 말을 잔잔하지만 울림 있게 전하는 그녀는 여전히 맑은 청춘인 채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말한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을 패티 스미스도 들었기를... 폭력과 파괴, 거기에 년덜머리가 나는 요즘, 우리도 패티 스미스처럼 진실로 무장한 사람과 해변을 걸으며 ‘끝나지 않을 대화’라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글 김수진(프리랜스 에디터)



지언무언(至言無言), 말이 다다를 수 없는 이강소의 세계

타데우스 로팍 서울(서울 강남동)에서 진행 중인 이강소(b.1943)의 개인전 〈煙靄(연하)로 집을 삼고, 風月(풍월)로 벼를 사마〉는 그의 삶의 철학과 예술 사이의 진동을 드러낸다. 지난해 타데우스 로팍과 이강소 작가가 소속 계약을 맺은 뒤 처음으로 연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의 회화, 드로잉, 설치, 조각, 퍼포먼스는 일관된 형식으로 수렴되기보다 순간적인 감각과 비결정적인 흐름을 통해 ‘되어가는(becoming)’ 과정 그 자체를 드러낸다.



“그림에서든, 조각에서든, 어떤 작업에서도 나의 어떤 맑은 기운과 관조자의 맑은 기운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길 소망한다.” _이강소

중심을 해체하고, 분별을 유보하는 사유

이강소의 이런 예술적 태도는 중국의 고대 철학자인 장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현대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되기(becoming)’의 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다. 장자는 〈장자〉 ‘소요유’에서 ‘진정한 자유는 분별과 목적, 인간의 의지조차 벗어난 곳에서 나타난다’고 했다. 이강소는 회화의 과정에서 우연성과 비의도성을 중시하며, 자신이 제어하지 않는 흐름을 받아들인다. ‘무제-(N)91142’(1991)에 등장하는 사슴 무리는 조선의 동양화 ‘백록도’를 연상시키지만, 애초 ‘백록도’에 담겨 있는 이상향의 의미와 고유한 서사를 담자는 않는다. 청회색조의 색감 위에 그려진 형상은 멀리서는 어슴프레해 보이고 가까이 가면 형상은 사라진다. 작가의 통제를 벗어난 간극은 오히려 관람객의 몫으로 남는다. 그의 작품 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슴, 오리, 배 등의 도상은 어떤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그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고 어땀하게 그렸다고 표현한다. ‘미완의 상태로 남은 듯 슬슬슬렁해 보이는 이미지는 장자의 무위, 들뢰즈의 생성이 말하듯 ‘되게 함에 닿아 있다. 이강소는 철학적 개념과 예술의 감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불확정성을 무기로 내면 깊숙한 곳과 무한한 감각의 세계로 이끈다. 일본의 미술평론가 미네무라 도시아키는



1 한국 현대미술 거장 이강소(b. 1943) 개인전 〈煙靄(연하)로 집을 삼고, 風月(풍월)로 벼를 사마〉 전시 모습. 타데우스 로팍 서울, 2025년 6월 13일~8월 2일. Photo by 안천호 2 이강소, ‘무제-(N)91142’, 1991, 캔버스에 유채, 198×243cm. © Lee Kang So/Lee Kang So Zagupsi 3 타데우스 로팍 서울 갤러리에서 자신의 작품 ‘팔진도’(1981/2017)를 배경으로 서 있는 이강소 작가. 소속 Photo by 고성연 ※ 1, 2 Courtesy Thaddaeus Ropac gallery, London · Paris · Salzburg · Milan · Seoul 이미지 제공, 타데우스 로팍 서울

“이강소 회화의 희귀한 매력은 이미지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지와 그것을 위협하고 무효화하려는 여러 요소와의 끝없는 갈등과 대화에서 배어나는 것”이라고 평한 바 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조각, ‘되기’의 시각화

1990년대 초부터 이강소는 점토 덩어리를 던지고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조형 실험을 했는데, 이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조각이라 칭했다. “서양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남한테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던진다’는 것은 나와 세계가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그는 1980년대 초기부터 직접적인 신체적, 시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점토, 세라믹, 청동,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실험을 시작했다. 그냥 엮히고 던지고 쌓아가는 과정, 그 순간이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형식은 ‘되기’의 사유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던지기’의 조형 개념은 ‘존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한다고 말한 들뢰즈의 개념인 ‘되기’와도 결을 같이한다. 전시장 1층에 설치된 작품 ‘팔진도’(1981/2017)는 제갈공명의 ‘팔진도’를 모티브로 삼았다. 다양한 소재와 물성의 중첩은 완결을 지양하며 시작점과 끝점을 알 수 없도록 어디로든 연결되게 만든다. “공풍이 불고 초토화되었다는 제갈공명의 ‘팔진도’ 설치는 실재(實在)입니까? 여기 놓인 돌은 실재 인가요? 현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실재입니까? 사실 (우리는) 추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마다 온갖 다른 생각을 하느라 세세히 보지도 않고 돌이라고 하죠. 그렇게 주입된 우리의 현실 세계라는 것이 환상의 세계이자 환영이며 헛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재하 여기는 이 현실 세계는 환상의 세계라는 것이다. 이강소는 “마음과 우주가 하나가 되면, 이때 나도 남도 탈각한다”라며 이런 개념은 이미 현대 과학 이전에 성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10여 년 넘게 성리학을 깊이 공부하고 있다는 그는 이번 전시명 〈煙靄(연하)로 집을 삼고, 風月(풍월)로 벼를 사마〉를 통해 자신의 사유를 표현하는 철학적 장치로 ‘성리학’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안개와 노을을 집으로 삼고, 바람과 달빛을 친구로 삼는다’는 의미의 전시 제목은 16세기 조선의 유학자 퇴계 이황이 안동 도산서원에 머무르며 자연 속 성찰과 수양을 노래한 시조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중 제2곡에 나온 구절이다. 퇴계의 자연관에 깊이 공명한다는 작가는 “저의 예술 또한 자아를 표출하거나 고정된 실체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세계의 흐름과 조응하는 행위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강소의 작업은 말 이전의 언어, 혹은 말이 다다를 수 없는 ‘지언무언(至言無言)’의 세계를 향한다. 글 천수림(미술 저널리스트)

이강소(타데우스로팍 서울)의 전시가 서울에서 동시에 개최 중이다. 터렐과 이강소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났지만 각각 MoMA PS1의 전시(터렐 간접적 연인이 닮았고, 작품에서 ‘지각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닮았다. 두 작가는 작품을 통해 ‘보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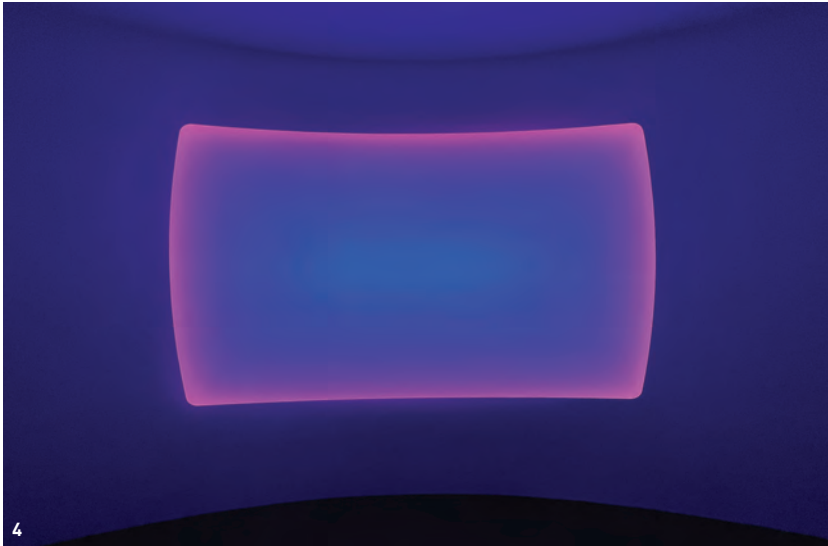
이동하고 거주하는 제임스 터렐표 빛의 공간

빛과 공간의 물질성을 다루는 지각 예술(perceptual art)에 주력해온 미국 작가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b. 1943, 로스앤젤레스)이 페이스갤러리 서울에서 열리는 개인전 〈더 리턴(The Return)〉으로 돌아왔다. 한국 관람객들에게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 산의 제임스 터렐 전시관에 상설 설치된 ‘스카이스페이스(Skyspaces)’라는 작품으로도 잘 알려진 거장이다. 이번 전시는 2008년 이래 서울에서 열리는 터렐의 첫 개인전이자 페이스갤러리 설립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특별 제작된 장소 특정적 작업 ‘웨지워크(Wedgework)’를 포함한 여러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물질로서의 빛, 경계와 틈

“우리는 빛을 늘 다른 무언가를 비추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빛 자체를 다루는 예술을 하고 싶습니다. 빛을 묘사하는 회화나 조각을 넘어서 말이죠.” 터렐은 “빛은 나의 주요한 매체이자 물질이며, 동시에 지각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페이스갤러리 3층에 설치된 장소 특정적 작업 ‘웨지워크(Wedgework)’는 어두운 방 안에 LED로 빛을 투사함으로써, 관객의 시각적 지각을 착란시키고, 빛 자체가 벽처럼, 구조처럼 존재하는 착시적 공간을 형성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웨지워크 시리즈는 빛의 물질성을 가장 밀도 있게 탐구한 작업 중 하나였다. 웨지워크는 영어로 ‘썩기’를 뜻하는 ‘wedge’에서 출발했다. 어둠 속에 경계와 틈을 만들어내는 ‘썩기’는 공간을 나누고, 균열을 만들며, 지각을 혼드는 도구로 활용된다. 전시장 벽을 더듬어 도착한 방 안에 들어서면 벽 안지 틈인지, 물체인지 환영인지 모를 모호한 형상을 마주하게 된다. 특정 각도에서 보면 단단한 벽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양한 색을 담는 그릇이 된다. 이때 빛은 지각의 한계를 노출시키며, 실제 어부에 질문을 던진다. 웨지워크 시리즈에서 빛은 비물질적인 동시에 구체적이며, 무계가 없는 동시에 공간을 구성한다. 이때 관객은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잠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 터렐은 이렇게 설명했다. “광자는 (상대론적) 질량이 있고, 빛의 파동은 하나의 형상이



기 때문에 빛은 사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빛을 인식하는 우리의 감각은 상대적이고, 이런 인식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인식이 중요하지요.”

인간과 우주의 접촉면을 구축하는 감각의 장소

“나는 빛을 본다. 그러나 빛이 나를 본다고 느낄 때, 나는 공간의 일부가 된다.” 제임스 터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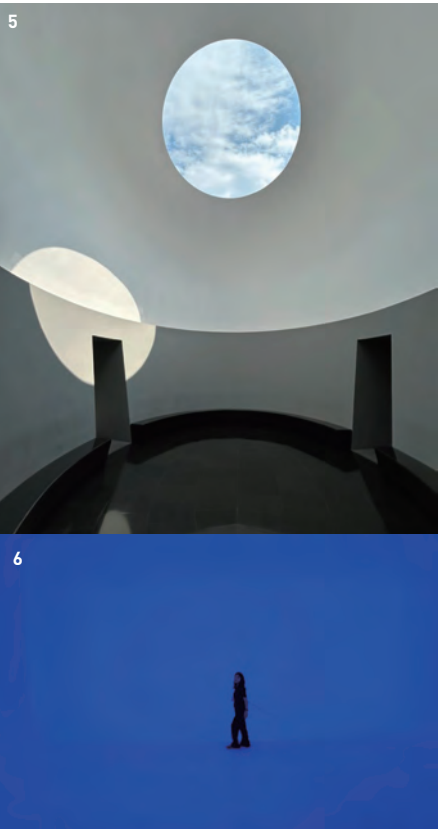
1970년대 디아 아트 파운데이션의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업 ‘로든 크레이터(Roden Crater)’(1977-)는 아직도 진행 중인 장기 프로젝트다. 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의 약 40만 년 전 화산 분화구 내부에 건설 중인 이 방대한 작업은 빛과 하늘을 육안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현재까지 완공된 6개의 공간은 특정 각도에서 내부를 관통하도록 되어 있고, 별자리의 경로를 따라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로든 크레이터’의 구축 과정을 담은 사진, 판화, 조각, 평면 작업 등 총 25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로든 크레이터 사진, 관측 공간 ‘다크스페이스 챔버(Dark Space Chamber)’ 모형 등을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는 1960년대 ‘프로젝션 피스(Projection Pieces)’ 시리즈를 시작으로 1974년부터 이어진 ‘스카이스페이스(Skyspaces)’ 시리즈, 1976년부터 전개된 ‘간즈펠드(Ganzfelds)’(2013를 비롯한 ‘글라스웍스



〈Glassworks〉’ 시리즈까지 색채, 공간, 지각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실험해왔다. “내가 관심을 가진 ‘빛을 재료로 작품을 만들고 싶었지만 달레마가 있었습니다. 빛은 분명 물리적 실체가 있지만 나무나 금속처럼 조각할 수 없잖아요. 음악가가 원하는 소리를 악기를 통해 만들어내듯, 빛을 생산하는 악기가 필요했어요.” 이 도전적인 시도는 동시대 미술의 경계를 넘어서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간 경험, 즉 하늘을 보는 감각을 환기한다. 이 지점에서 로든 크레이터는 고대의 건축 유산들과 하나의 축을 이룬다. 마추픽추, 이집트의 피라미드, 선사시대 토루 문화(Mound Builders)의 공간 구조와 깊은 형이상학적 친연성(親緣性)을 지닌다. 파라오가 별들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설계된 천체 건축인 피라미드나 인티(태양신)의 경로와 고산지대의 자연환경을 조화시킨 안데스의 마추픽추도 지상에 있으면서 하늘을 향한 계단이었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 산 터렐관에 설치된 몰입형 작품 ‘스카이스페이스’(2012, ‘간즈펠드’, ‘호라이즌 룸(Horizon Room)’(2012)도 터렐의 다른 작품처럼 일정한 리듬 속에서 변화하는 빛의 순환성을 시각화한 작품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보는 자(viewer)’임을 자각할 수 있다. 터렐관의 작품들은 관람자의 지각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마치 스크린을 치듯 프레임을 형성한다. 빛을 매체로 삼되, 고정된 이미지나 메시지는 거부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 시간의 신성성을 발견하고 하늘을 느끼며, 존재를 ‘통과하는’ 고대적 감각을 환기한다. 글 천수림(미술 저널리스트)

1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비롯된 ‘빛과 공간’ 운동을 대표하는 작가 제임스 터렐(b. 1943). 지난 6월 14일 막을 올린 전시 〈The Return〉이 페이스갤러리 서울에서 진행 중이다(9월 29일까지). Photo by 고성연 2 미국 애리조나에서 진행 중인 작가의 대표적인 장기 프로젝트인 ‘로든 크레이터’의 구축 과정을 담은 사진, 판화, 드로잉 등 평면 작업도 〈The Return〉전에서 소개되고 있다. 3 James Turrell, ‘Marazion, Circular Glass’, 2021, LED light, Etched glass and shallow space, 62-inch diameter, 런타임: 2.5시간. 4 James Turrell, ‘Imagining, Wide Rectangular Curved Glass’, 2021, LED light, Etched glass and shallow space, 런타임: 2.5 시간. 5 ‘스카이스페이스(Skyspace)’ 전시 모습. TWILIGHT RESPLENDENCE, 2012, 뮤지엄 산 제임스터렐 전시관. Photo by 천수림 6 ‘간즈펠드(Ganzfeld)’ 전시 모습. AMDO, 2013, 뮤지엄 산, 제임스터렐 전시관. Photo by 천수림 ※ 3, 4 Photo by 고성연 © James Turrell, Courtesy Pace Gallery





아만조에(Amanzoe) in 그리스

올리브나무 벗 삼아, 깊고 푸른 에게해를 바라보다

아만(Aman)이라는 리조트를 온전히 누리는 경험은 자연스럽게 문화적 지평을 넓히는 연결 고리가 되기도 한다. 숨겨진 천혜의 자연 속 은신처를 짓듯 유독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아만 특유의 남다른 '위치 선정'으로 일단 지리적인 호기심부터 자아낸다. 이제는 뉴욕, 일본, 방콕 같은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도 아만을 접할 수 있지만, 원래는 1988년 태국 푸켓에 처음 문을 연 이래 마치 지구촌을 아우르는 탐험에 나서듯 낯선 지명에, 인적도 드문 땅만을 무대로 삼아 이색적인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온 독보적인 브랜드가 아니던가. 그리스 남동쪽 펠로폰네소스반도의 해안 도시 포르토 헬리(Porto Heli)에 드넓게 자리한 아만조에(Amanzoe)는 이 같은 아만의 고유한 정수를 잘 담아낸 유럽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다. 질푸른 심연이 자국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 요새에서 평화의 햇불을 들고 서 있는 우아한 그리스 여신 같은 자태를 뽐내는데, 운이 닿으면 이곳의 청정한 하늘을 빛의 조화로 담아내는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몰입형 작품을 오롯이 체험하는 기회를 마주할 수 있다.



"나는 생각했다. 죽기 전에 에게해를 여행할 행운을 누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니코스 카잔차키스

‘언덕의 정신’을 잠시나마 벗하러 가는 여정

그리스 아테네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2시간 30분 남짓 소요되는 아만조에(Amanzoe)로의 여정. 장거리 비행을 한 직후라면 아마도 그 자체로 다소 부담스러운 이동일 수도 있다. 헬리콥터로는 턱턱하게 30분 정도면 가뿐히 오간다고 하는데(실제로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초행자라면 자동차 여행도 꽤 괜찮다. 필자의 경우에는 아예 공항 근처에서 1박을 한 터라 기전백진한 상태가 아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곱디고운 입자로 황홀하게 부서지는 햇살 속 빛나는 올리브나무의 세레나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차창 밖 고마운 풍경 덕분에이었던 것 같다. 아침에 떠나 중간에 유적지를 쉬엄쉬엄 둘러 가는 드라이브를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 펠로폰네소스 지역으로 가는 길 곳곳에 그리스 문명의 찬란한 잔재가 숨 쉬고 있으니 그저 눈으로만 지나칠 이유가 없다. 청록에 사파이어를 뿌려놓은 듯한 색상만으로도 시선을 매혹하는 코린토스 운하라든지 그리스의 첫 수도인 아담한 항구도시 나플리오 등을 기억해둘 법하다.

햇빛이 올리브색처럼 느껴질 만큼 녹음 짙은 경치를 한껏 감상하면서 현지인들이 아침으로 즐긴

다는 따끈한 치즈 빵으로 배를 채우니 살짝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갑자기 사방이 시원해진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을 배경으로 남빛 바다가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다. '360도 파노라마 뷰' 정도의 단출한 수식어로는 표현해낼 수 없는 탁 트인 개방감을 품은 바다의 위엄이란! 이곳에서 바라보는 에게해의 자태는 (결국 남쪽으로는 연결되는) 지중해와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게 다가왔다. 지중해는 끝도 없는 수평선을 품고 상대적으로 좀 더 온유한 파장을 멀리 멀리 보내는 망망한 물의 대지' 같다면, 에게해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닌 채 인간의 온갖 사연을 '정중동의 차분한 기상으로 달래는 '신비롭고 거대한 연못' 같다고나 할까. 특히 산과 절벽이 많은 그리스의 특성상 바다를 '다어보는' 기백 어린 전망은, 해사한 다정함이 뻗 듯한 올리브나무 숲과는 다른 감성으로 다가온다. 그야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조미다. 저도 모르게 연신 탄성을 내뿜자, 유쾌한 성격의 기사는 '자실 우리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게 흔한 풍경이긴 해요'라며 자랑 섞인 표정으로 싱긋 웃는다. 아름다운 풍경과 보석 같은 섬들, 분노를 유발하는 정치 등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윽고 아만조에가 2012년부터 단단히 터를 잡고 있는 아르폴리스만의 포르토 헬리(Port Heli)에 당도했다. 맑은 푸른 해안을 밑에 두고, 경사를 타고 올라가면서 살짝 군도형 건축처럼 독재들이 흠여져 있고, 오르막 꼭대기에 레스토랑, 상점, 스카 등의 주요 시설이 자리한, 그 자체로 작은 '리조트 마을'이라고 칭해야 어울리는 풍경이다.



아크로폴리스의 웅장한 세련미와 자연의 정기를 품은 '신성한 고요'

신들의 연막이라 불리는, 그리스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도시마다 내부 요새 같은 역할을 했다. 당연히 방어막 역할을 하는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면 도시가 훤히 보인다. 비탈길 위에 자리한 아만조에는 이를 은근히 닮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건축가 에드 터틀(Ed Tuttle)이 설계한 이 고아한 리조트의 정장부는 '올리브 그린'으로 물든 자연과 끝없이 열려 있는 에게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파노라믹 뷰'를 뽐낸다. 일렬로 세운 둥근 곡선의 긴 돌기둥들이 여기저기에 정연한 배열을 이루고, 시원한 화랑이 고전적인 조화를 자아내는 건축적 풍경을 대하니, 어쩌서 아만조에를 묘사할 때 '아크로폴리스'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붙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기둥들 사이로 분수가 흐르고, 리셉션 공간, 부티크 건물, 스파와 요가 파빌리온, 레스토랑 등이 널찍하게 펼쳐져 있으며, 그 중심에는 녹색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25m 길이의 아름다운 풀이 있는데, 바다를 은은하게 감싸다 사라져버리는 일몰의 낭만을 벗하거기에 최적의 장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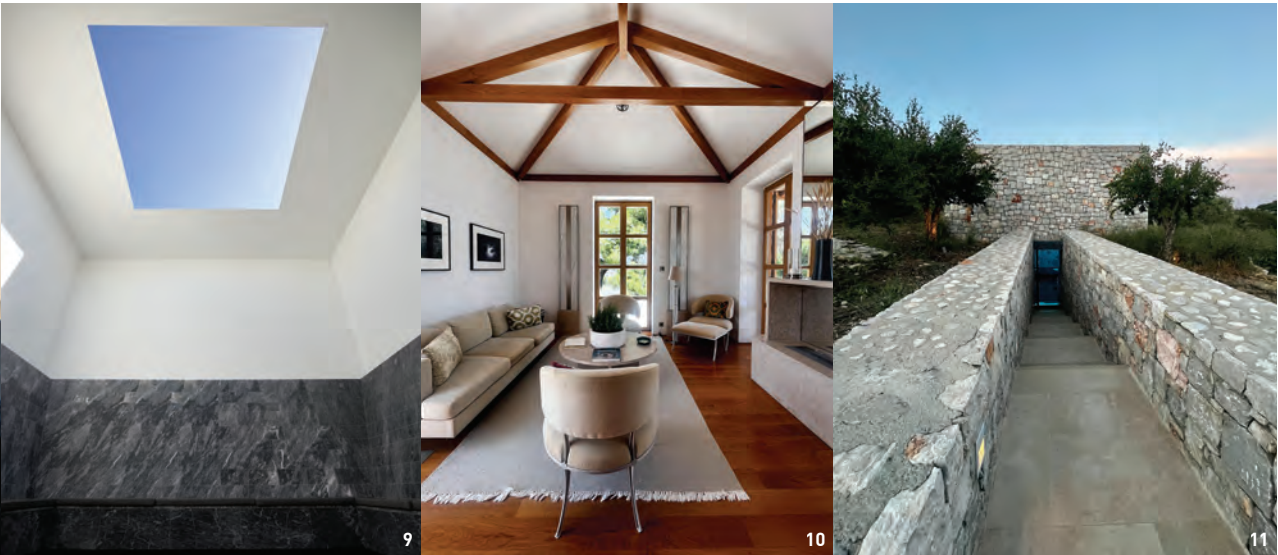
전부 독재로 이뤄져 있는 아만조에의 객실은 크게 파빌리온(38채)과 빌라(12채), 비치 카바나(4채)로 나뉜다. 숙소가 아래쪽에 위치할수록 해변과 가까워지고, 경사를 타고 올라갈수록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제각각 다른 전망을 갖추게 된다. 소담스러운 정원과 전용 풀을 갖춘 파빌리온이나 빌라의 디자인은 안정감 있으면서도 내, 외부의 경계가 물 흐르듯 유연하고 열린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언뜻 봐도 위용이 대단한, 9개의 객실을 지닌 빌라도 있지만 세계 곳곳에 있는 36개 아만 리조트 중에서 아만조에만이 내세우는 독특한 경험은 '제임스 터렐 빌라로 알려진 No. 31 빌라에서 만 누릴 수 있다. '빛의 연금술사'로 일컬어지는 터렐이 선사하는 몰입적 체험 작품으로, 2017년 여름 No. 31 빌라의 부지 내에 별도로 마련된 6×6m 정육면체 공간에 영구 설치된 작업인 '스카이 플레인(Sky Plain)'이다. 뿔러 있는 천장의 사다리꼴 프레임은 캔버스처럼 펠로폰네소스반도의 하늘을 담아내지만 일몰과 일출 시간대에는 다채로운 색의 조합을 변화무쌍하게 펼쳐낸다. 사다리꼴과 그 테두리 바깥의 색 배치가 청록-보라, 파랑-다홍, 스카이블루-핑크 등으로 시시각각 바뀌는 '빛의 양상'들은 무심코 바라보노라면 천진난만한 동심을 이끌어내는, 참 단순하면서도 신비로운 작업이다. 이 빌라를 예약하면 당연히 이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공실일 때는 다른 손님들도 다이나밍과 결들인 스카이 플레인 체험을 예약할 수 있다. 이미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던 시기에 아만조에를 찾은 필자는 새벽녘은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일몰 시간대에는 오롯이 1시간가량을 색 팔레트의 마법에 스며들었다.

'평화로운 삶'이란 뜻을 지닌 아만조에는 이렇듯 명상적인 터렐의 작업도 품고 있지만, '느슨한' 웰니스 리트릿으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꾸리고 있다. 소를리에와 함께하



는 와인 테이스팅, 그리스와 아시아의 전통적 노하우를 녹인 스카 프로그램, 천혜의 자연을 전망으로 삼은 신전 같은 파빌리온에서 하는 요가, 필라테스 세션, 그리고 테니스(아만의 글로벌 웰니스 앰배서더인 '테니스 전설' 마리아 샤라포바가 프로그램을 이끈 적도 있다)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수상 스포츠와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비치 클럽'도 포진하고 있는데, 정장부에서 클럽에 있는 해변까지의 오르막-내리막길을 '버기로 이동하는 데 10분 정도 소요된다. 상당수 고객은 해변 인근에 있는 작은 섬(거의 도보로만 다니는 '힐링' 그 자체인 작은 섬마을도 있다)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미 포르투 헬리까지의 마나면 여정 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써버린 필자는 나만의 작은 머그를 만들어보는 '세라믹 스튜디오' 세션을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닌 도자 스페셜리스트와 함께했는데, 손재주가 영 없음에도 말랑말랑한 흙의 촉감을 느끼면서 진행하는 조형 작업은 의외의 힐링을 선사했다. 아마도 무더운 여름이 막바지에 이르러 그리스의 추억이 얼어질 무렵이면, 흙이 제대로 마르고 (선생님의 손길로 더해진) 윤을 살짝 머금은 '아만조에 머그'를 곱게 썬 소포가 도착할 것이다.

글 고성연(그리스 현지 취재)



1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이어주는 그리스 코린토스 운하, 2 포르토 헬리(Porto Heli)에 드넓게 자리한 아만조에는 신전 같은 느낌의 고전적 건축과 미니멀리즘 감성을 적재적소에 섞은 듯한 스타일로 유명한 리조트다. 3 아만조에의 메인 풀. 4 언덕 위 요새처럼 중심부 시설이 펼쳐져 있고, 그 밑으로 다양한 객실이 자리한 아만조에. 5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만조에의 라이브러리. 6 낮과 밤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아만조에의 바. 7 아만의 자체 웰니스 브랜드와 패션 상품도 갖추고 있는 아만조에 부티크. 8 20m 온수 풀과 테라스, 6개 침실 등을 갖춘 빌라 No. 15의 외관. 9, 11 아만조에의 빌라 No. 31에는 미국 현대미술 거장 제임스 터렐의 작품 '스카이 플레인(Sky Plain)'이 영구 설치된 별도 공간을 두고 있다. 10 제임스 터렐 빌라로 불리는 빌라 No. 31의 내부. 12 아만조에는 시원하게 트인 전망을 지닌 요가 파빌리온을 비롯해 명상, 테니스, 필라테스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웰니스 리트릿'으로 유명하다. * 1, 7, 10, 11 Photo by 고성연 * 2-6, 8, 9, 12 이미지 제공_Aman * 홈페이지 www.aman.com/resorts/amanzoe





피에르 위그, ASI(초지능) 시대의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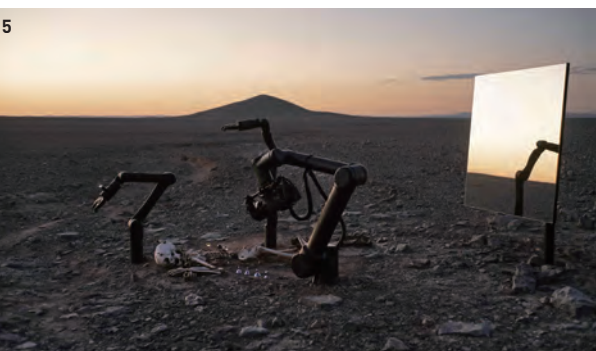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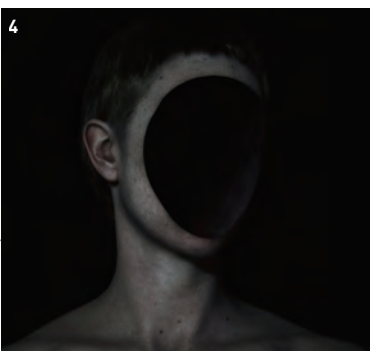
당신은 아직도 예술이 인간만의 이야기라고 믿는가?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의 전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필자는 주저 없이 발걸음을 옮긴다. 이유는 분명하다. 현대미술계에서 그의 작업은 보기 드문 미적 밀도를 지니서다. '시각적 통찰', '시적 리듬', '비판적 사유'와 '생태적 연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예술은 그리 흔치 않다. 미술 애호가라면 이 네 가지 중 단 하나를 실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이번 리움미술관 전시 <리미널 Liminal>(2025. 2. 27~7.6)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해졌다. 바로 'AI에서 비롯된 감응적 체험'이다. 이 전시는 곧 막을 내리지만 '생각지 못한 뭔가 출현할 수 있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는 전시 제목처럼 자연과 문화, 기술을 둘러싼 '열린 가능성'을 폭넓고도 심도 있게 사유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계기를 남겼다.

필자는 2015년께부터 AI가 예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 있게 추적해왔다. AI 기술만 드러내는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프랑스 현대미술가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처럼 기술을 예술에 녹여낸 작가는 드물었다. 그는 또한 다가를 AGI(일반 인공지능)와 ASI(초지능)의 시대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인식하며, 그 문턱에서 '예술의 본질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경우 예술가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집요하게 묻는다. 위그의 작품에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기능이 아닌 존재'로 등장하며, 생각하며 말하고, 반응하고, 생성을 잉태하고, 무엇보다 느낀다. 이는 지난날 초 보테가 베타의 후원으로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도로테아 폰 한텔만 교수의 강연에서 다했듯 인류세(Anthropocene)와 우주론(Cosmology) 속 인간, 기계, 존재의 경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2016년 작품인 '암세포 변환기(Cancer Variator)'에서 위그는 살아 있는 암세포의 분열을 시각화하며, AI를 통해 생명이라는 비가시적 질서를 가시화했다. 2018년 'U움벨트-안리(UUmwelt - Annlee)'에서는 관람자의 뇌파가 이미지가 되고, AI는 이를 실시간으로 조향하고 재구성했다. 같은 해 발표된 '오프스프링(Offspring)'에서는 에릭 사티의 음악을 AI가 학습하고, 공간의 공기, 빛, 안개가 관람자의 존재에 따라 호흡하듯 반응했다. 2024년 작 '이디엄(Idiom)'에서는 인간 언어 이전의 원초적 소리가 AI를 통해 탄생했고, '카마타(Camata)'에서는 AI가 사막에서 수집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재편집하며 죽음 이후를 서사화했다. 그리고 이번 '리미널' 전시에서 선보인 동명의 작품 '리미널'에 이르러, AI는 얼굴 없는 존재로서 공기, 먼지, 온도, 몸짓 등에 반응하며 자기 자신을 조합해나간다. 이렇게 작품은 인간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와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위그는 창조자의 자리를 AI에 내주었고, 자신은 그저 '조건을 설정하는 자(condition setter)'로 남는다. 그는 더 이상 서사를 구축하거나 형식을 완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들이 충돌하고 공진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설계한다. 인간, 기계, 식물, 데이터, 곤충, 미생물, 바람, 빛, 시간... 그 모두가 작품의 구성 요소이자 주제로 기능한다. 전시장은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반응하고 진화한다. 이러한 작업은 인류세, 우주론이 요구하는 새로운 예술적 존재론에 대한 위그의 응

답이자 예술적 실험이다. 그는 인간 중심의 미학을 해체하고, 세계를 공진적 행위자들(co-resonating agents)의 장으로 재구성한다. 이번 '리미널'전에는 AI 기술의 과시도 없고, 설명의 강요도 없다. 대신 그것은 배경의 리듬처럼 은밀하게, 그러나 결정적인 방식으로 작품 내부에 침투해 있다. AI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작품의 주제로 작동할 만큼 깊이 관여되어 있다. 그는 기술이 예술을 압도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도, 예술이 기술을 방관하거나 낭만화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한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공상적 미래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든 AI 시대의 감각을 해부하고, 그 미세한 징후를 예감하는 행위다. 그러나 이처럼 정교하게 결합된 AI와 예술이 관람자에게도 같은 깊이로 전달되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작품은 겉으로 보기엔 신비롭고 난해한 이미지와 소리로 가득하지만, 그 이면의 기술적·개념적 작동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리미널'에서는 영상 속 얼굴 없는 존재가 관람자의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반응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감상한다면 단지 과기스러운 몽환적 이미지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어두운 공간 안에서 관객의 위치에 따라 영상이 즉각 반응하는 장면을 육안으로 포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카마타'의 영상도, 그것이 실시간 데이터에 따라 편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저 하나의 종말론적 영상 서사처럼 다가가 수 있다. 이 디엄의 금빛 가면을 쓴 인물 역시 관객과 직접 교감하지만, 그의 말이 AI가 생성한 새로운 언어라는 점은 설명 없이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결국 이 전시에서 'AI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무엇인가를 느끼긴 하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 평론에서도 '작품에 기술과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 심오함은 설명 없는 다가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각 작품이 엄청난 의미를 담은 듯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관객의 체험과 해석의 층위에 안착되지 못할 때, 특히 기술의 진화가 인식의 속도를 앞지를 경우 드러나는 인지적 단극의 한계이기도 하다. 글 심은록(SIM Eunlog, AI영화감독, 미술비평가)

1 4개월 넘는 리움미술관에서의 '리미널' 전시 여정에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긴 피에르 위그, 베너스에 있는 훈타 델라 도가나(피노 컬렉션)와 협력한 전시다. Photo by Ola Rindal 이미지 제공, 리움미술관 2 센서가 달린 금빛 LED 마스크를 통해 알 수 없는 생성형 언어를 말하는 '이디엄(Idiom)'과 멕시코의 수중 동굴을 리모텔링해 눈이 먼 테트라 물고기와 사력을 지닌 테트라가 공존하는 수족관 풍경을 보여주는 '주기적 델레마(엘 디아 델 로호)'. Photo by 고정현 3 '리미널', 2025, 전시 모습, 리움미술관 제공, 사진 레스(LESS), 4 '리미널(Liminal)', 2024-진행 중, 실시간 시뮬레이션, 사운드, 센서, 스틸 이미지, 5 '카마타(Camata)', 2024-진행 중, 기계 학습으로 구동되는 로보틱스, 자기 생성 영상, 실시간 인공지능 편집, 사운드, 센서, 스틸 이미지, ※ 4, 5 작가, 갤러리 상탈 쿠루젤, 메리안 굿먼 갤러리, 하우저 & 위스, 예스터 쉬머, 타로 나수 제공



1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외관. Courtesy by Seoul Museum of Art, Photo by Jang Junho 2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개관 포스터, 3 <스토리지 스토리> 전시에 참여한 정지현 작가의 'Cast Capture_SP#02-4622'(2025), 4 <광채光彩: 시작의 순간들>에 참여한 박영숙 작가의 'NEW MASK'(1963/2021), 젤라틴 실버 프린트, 44×29.8cm,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소장, 5 이형록 작가의 '구성'(1956), 젤라틴 실버 프린트, 24.46×17.62cm,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소장, 6 <스토리지 스토리> 전시 모습. Photo by Image Zoom, courtesy of Photo SeMA

라이언 맥킨리의 사진집은 자유로운 그의 영혼이 담긴 것 같아 살 수밖에 없고, 토드 셀비의 사진집은 그가 만난 험한 사람들이 굶주려서 사야 하고, 낸 굴딘의 사진집은 그녀의 저항과 투쟁 정신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또 사고 싶어진다. 사진은 가장 유연하고 대중적인 매체지만 웬지 작은 현대 예술품을 소장하는 느낌이 들어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사진을 멋스럽게 찍는 요즘, 사진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이 오갈 수 있는 사진 미술관의 부재는 더 크게 느껴진다. 특히 한국 리얼리즘 사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정립할 공간이 없음을 한번이 느낀다. 지난 1백여 년의 사진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한국에서 사진은 언제부터 예술로 분류되었을까? 이러한 아쉬움을 느꼈던 만큼 사진 예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등장이 반갑게 와닿는다. 2015년 건립 준비를 시작해 10년 만에 문을 연 이곳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국내 최초 공립 사진 특화 미술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한국 사진 예술의 아카이빙과 보존, 연구, 교육, 전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한정희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장은 공립이기에 가져갈 수 있는 공공성과 지속성이 강점이라 말하며 오직 사진을 위한 미술관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특히 1백40년이 넘는 한국 사진사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을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속할 계획이다.

사진을 예술로 끌어올린 선구자들의 풍경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1920~90년대에 제작된 한국 사진의 결실을 비롯해 관련 자료 2만여 점을 수집하고 26명의 사진가 컬렉션을 만들었다. 그중 한국 예술 사진사에서 중요한 계기를 만든 정해

창동에서 시작하는 한국사진 예술 기행

동네 미술관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진을 위한 플랫폼이 아쉬워하던 차에 곡선형 외관이 마치 거대한 카메라 조리개처럼 보이는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이 도봉구 창동에 개관했다. 오스트리아 건축가 블라덴 아드리치(아드리크 아키텍투어)와 한국 건축가 윤근주(일구구공도사진건축)의 협업으로 완성한 이 미술관은 빛과 시간을 포착하는 사진의 본질을 아름다운 건축물에 담았다. 10m 높이의 로비부터 포토라이브러리, 교육실, 암실, 포토북카페까지 갖춘 내부는 사진 프레임의 조형미를 품고 있다. 새로운 건축 투어와 사진 여행을 하고 싶다면, 서울아레나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오픈과 함께 새로운 예술 기지로 주목받는 창동에 있는 사진미술관을 기억해도 좋겠다.



창, 임석제, 이형록, 조현두, 박영숙 작가의 작품을 조명하는 전시 <광채光彩: 시작의 순간들>(10월 12일까지)을 개관 특별전으로 선보이고 있다(전시 작품 1백57점 중 3점을 빼고 전부 미술관 소장품). 한정희 관장은 "기존 사진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형태를 소개하고 싶었다"고 전했는데, 그녀의 말처럼 이들의 작업은 각각 다른 시대와 정치, 사회를 위트 있게 촬영해 사진을 예술로 끌어올린 선구자인 셈이다. 한국전쟁 전후의 풍경과 삶을 담아낸 이형록의 리얼리즘 사진, 1960년대 초기부터 여성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당시 여성주의적 시각을 사진에 담은 박영숙 작가의 사진은 마치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한 옛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또 하나의 개관 특별전 <스토리지 스토리>(10월 12일까지) 전시명은 미술관이 위치한 창동의 지명에서 출발했는데, 전통적으로 곡식을 저장하던 '창(창고)의 의미를 살려 미술관의 수장고로 개념을 확장했다는 뜻을 담았다. 창동이라는 지명의 유래와 역사를 되살린 주용성 작가의 작품들은 '창동'을 더 흥미롭게 느끼게 한다. "조선시대 녹천 대감이 마을에 은덕을 많이 베풀어 제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녹천 대감 치성제는 꼭 소고기로 지내. 제사가 끝나면 마을 종을 쳐서 국과 고기를 각자 가져온 댁비에 담아주었어. 위에 녹천 대감 가묘가 있는데, 그 가묘를 덮는 새끼 꼬는 걸 '영 엮는다고' 해. 새끼는 꼭 외로 꼬아야 해. 지금은 마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때가 되면 두 사람이 와서 영을 엮어, 이제 다들 나이가 많아져서,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은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창동 녹천마을 주민들이 전하는 이야기와 풍경을 촬영한 사진은 창동을 신화적으로 느껴지게 한다. 길 어디에서나 북한산과 도봉산을 바라볼 수 있고 여전히 낭만이 골목 곳곳에 숨어 있는 창동은 1천 년 넘은 은평나루, 성곽길, 아름다운 한옥 도서관 등 문화 예술적으로 돌아볼 곳도 많은 동네다. <스토리지 스토리>는 재료, 기록, 정보를 뛰어넘는 사진의 예술적, 미래적 역할에도 주목한다. 지난 3년간 사진미술관 건립 과정을 촬영해 3D로 재구성한 정지현 작가의 작업, 수장고 속 사진을 복사 촬영하고 다시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사진을 경쾌한 색감의 회화처럼 보여주는 정멜렌 작가의 작업, 건립 과정에서 수집한 소장품 이미지를 AI가 데이터로 학습한 뒤 복원한 오주영 작가의 작업은 AI 시대에 사진 이미지를 어떻게 감상할까?라는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기도 한다. 대신 AI가 사진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서정적으로 답변해주는 데 놀라지 말기를. 글 김수진 프리랜스 에디터)





1 캐서린 번하드의 'Pink Panther + Scotch Tape + Green Plantains'(2019),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304.8×609.6cm.
2 캐서린 번하드가 자신의 개인전이 열리는 예술의전당을 찾았다. 3 캐서린 번하드의 'Happiness'(2018),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182.9×152.4cm.
4 '쿠키 몬스터' 대형 작품 2점이 걸려 있는 전시장. (좌) 'Snack'(2024),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243.8×304.8cm.
(우) 'Over Indulge'(2024),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243.8×304.8cm.
※ 1, 3 © Katherine Bernhardt. Courtesy the artist & David Zwirner ※ 2, 4 이미지 제공, UNC



겁내지 않고, 멈추지 않는 ‘행동’으로서의 예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영감을 얻고,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는 미국 현대미술 작가 캐서린 번하드(Katherine Bernhardt, 1975~)의 국내 첫 대규모 전시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9월 28일까지). 초기작 '슈퍼모델 시리즈'부터 대형 신작까지 총 1백40점이 걸려 있고,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번하드의 작업실까지 실물로 재현한 전시다. 오는 10월부터는 강릉 시립 솔올미술관에서 전시가 펼쳐지고(6m 높이의 '쿠키 몬스터' 신작을 선보인다) 내년에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현대미술관인 할레 쾰프에 쿠스타이에르마크(HALLE FÜR KUNST Steiermark)에서 전시가 예정돼 있는 등 '러브콜'이 많은 작가다. 글로벌 아트 신에서 돋보이지만 여전히 언더그라운드 신에 같은 면모가 있는 캐서린 번하드를 만나 예술의 즐거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림을 가리켜 '논문 같은 것'이라고 하는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예술계의 이슈를 익히 알고 전시를 즐겨 보거나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현대미술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언뜻 보면 낙서를 해놓은 것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이 트윌블라의 작품을 쉬이 해석하기 힘든 것처럼, 미국 현대미술가 캐서린 번하드는 한 인터뷰에서 '최고의 화가는 예술을 자성화하지 않는다. 단지 물건을 만드는 것이 다'라는 말을 할 만큼 그림을 무겁게 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다. "저는 회화를 '만든다(making)'라고 말해요. 그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붓을 드는 손, 색을 고르는 눈, 캔버스 위를 달리는 몸. 지성 화라는 건 종종 예술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손이 먼저, 해석은 나중에예요."

파카츄, 이티(E.T) 같은 캐릭터부터 나이키, 크록스, 스와치까지. 캐서린 번하드는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브랜드를 자유롭게 그린다. 특히 1980~90년대 대중문화 아이콘을 대형 캔버스에 화려한 색채로 강렬하게 담아낸다. 이 시기의 대중문화는 자신의 DNA 같다고 그녀는 말한다. "당시의 컬러 팔레트, 기묘하게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아이콘(영크 팬트, 심슨, 쿠키 몬스터 같은 캐릭터)이 저에게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재료가 된 거예요. 제 그림은 어쩌면 그 시절의 기억이 계속 재생산되는 방식일지도 몰라요." 그중 이타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콘이다. 어린 시절 (E.T)를 영화관에서 스무 번 정도나 봤을 정도로 좋아했다고, "이타는 제 어린 시절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소외되고 다른 세계에 떨어져 혼자 있는 존재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친구잖아요. 여러 캐릭터를 캔버스에 담지만 이타만큼 좋아하는 캐릭터는 없어요." 요즘에는 '쿠키 몬스터'를 자주 그리는데, 그 이유는 먹고 싶으면 먹고, 모든 게 너무 솔직한 캐릭터여서란다. 담배 역시 단골 소재. 그녀에게 담배는 '이미지로서의 상징'이다. 누군가의 입가에 매달린 담배는 시대의 분위기, 저항, 스타일, 때로는 허무까지 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녀의 수식어로 늘 따라붙을 만큼 자주 등장하는 '핑크 팬터다'. "핑크 팬터는 저의 분신 같은 존재예요. 유쾌하고, 시니컬하고, 모호하고,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느낌. 계속 그러도 질리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도 괜찮아, 다양한 색과 형태를 보는 것에서 오는 사유

다양한 사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수집광이었던 모친의 영향이다. 물건을 모으는 데 '진심'이었던 어머니 덕에 집 안이 온갖 종류의 물건으로 가득했다고, "신문, 아이스크림 틀, 오래된 골동품까지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서 다양한 형태와 색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보

는 감각 자체가 어떤 사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녀의 작품은 다양한 색과 형태를 감상하는 데서 오는 본질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무겁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과 웃음 속에서 '그런데 왜 이걸 그리고 있지?'라는 질문이 스며들다면, 거기서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돼요. 사람들이 제 그림을 통해 자기만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내길 바라요. 그게 사유예요.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느끼는 것." 캐서린 번하드의 시작점은 항상 '그냥 좋아서'다. 색이 맘에 들어서, 형태가 맘에 들어서, 어떤 사물이 좋아서... 그래서 그녀는 예술을 '의미'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본능으로 남겨두는 것이 예술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새로운 예술은 기술이나 형식의 문제라기보다 그 예술이 얼마나 솔직하냐는 데 있다고 믿는다.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회화, 인터랙티브 설치 같은 것은 모두 흥미롭지만, 결국 거기서 진짜 '이건 나다'라는 게 느껴져야 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버려진 광고자에 그런 낙서 한 줄이 회화보다 더 강렬할 수도 있죠. 새로운 예술은 겁내지 않는 예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 자체예요. 그 에너지로 '멈추지 않는 것'이요." 세상의 시선이 어떻게 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도 괜찮아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술가로서 그녀가 지닌 사명감이다. 스스로도 자신이 어디로 팔지 잘 모를렸다고 말하는 캐서린 번하드는 그렇게 그림 소재를 부단히 찾고, 계속 그러나갈 뿐이다. 글 김진진프린스 에디터



〈사랑/마법 ♥/MABEOB M/MAGIE〉_F1963

시각 언어로 시대를 조각하는 M/M(Paris)

1992년 파리, 미카엘 암잘라그(Michaël Amzalag)와 마티아스 오귀스티니아크(Mathias Augustyniak)가 M/M(Paris)를 창립했을 때만 해도 그래픽디자인은 예술의 하위 범주 또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상업적 서비스라는 인식이 짙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지금, 부산 망미동의 복합 문화 공간 F1963에서 진행 중인 M/M(Paris)의 전시 〈사랑/마법 ♥/MABEOB M/MAGIE〉은 그동안 디자인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들 자신이 어떻게 한 시대의 문화 지평도를 바꾼 창조자로 자리매김했는지 보여준다. 2017년 겨울에 열린 서울 전시 이후 7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이들의 첫 부산 전시다. 오는 9월 14일까지.



1 부산 F1963 전시장에서 타로 카드 오브제와 포스터를 배경으로 서 있는 미카엘 암잘라그와 마티아스 오귀스티니아크.
2 M/M(Paris)와 조나단 앤더슨이 협업해 리뉴얼 작업으로 완성한 로베에(LOEWE)의 로고타입과 아나그램. 3 일본 패션 디자이너 야마모토 요지와 협업해 만든 1998 S/S 캠페인 포스터, Yohji Yamamoto Spring/Summer 1998 Photography by Inez van Lamsweerde & Vinoodh Matadin. Set design by M/M(Paris). Model, Maggie Rizer. 4 부산 F1963 전시장 바닥에 깔려 있는 홀로그램 카드는 작가들이 부산 바다 수면에서 영감을 받았다. 5 고려재깅의 심벌 '코끼리'와 'The Agent'가 합쳐진 'ElephAgent'가 전시장 중심에 서 있다. 6 전시장 입구에는 알파벳 'BUSAN'을 거대한 스티플로 설치했다.
※ 1~6 이미지 © M/M(Paris) ※ 1, 4~6 이미지 제공, F1963

M/M(Paris)의 작업은 어떻게 한 시대의 문화를 담아낼까.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가 그 답을 제시하는 듯하다. 부산 F1963의 석천홀 전시장에 놓인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는 단순한 작품의 나열이 아닌, 이들이 그동안 구축해온 방대한 시각언어의 체계로 안내하는 표지판처럼 다가온다. 그 여정은 30여 년 전 파리의 국립고등장식미술학교에서 시작되었다. 학장 시절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스스로를 '작가'라 칭하며, 디자인을 용역이 아닌, 예술과 같은 창작 활동으로 대하는 태도를 일찌감치 정립했다.

하나의 언어, 무수한 세계

M/M(Paris)의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는 끊임없는 소통에 있다. 클라이언트의 내면에 파고들어 세상에 없던 고유의 시각언어를 창조하는 것. 이들의 협업은 단순한 디자인 제안을 넘어, 브랜드와 아티스트, 관객이 함께 의미를 만들어가는 지적인 과정으로 거듭난다. 대표작으로 아이슬란드의 싱어송라이터 비외르크(Björk)와의 전설적인 협업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앨범 커버 디자인을 넘어, 수개월에 걸쳐 비외르크와 대화를 나누며 아티스트의 내면과 음악적 실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했다. 그 결과, 백조의 형상을 섬세하게 그려낸 앨범 〈Vespertine〉의 아트워크가 탄생했음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10년 뒤 세계 최초의 '애플 앨범'으로 불린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Biophilia' (2011)에 이르러서는 음악과 자연, 기술을 융합하는 복잡한 시각 체계를 구축하며 비외르크의 세계관을 함께 빛냈다. 음악 앨범이라는 개념을 순수 미술, 디지털 기술, 퍼포먼스의 영역까지 확장시킨, 경계 없는 M/M(Paris)의 작업 성향을 잘 보여준 사례다. 패션계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압도적이다. 이 듀오는 2000년대 초, 당시 패션계에 호평을 받은 니콜라 게스키에르(Nicolas Ghesquière) 시절의 발렌시아가, 그리고 서로의 팬을 자처했던 로에베의 조나단 앤더슨과 함께하며 옷에 구체적인 서사를 불어넣었다. 특히 조나단 앤더슨이 부임한 직후인 2014년, 로에베의 로고타입과 아나그램에서 곡선을 최대한 덜어내고, 단순하고 날렵한 형태로 재구성한 작업은 다소 올드한 전통 가죽 하우스였던 브랜드의 이미지를 지적인 장인 정신을 갖춘 럭셔리 브랜드로 단숨에 바꾸어놓았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리적인 런웨이가 불가능했던 2020~21년, 로에베와 함께 선보인 쇼-인-어-박스(Show-in-a-Box)는 창의성의 절정이었다. 이들은 패션쇼를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는 대신, 쇼의 모든 영감과 소재, 사운드까지 담아낸 아카이브 박스를 관객에게 보냈다. 이러한 시도는 실물 크기의 모델 포스터와 벽지용 브러시, 가위 등을 보내 관객이 자신의 공간을 직접 전시장으로 만들게 한 쇼 온 어 월(Show on a Wall) 프로젝트로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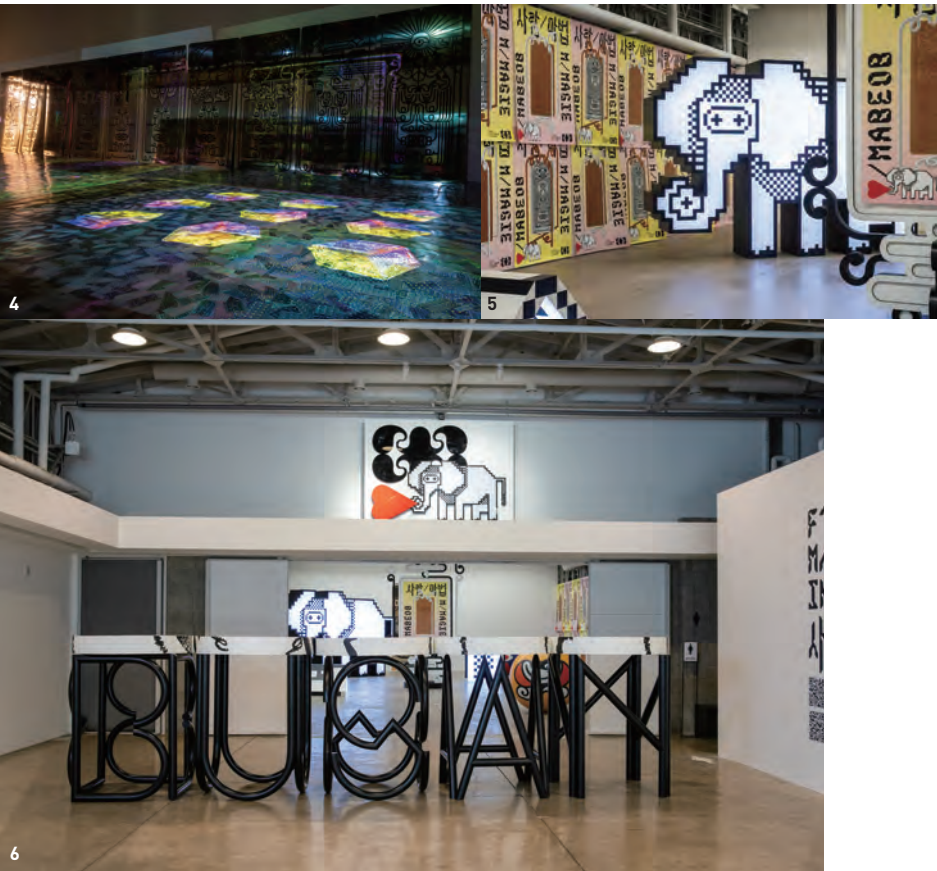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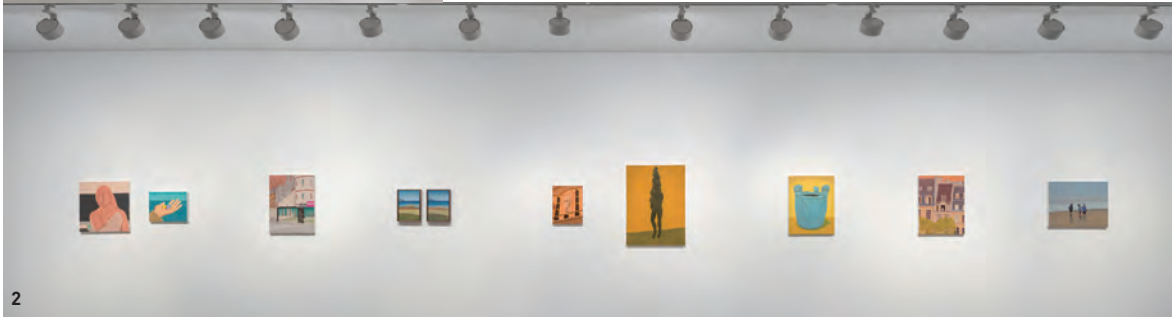
졌고, 이는 패션쇼를 경험하는 방식을 재정의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의 활동 영역이 패션에만 머문 건 아니다. 2010년 향수 브랜드 바이레도(Byredo)와는 '먹(ink)'을 테마로 한 제품 'M/MINK'를 선보이며 후각과 시각의 경계를 허물었고, 포피두 센터 같은 미술 기관과도 협업하며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해왔다.

경험으로 완성되는 마법

이 모든 작업을 관통하는 M/M(Paris)의 힘은 무엇일까. 이번 전시를 통해 그들은 스스로를 '전지전능한 창작자'가 아닌, 기존의 기호와 의미를 열고 편집하는 '열린 구조'의 창작자라고 정의한다. M/M(Paris)의 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이들은 먼저 자신들만의 알파벳을 만들고, 이를 해체하고 재조합하며(고려재깅의 심벌 '코끼리'와 M/M(Paris)의 상징적 캐릭터 'The Agent'가 합쳐져 'ElephAgent'가 되듯) 하나의 거대한 기호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인 '마법(MAGIE)'을 'IMAGE', 'MAGI', 'NATION'으로 해체해 'IMAGINATION'과 연결하는 유쾌한 언어유희가 대표적이다. 이번 전시에서 '마법'이란 이미지를 통해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게 하는 새로운 인식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질문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관객을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능동적인 참여자로 초대한다.

이렇듯 M/M(Paris)의 작업 세계를 깊이 여행하고 나면, 부산 전시 공간에 놓인 단서들은 더 이상 낯선 기호가 아닌 풍부한 맥락을 품은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술가로서 한 번쯤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와 같았다는 78장의 거대한 타로 카드 작업이 그 중심에 있는데, 이들은 운명을 점치는 도구로서의 타로가 아닌, 디자이너의 시선으로 기호와 상징의 체계가 지닌 한계를 시험하는 시선으로 접근했다. 미카엘 암잘라그의 말처럼, 이들의 작업은 완결된 결과물이라기보다 오히려 '악보'처럼 작동한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수많은 기호들은 M/M(Paris)가 작곡한 악보가 되어 새로운 상상력을 연주하게 한다. 글 김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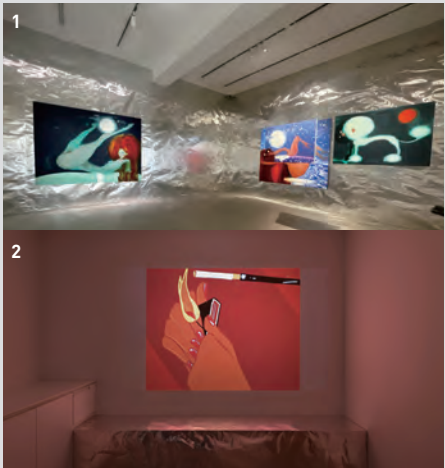




삶을 이해하게 하는 회화의 힘 # 그룹전 〈Next Painting: As We Are〉 국제갤러리 K1, K3

시가 그리는 그림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회화'나 '미래의 회화'에 대해 궁금해진다. 디지털 회화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수공예적 감각을 경험하고, 직접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술을 그리워할 게 분명하다. 1980년대 초·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작가 고동어, 김세은, 유신애, 이은새, 전병규, 정이지 작가가 이에 응답했다. 그룹전 〈Next Painting: As We Are〉에서 작가들은 각각 회화 매체 특유의 느린 시간성과 물질성에 주목해 '밀레니얼 세대의 회화'는 디지털 이미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우리에게 제시되는 작업의 최종 귀결은 여전히 물리적 사물이자 형상'임을 보여준다.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이 매년 주목할 만한 젊은 작가들 모아 기획하는 전시 〈젊은 모색〉에 선정되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고동어(b. 1984) 작가는 일상의 사건들을 화면에 콜라주하는데, 화면 속 풍경이 마치 작가의 현실과 상상이 결합된 일기장처럼 보인다. 역동적인 도시라는 공간을 본인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감각으로 표현하는 김세은(b. 1989) 작가는 도시의 변화하는 풍경을 순간 포착하는 듯한 시선으로 '도시의 시간'을 화면에 붙잡아둔다. 지난 몇 년간 네덜란드에 체류했던 이은새(b. 1987) 작가의 회화는 작가의 에나지자 그대로 느껴질 만큼 풍경이나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얼룩, 타박상, 상처부터 남은 음식, 부스리기 등 표면에 부딪히거나 미끄러진 모든 흔적을 수집하고, 심지어 표면 작절이나 분노까지 회화로 표현할 만큼 독창적인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스위스 베른 응용과학대학교 현대미술과를 졸업한 뒤 유럽에서 활동을 시작한 유신애(b.1985) 작가는 마치 도예가처럼 장인 정신이 배어 있는 고전적 화풍을 추구한다. 정이지(b. 1994) 작가는 직접 본 풍경이나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백하게 화폭에 담아내는데, 스냅사진 같은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한번 더 걸음을 멈추게 하는 풍경으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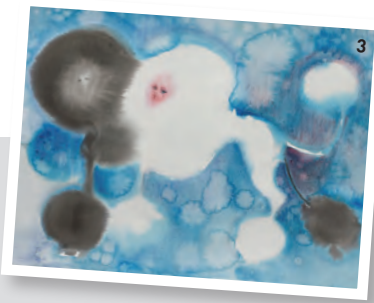
전시명 〈Next Painting: As We Are〉 전시 기간 7월 20일까지 전시 장소 국제갤러리 K1, K3



1 우주 같은 소피아 미츨라 전시. Photo by 고성연 2 소피아 미츨라의 영상 작업의 한 장면. 3 소피아 미츨라가 창조해낸 신화적 종의 이름이자 세계 'Astropoodles'(2025), Watercolour on paper, 56×75cm. ※ 2, 3 이미지 제공,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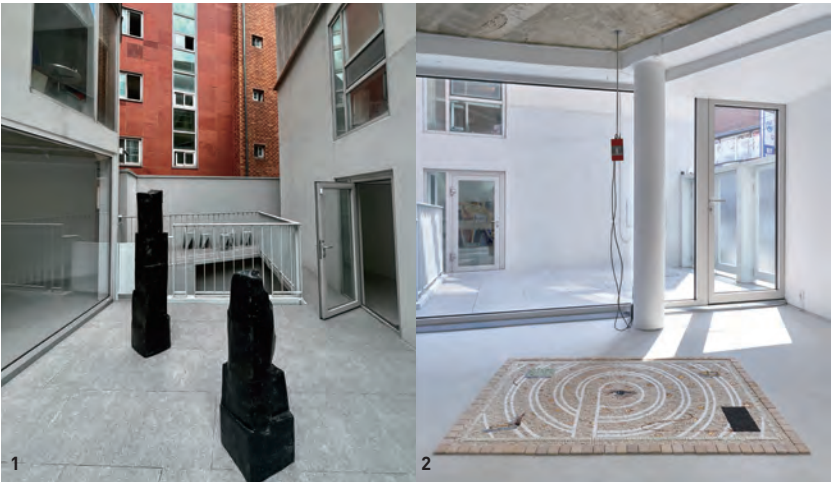
모두의 '몸'이 숭배의 대상으로 거듭나는 순간 #소피아 미츨라 〈Astropoodles〉P21

소셜 미디어를 타고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몸'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으로 '좋아요'를 누른다. '수많은 몸'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몸'에 대한 자유로움을 선언하는 작가 소피아 미츨라(Sofia Mitsola, b. 1992)는 모든 몸을 숭배하는 것 같다. 그리스 테살로니카에서 나고 자라 최근에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피아 미츨라의 한국 첫 개인전 〈Astropoodles〉, 물 흐르듯 유연하고 성별과 시대를 넘나드는 몸, 먼 미래에서 도착하거나 고대 신화에서 깨어난 듯한 부드럽고 흐릿한 신체가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그녀는 자신의 페르소나인 'Astropoodles'(그리스어로 '별'을 뜻하는 Astro와 Poodle를 결합한 단어로 작가가 창조해낸 세계)부터 우주의 요염한 여성, 공상 과학 속 묵묵하는 요정, 우주로 뛰어오르는 푸들 등을 상상하며 유머러스하게 신체를 변형했다. "미츨라의 작업은 구스타프 클림트, 페르낭 코노프, 오귀스트 르누아르 등 관능적인 인체 표현의 회화에서부터 존 갈리아노의 컬레이보이, 타마라 드 렘파카의 아르데코 미학, 1980년대 플레이보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 문화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박신영 큐레이터의 설명처럼 소피아 미츨라는 신화적 모티브부터 현대적 아이콘까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한다. 다양한 신체는 몽롱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 변신을 앞둔 찰나의 순간에 놓여 있기도 한데, 모두 해방된 듯한 포즈를 하고 있다. 소피아 미츨라는 "육양하는 몸, 육방 받는 몸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각자가 자신의 몸을 투영하고 두려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했다. "인간의 차수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수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처럼 소피아 미츨라가 전하고자 한 건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몸에는 아름다운 기억과 욕망이 존재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전시명 〈Astropoodles〉 전시 장소 P21 전시 기간 7월 1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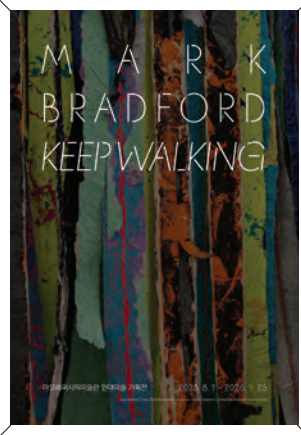


시간의 흔적을 아름답게 새기기 #그룹전 〈Tenses〉갤러리 휘슬

"베르그송(프랑스 철학자) 같은 이는 시간을 순간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아닌, 삶의 흐름과의 연관성에 입각해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시간이란 단순한 양적 개념이 아닌, 내적 경험의 질적 측면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우 큐레이터가 쓴 전시 서문처럼 '시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사색을 위한 전시 〈Tenses〉에서 만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역류의 나른함을 단숨에 날릴 만큼 윤택 있고 낭만적이었다. 김세은(회화), 김유재(사진), 로아정(설치), 문이삭(조각), 한우리(영상) 등 5인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미술이라는 매체가 시간을 어떻게 포착하는가 혹은 연장하는가, 확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신화에 기반한 서사를 영상으로 만들어 매끄러운 평면의 디지털 패널에 내보내는 방식, 〈시네마 천국〉의 할아버지 알프레도와 토트가 생가하는 영사기를 그대로 노출하며 아름다운 화면을 리드미컬하게 만들어낸 한우리(b. 1986) 작가의 작품은 알 수 없는 미래 세계와 과거의 노스탤지어 사이 어딘가를 연결하며 시간의 감각을 문헌적으로 느끼게 한다. 실제로 자신이 흠과 퇴적물을 수집하고 이를 재료로 작품을 만드는 문이삭(b. 1986) 작가의 조각은 경험한 시공간을 그대로 눈앞에 펼쳐놓는다. 한강을 거닐며 채집한 흙과 퇴적물을 재료로 조각하는 등 작가의 사소한 경험은 기념비적인 조각이 된다. 항상 어딘가 시적인 여운을 주는 로아정(b. 1981) 작가는 이번에도 아름다운 시간의 흔적을 만들어냈다. 패널에 새긴 'poetic'이라는 글자가 점차 줄어들면 검은 자국으로 변해가는 삶의 흔적을 아름답게 새기며, 현재라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가만히 응시하게 만든다. 형체가 없는 과거라는 무정형의 덩어리에 프레임을 주어 잠시 고정시키는 것. 로아정 작가의 '회상법'이다. 전시명 〈Tenses〉 전시 장소 갤러리 휘슬 전시 기간 7월 5일까지 글 김수진(프리랜서 에디터)



1 문이삭 작가의 '물술 53'(2025), 초형도, 한강에서 수집한 흙과 나무, 유리로 만든 유약, 125x120x30, 175×43×38cm, Photo by 고성연 2 한우리 작가의 '포털(Portable Version)'(2025), OLED 패널, 물(대리석과 최도류), 5분 30초, 가변 설치, 이미지 제공, 휘슬



이미지 제공, 아모레퍼시픽미술관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Mark Bradford: Keep Walking〉 도시의 혼적, 사회의 균열을 캔버스로 옮겨온 미국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Mark Bradford)의 국내 첫 개인전. 광고지, 포스터, 산업용 종이 등 도시의 부산물을 여러 겹 붙이고 끓여내는 독자적 기법을 통해, 브래드포드는 도시 공간에 축적된 시간과 권력의 구조를 추적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약 40점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시 기간 8월 1일~2026년 1월 25일 문의 apma.amorepacific.com



이미지 제공, 뮤지엄 산

▲ 뮤지엄 산 〈안토니 고티리 개인전 (DRAWING ON SPACE)〉 뮤지엄 산이 영국 조각가 안토니 고티리(Antony Gormley)의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전을 선보인다. 인간, 신체, 공간의 관계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그는 조각, 드로잉, 설치 작품 등 총 48점을 통해 사유와 감각이 교차하는 조형 세계를 펼쳐낸다. 특히 고티리와 안토 다다오가 함께 설계한 공간 'GROUND'가 이번에 처음 공개돼, 자연과 예술, 건축이 섬세하게 맞닿는 풍경 속에서 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다. 고티리는 이번 전시를 '물리적 공간과 상상적 공간이 만나는 지점'이라 말하며, 그 점에서 관람자가 자기 몸과 감각으로 공간을 다시 읽어보길 제안한다. 전시 기간 11월 30일까지 문의 museumsan.org



최민영, 'Sleepless Nights', 리넨에 유채, 130×170cm, 2025, 이미지 제공, 갤러리 바톤

※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Remember the EXHIBITION

“말 이전에 보는 행위가 있다.” 영국의 저명한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렇게 말했다. 전시는 바로 그 '보기'라는 가장 직관적 행위를 통해 세상과 마주하는 방법이다. 올여름, 국내 아트 신은 과거와 현재,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며 동시대를 다채롭게 비춘다. 몇 세기를 건너온 회화부터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한 조형 작업까지, 각 전시는 서로 다른 감각과 시선으로 '오늘'의 미술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이름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는 거장들의 전시가 예고돼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의 시선으로 예술을 들여다보길.



이불, '나의 거대서사: 바위에 흐느끼다-..', 2005, 이미지 제공, 리움미술관

▲ 호암미술관 〈루이즈 부르주아/ 리움미술관 〈이불 개인전〉〉 오는 8월 30일, 호암미술관에서는 루이즈 부르주아의 개인전이 열린다. 거대한 거미 조각 '엄마'와 '말실 X(초상)'은 물론,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초기 회화 등 주요작을 폭넓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9월에는 리움미술관이 홍콩 엠플러스(M+) 미술관과 공동 기획으로 이불 작가의 대규모 서베이 전시를 개최한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 유토피아적 모더니티, 인류 문명의 진보에 대한 탐구를 이어온 그의 작업 세계가 다시 한번 대중과 마주할 예정이다. 전시 기간 8월 30일(리움은 9월 4일부터) ~2026년 1월 4일 문의 leeuhoam.org



© SONGJ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 제공, 송준

▲ 송은 권아람 개인전 〈피버 아이〉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인간의 사고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1회 송은미술대상 수상 작가 권아람은 개인전 〈피버 아이〉에서 이 질문에 시각적으로 응답한다. 영상, 설치, 사운드를 넘나드는 작업으로 동시대 시지각 시스템의 과열과 왜곡을 조명해온 그는 이번 전시에서 공간 전체를 하나의 조형 언어로 엮는다. 신작 '피버 아이'(2025)는 3층 전시장을 LED 패널로 감싼 대형 설치 작업이다. 강렬한 붉은 빛의 강박이 화면은 감시 기술을 환기하며, 그로 인해 파생된 불안과 감각의 혼란을 표현한다. 전시 기간 8월 9일까지 문의 songju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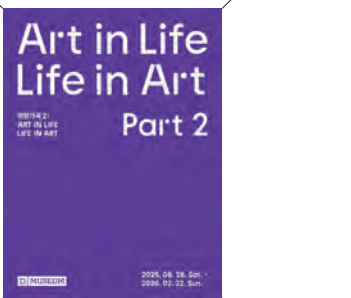
◀ 갤러리바톤 〈최민영 개인전〉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최민영이 국내 두 번째 개인전으로 갤러리바톤을 찾는다. 지난해 스페이스K에서 열린 첫 개인전에서 몽환적 풍경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그는 이번 전시에서 '미지의 숲'을 배경으로 한 회화 신작 10여 점을 통해 한층 깊어진 서사를 펼친다. 최민영의 화풍에는 현실과 환상, 자연과 인간, 도시와 신화가 겹겹이 교차하며 흐른다. 개인적인 기억과 경험에서 출발한 이미지는 초자연적인 풍경을 드러내며 관람객을 상상의 장면 속으로 이끈다. 전시 기간 7월 9일~8월 9일 문의 gallerybalon

▼ 부산현대미술관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감을 얻어 선과 색, 상징으로 인간과 우주의 질서를 시각화한 작가, 스웨덴 화가 힐마 아프 클린트(Hilma af Klint). 하지만 오랫동안 잊혔던 그녀의 작품이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본격 조명된다.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규모 회고전은 1백40여 점에 이르는 회화와 드로잉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했다. 삶의 10단계를 추상적으로 재현한 대표작 '10점의 대형 회화'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7월 19일~10월 26일 문의 busan.go.kr



힐마 아프 클린트, 'No. 15, Nightfall, Echoes', 캔버스에 유채, 99×130cm, 1908, 힐마 아프 클린트 재단 제공, HaK 083, 이미지 제공, 부산현대미술관

▼ 다뮤지엄 〈취향가옥 2: Art in Life, Life in Art 2〉 '일상과 예술을 아우르는 공간'이라는 참신한 기획으로 주목받았던 다뮤지엄의 전시 〈취향가옥〉이 더 다채로운 컬렉션과 함께 시즌 2로 돌아왔다. 백남준, 이우환, 올라푸르 엘리아슨 등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부터 앙송진, 이재하 등 신진 작가가 제작한 가구와 전통 공예품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미감으로 가득 채웠다. 개인 컬렉터들의 미공개 소장품 6백여 점도 더해져,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취향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면을 경험할 수 있다. 전시 기간 2026년 2월 22일까지 문의 daeilmuseum.org



이미지 제공, 다뮤지엄



론 뮤익, '치킨 / 맨', 혼합 재료, 86×140×80cm, 2019, 크라이스트처치 아트 갤러리 테 무나 오 와이(해투 컬렉션,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이미지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조선 전기는 새 나라의 기틀과 함께 우리 문화의 토대가 형성된 시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시기의 예술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을 개최한다. 도자, 서화, 불교미술 등 총 6백여점의 유물을 통해 조선 전기 2백여 년의 미술 정수를 집대성한 대규모 회고전은 1백40여 점에 이르는 회화와 도량형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했다. 삶의 10단계를 추상적으로 재현한 대표작 '10점의 대형 회화'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7월 19일~10월 26일 문의 museum.go.kr



최수진, 'Nightfall, Echoes', 캔버스에 유채, 227.3×181.8cm, 2025, 이미지 제공, G 갤러리

▲ G 갤러리 〈The Mutable Line〉 익숙한 경계를 의심하고, 새로운 감각을 제안하는 여성 작가들의 전시이 만났다. G 갤러리에서 열리는 그룹전 〈The Mutable Line〉에서는 이해만, 최수진, 카밀라 알베르티 작가가 자연과 인간,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사유하며 완성한 회화, 설치, 오브제 작업을 선보인다. 이해만은 DMZ에서 받은 인상을 시각화하고, 최수진은 단편적 기억을 감각적 풍경으로 풀어냈다. 카밀라 알베르티는 자연물과 폐기물을 결합한 조형 작업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시 기간 7월 26일까지 문의 ggallery.kr

▶ 국립현대미술관 〈론 뮤익〉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프랑스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공동 주최한 호주 조각가 론 뮤익(Ron Mueck)의 개인전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정교한 인체 조각으로 현대인의 자화상을 구현해온 작가의 대표작 24점을 통해 현대 조각의 흐름을 짚어본다. 개막 이후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한 이번 전시는 스튜디오 사진 연작과 다큐멘터리도 함께 소개하며, 외로움과 불안,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한편 과천관에서는 해외 뉴미디어 소장품을 소개하는 〈아더랜드 2: 외월 사기, 아크람 자타리〉전이 8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전시 기간 7월 13일까지 문의 mmca.go.kr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AND BRACELETS IN BEIGE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CHANEL

FINE JEWELRY